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2월 12일(음력 11월 3일) 수요일 (주간) | 제657 호

사찰 '재정 투명화' 바람 분다

사찰운영 신도 참여 확대·신뢰감 향상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신도 20만 명에 이르는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12월 6일 사찰 재정 내역을 공개해 사찰 재정운영 투명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찰의 재정 공개는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신도들이 사찰운영에 참여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재무제표 공개에 이어 봉은사가 재정을 공개함으로써 재정투명화 바람이 범종교계로 확산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불교계에서는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와 불광사(회주 지홍), 정토사(주지 보광), 대구 관음사(회주 우학),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 등이 신도들에게 재정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도 내년부터 신도단체장 회의에서 재정을 공개하고 이를 사보 <화계>에 게재하기로 했다. 이들 사찰은 신도와 주지 스님이 함께 사찰운영을 함으로써 소속감을 높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사찰운영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봉은사의 경우 6일 신도회 정기총회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세입 약 96억원과 세출 약 85억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재정 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불전함에서 시줏돈을 회수하는 일에 회계부서의 스님과 자원봉사 신도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스님들에게 관행적으로 주던 객비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봉은사는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도들이 사찰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도회의 기간조직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직 구성 재편도 단행했다. 새 신도로 가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3개월간의 기본교육을 받은 후 신도회에 소속되도록 하고, 지역 및 기능별 모임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신도회 운영에 효율성을 더한다는 것이다. 신도회 조직이 튼튼해야 사찰운영도 원활히 이뤄진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불광사는 1999년부터 재정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사찰운영위원회와 명등회의(구역법회 책임자회의)에서는 매달 재정을 공개하고 전체 신도들에게는 상 · 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공개한다. 또한 신도들은 사찰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도 접수, 불전함 관리까지 맡아 실질적인 불광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김제 청운사도 7년 전부터 신도들이 사찰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사찰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체계 중심의 운영 대신 '자연토론주의'를 채택해 신도들이 언제든 사찰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도회가 주축이 되어 수익사업을 펼치고 이를 사찰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 주지 도원 스님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사찰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찰 경영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서울 정토사의 경우 1982년 창건 당시부터 줄곧 사찰 재정을 공개해 온 사례. 주지 보광 스님은 1987년 직접 '사원용금전출납부'를 만들어 사용해오고 있다.

'사원용금전출납부'는 일반 회계 출납부와 달리 경상비와 현물, 특별비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시주금은 물론 불단에 올리는 공양미와 사탕 한 봉지까지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경상비는 종무소에서 관리하고 연중 행사비는 신도회가 관리하도록 해 신도회와 사중이 서로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재정'을 이뤄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매 행사 때 마다 결산 공개 시간을 갖고 재정 내역을 신도들에게 공지한다. "신도들은 자신이 시주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지 보광 스님의 지론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재정을 공개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올 한해 불교계에 부끄러운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재정을 공개하게 됐다"고 공개 배경을 밝혔다. "내년 한 해는 어려움과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이므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며 "봉은사부터라도 솔선수범해 재정 투명화를 이루면 종단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바람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사찰재정을 공개함으로써 불교계에 재정 투명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2월 6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신도회 정기총회에서 총무국장 진화 스님이 재정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왼쪽) 봉은사 신도들도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피며 '주인의식'을 키웠다.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기사 평가하고 푸짐한 사은품 받으세요

현대불교는 10명으로 구성된 독자운영위원회를 전체독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주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들을 붓다뉴스(buddhanwes.com)에서 '독자위원회' 코너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내용을 적극 반영해 보다 좋은 신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참가자는 매월 추첨하여 푸짐한 사은품을 보내 드립니다. ◆참여 방법 –붓다뉴스(buddhanews.com) 좌측 독자위원회 코너 –> 기사 평가 항목설문 –>주소 남기기

'생명 경시' 방송 풍조에 경종

보리 '생명·생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음식요리를 소개할 때는 엽기적인 살생 장면을 담지 않아야 한다.' '흥미 위주의 작위적 연출로 생명체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사)보리(이사장 김재일)가 방송 전반에 퍼져 있는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상생의 방송'을 촉구하는 <생명 생태를 위한 방송 가이드라인>을 최근 펴냈다.

이 책은 보리가 3년간 40여 명의 모니터 요원을 양성해 생명 생태적 시각에서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20여 전문가들과 5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거쳐 제작했다.

책 속에는 '동물이 영리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등 13가지 생명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KBS, MBC, SBS 등 공중파에서 모니터한 생명경시 프로그램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社告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교재: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5000원)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에이치비엠씨)

社告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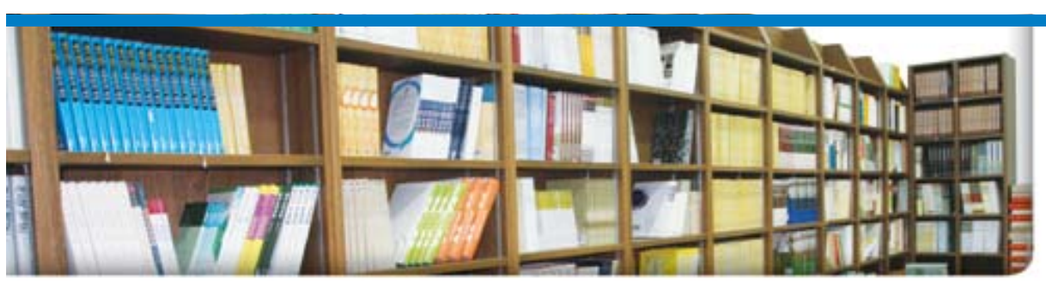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마감 : 2007년 12월 17일
●당선작 발표 :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문의전화 : (02)2004-8282
●이메일 접수 : jygang@buddhapia.com
●시상 부문
–대상(유마상)/우수상(본사 사장상)/특별상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가
새롭게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으로 이에 사업장을 옮기어 오는 10월 22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창업이래 저희를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덕분이며, 또한 출판업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운주사는 이번 확장이전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업무에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운주사 대표 임희근



변경주소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 하이빌 지하 1층
전화번호 | 02)3672-7181~4
팩스번호 | 02)3672-7186. 7188
*전화 및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



조계사 주지 인사 갈등 봉합

토진 스님 부주지·원담 스님 수국사 주지로
'계파간 나눠먹기식' 인사 비판 목소리도

주지 임명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조계사 사태가 조계사 부주지에 토진 스님을 임명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신임주지 임명 철회를 요구해 온 조계사 신도회는 총무원장스님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12월 2일, 대웅전에서 108배 참회를 한 후 정근시위를 회향했다. 신임주지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3일 조계사 종무소 접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前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4일 서울 수국사 주지로 임명됐고, 前 수국사 주지 토진 스님은 조계사 부주지로 내정됐다. 11월 13일 주지임명 발표 이후 20여 일만에 갈등은 수습됐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해 우려를 더했다.

우선 이번 논란이 결국 주지임명을 둘러싼 계파간의 '자리다툼'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강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1월 13일 조계사 주지에 원학 스님을 임명한 직후인 15일에는 무차회 소속의 노현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이 '총무원장 용퇴 및 총무부장 해임'을 촉구하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조계사 신도회도 주지임명 철회와 조계종이 국제선센터를 건립키로 한 조계사 소유의 신정동 부지 문제를 지적하며 11월 16일부터 정진시위를 펼쳤다. 이에 조계종 종책모임인 무차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22일 임시종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집 요구는 하루 만에 철회됐다. 23일 조계종 총무원과 무차회가 '조계사 부주지에 토진 스님을 임명하고 前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수국사 주지에 임명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종회 소집요구를 철회한 것이다. 단식 중이던 노현 스님도 이날 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단식을 중단했다.

결국 '사찰운영위원회 정상화' '주지 임기 보장' 등을 요구하는 조계사 신도회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계파간 '나눠먹기'로 끝을 맺은 꼴이 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이에 대해 "정치적 야합으로 승가개혁정신의 맥을 끊었다"며 비판했고, 실천승가회는 "인사 문제에 책임을 느끼지만 야합을 한 바 없다"며 반박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신도회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관철됐느냐는 것이다.

조계사 신도회 이연숙 회장은 "사찰운영위원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지스님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사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원한다. 또한 총무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주지스님은 실질적인 권한을 부주지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신도회의 요구를 밝혔다.

총무원과 신도회는 수차례의 논의를 벌인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원학 스님은 12월 3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인사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듯 보였다. 이 자리에서 원학 스님은 ▲신정동 국제선센터 운영에 조계사 신도회 참여 보장 ▲필요할 때마다 사찰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약속했으나, 신도회가 요구해 온 '부주지에게 인사·재정권 등을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법에 없는 사항이므로 공식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인사논란의 원인에 대해 "신도들이 직영사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밝혀, 갑작스러운 주지인사와 사찰운영위원회의 무력화로 사찰운영에 불안감을 느끼는 신도들과 어떻게 의견차를 좁혀 나갈지 주목된다.

여수령 기자

Tip 직영사찰이란

조계종 종법 '직영사찰법'에 따르면 직영사찰이라 함은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종단 소속 사찰을 말한다. 분규로 인해 사찰운영이 마비되거나, 사찰 재정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실되거나 재정이 심히 악화된 경우 혹은 반대로 재정이 극히 우량해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영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중앙종회의 승인을 얻어 직영사찰을 지정 혹은 해제할 수 있다. 직영사찰에는 관리인을 임명·파견할 수 있는데, 관리인은 주지 임기 연한(4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계종 홍보팀 신설 등 조직 개편

법률자문 기능 강화·종합 민원실 축소도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홍보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12월 5일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8면>

기획실 내에 신설된 홍보팀은 홍보역량과 언론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종단의 의지를 보여준다. 올 한해 신정아 사건으로 촉발된 언론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에 대해 종단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인력을 확충해 '홍보팀'으로 확대·재편한 것이다. 현재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2인과 신규 채용 인력 2인을 더해 총 4인으로 구성된다. 홍보팀은 앞으로 언론모니터링, 대 언론 홍보지원을 비롯해 왜곡보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2008년 예산에는 홈페이지 정기 개편과 방송미디어 강화를 위한 홍보예산 5500만원이 증액된 바 있다.

재무부는 기존의 재무팀을 재무회계팀과 재산관리팀으로 직제를 나누고, 총무부에 편제되어 있던 기념관운영팀을 재무부로 소속을 이동했다. 또한 그간 공석으로 있던 기획실 법무전문위원실 자문변호사 1인을 충원해 법률자문 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조계종은 올해 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문을 연 '종합민원실'을 축소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실은 폐쇄하고 승적 및 신도증 발급, 전화업무, 우편물 관리 등은 관련 부서로 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총무원은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을 올해 1억1602만원에서 내년에는 9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 상태다. 총무국장 혜경 스님은 "업무량에 비춰볼 때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공간부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민원실 운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증명서 발급 및 전화업무 등은 계속되는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마곡사 신임 주지 법용 스님이 12월 7일 열린 진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진산식 봉행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부대중 등 1천여명 참석

조계종 제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 24대 주지 태산당 법용 스님의 주지 진산식이 12월 7일 봉행됐다.

진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종회의장 자승 스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국회정각회장 이해봉 의원,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준원 공주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법용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마곡사는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와 만공 선사 그리고 그 법을 이은 용음 선사의 정신이 서려 있는 도량"이라며 "대 도량의 주지소임으로서 부족함이 많지만 사부대중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역대 조사스님들의 뒤를 이어 새로 주지소임을 맡은 법용 스님이 마곡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승가대중의 화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혜철 충청지사장

재무부 회계담당 혜철 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이례적으로 재무부 회계담당 소임에 비구니 스님을 임명했다. 12월 4일 회계담당에 임명된 혜철 스님(사진)은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삼선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한마음선원 자료실에서 출판 및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여수령 기자

총화종 내년 예산 96억5천만원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의 2008년 예산이 96억 5000여 만 원으로 결정됐다. 총화종 중앙종회는 11월 16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61차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2008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96억 5818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이날 종회에서는 재단법인 설립과 인재양성에 대한 예산을 늘려 강원 설립 등의 불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관음사 주지후보에 원종 스님 선출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후보에 원종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12월 7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원종 스님(관음사 부주지·사진)은 총 32명 투표인 중 29표를 획득해 주지후보로 선출됐다. 광탄 스님은 2표, 진아 스님은 1표를 얻었다.

당초 관음사 주지후보에 4명의 스님이 입후보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보연 스님에 대해 승랍 미달로 주지후보 자격이 없다고 결정해 후보에서 제외했다. 보연 스님은 5일 총무원에 승랍 정정과 산중총회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입후보자 스님들은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앞에서 ▲투명 선거 이행 ▲상호 비방 및 금품 배포 금지 ▲선거 결과 승복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선거 이행 서약서'에 서약한 바 있다.

여수령 기자

금강대 대학원 석박사과정 모집

천태종립 금강대(총장 성낙승)가 일반대학원을 설립하고,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개설학과는 사회복지불교학과의 불교학·사회복지학 전공이며, 모집 인원은 석사과정 20명, 박사과정 5명이다.

불교학 전공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한국지원사업(HK)에 선정됨에 따라 대학원생들의 연구 참여는 물론 장학혜택이 주어질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학 전공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원서는 금강대학교 홈페이지(www.ggu.ac.kr)에서 다운받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041)731-3050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광주지사 : (062)268-1508
전북지사 : (063)910-519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후원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봉행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 대법회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도 및 사부대중 여러분
광대무변한 불법 광명과 제불보살님의 대자비심으로 불은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에 따라 생활속에 불법을 널리 홍포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종의 기치를 세웠습니다.
특히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종단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종단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이에 창종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전국 대덕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 바 입니다.

■ 일 시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2월 14일 11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 2동 529번지 쌍청웨딩홀
■ 문 의 : 창종주 054) 632-2799 / 011-228-7813
총 무 031) 883-1506~7 / 011-338-1521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창 종 주 : 혜 상
창종위원회위원 : 관도 해명 금담 해광 법광 수암 지공 벽암
증명 : 각 종단 종정 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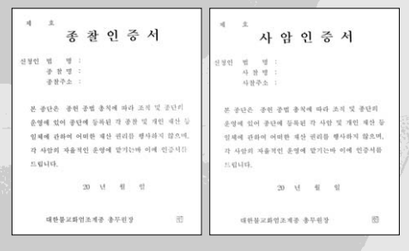


교통편 (쌍청웨딩홀 방향)
•시내버스노선
대전역 : 221, 720, 726, 829
고속터미널 : 640, 103(좌석)
판암주공5단지 하차 : 829
판암주공4단지 하차 : 720, 726, 221, 103(좌석)
판암근린공원 하차 : 640,221,720
•지하철이용
판암역 3번 출구에서 도보5분거리
•고속도로(판암 IC에서 2분거리)
서울→청원→신탄→대전→판암IC진입
호남→광주→논산→계룡→서대전(남부순환도로)→무주, 진주지역 대진고속도로 이용 판암 IC진입
※ 대전역을 이용하실분은 동광장을 이용하세요.
쌍청웨딩홀 04)271-1908

▷입종안내◁
맑고 투명한 종단 대한불교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불교계 정책자료 주요 정당에 전달

제17대 대선을 맞아 불교정책기획단이 불교계 당면현안 및 과제를 총 13개 분야로 선정한 <2007 불교정책자료집>을 각 주요정당에 전달했다.

불교정책기획단은 지난 9월부터 불교계 전문가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불교정책자료집>을 마련했다. 이번에 펴낸 <불교정책자료집>은 12월 7일부터 창조한국당, 민주당을 시작으로 공인기관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을 기준으로 선정된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6개 정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각각 전달됐다.

한편 불교정책기획단에서는 2007년 불교계 주요 정책방향을 ▲정신문화 확산을 통한 물질문명 폐해 극복 ▲상생과 화합 실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발전 ▲환경 및 생태 보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교정착으로 정하고, 2007 대선과 2008 총선을 대비한 불교계의 현안문제와 정책과제를 수집 · 정리해왔다.

김강진 기자

東大 신임이사 교육부 승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성타 스님 등 동국대 신임이사 8명의 취임을 12월 4일자로 승인한 뒤 학교법인 동국대에 곧바로 통보했다. 이에 신정아씨 학력 위조 사건으로 갈등의 골이 심화됐던 이사회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새 이사 임기는 2011년 12월 3일까지다.

동국대이사회는 11월 16일 영담 · 정호 스님(개방이사)과 성타 · 성관 · 수인 스님, 유광진 前 동국대 교수, 오영교 총장, 전순표 동창회장을 이사로 선출하고, 교육부에 취임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동국대교수회(회장 정재형)은 11월 26일 교육부에 이사 승인 거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따뜻한 손길 감사합니다"

불교계 복지단체들 후원·봉사자 위한 연말 행사 잇따라

"올해도 여러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세밑, 훈훈한 온정을 나누고자 불교계 각 복지기관에서 후원 · 봉사자를 위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작은 정성일지라도 꾸준히 후원하고 묵묵히 복지현장에서 일해 준 이들은 복지기관의 버팀목이 돼왔기에 각 복지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감사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정념, 02-723-5101)은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하림각에서 '2007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연다. 불교사회복지대회는 1부 '행복한 유년,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이야기콘서트'와 2부 '불교 문화복지 온누리 한마당'으로 이어진다. 1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학술세미나가, 2부에서는 불교사회복지 유공자들을 위한 포상 및 문화복지 활동 현황에 대한 소개가 주로 이뤄진다.

이번 불교사회복지대회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마산중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진홍 스님과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박용하 관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또 성남 한솔종합복지관(관장 성화, 031-716-4215)은 '제10회 한솔가족송년회'를 12월 13일 개최한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어르신 · 차상위계층 · 어린이 · 장애인에 서비스를 펼쳐온 한솔복지관은 이들과 함께 직원, 봉사자들이 어우러진 행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 광진노인복지관(관장 화평, 02-466-6242)은 12월 12일 두 가지 행사를 각각 진행한다. 경로당 재가어르신들을 위한 '희망찬 새해를 위하여'와 치매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주간 · 단기보호센터의 '모두가 한마음으로'가 그것이다.



한 해를 정리하며 불교계 복지기관들의 후원 · 봉사자들을 위한 감사행사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12월 5일 열린 서울노인복지센터 '좋은인연' 행사 모습.

천태종 복지재단 산하 시설들도 회향의 밤을 준비했다. 올해 개관, 첫 회향의 밤을 진행하는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시용, 043-423-2828)은 12월 14일 '제1회 웃으면 행복하리, 319번지'라는 이름으로 후원자 ·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 및 복지관 이용자들의 작품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319번지'는 복지관 주소에서 따온 이름이다.

춘천시노인복지회관(관장 월도, 033-255-8866)은 다른 곳보다 시간을 조금 늦췄다. 12월 27일 '정해(丁亥)와 무자(戊子)가 만나는 날'을 통해 송년잔치를 펼친다. 대상은 회관 이용 어르신과 춘천시내 소외계층 어르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이다.

한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은 '회향의 밤'을 12월 10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사회복지법인 효림원은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후원의 밤'을 12월 11일 효림원에서 각각 진행했다. 김강진 기자

동국대, 수험생 입시설명회

동국대는 12월 15일 오후 2시 교내 중강당에서 고 3수험생 및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논술특강과 주요대학 지원전략 설명회를 포함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2)2260-3114

김주일 기자





"한국서 새 생명 찾았어요"

심장 수술 받은 이라크 어린이, 혜총 스님 방문

12월 6일 한국에서 선천성 심장병 치료를 받고 완쾌된 이라크 어린이 레나(12)가 조계종 포교원을 찾았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한국에서 새 생명을 찾은 이라크 어린이들의 소식을 듣고 초대한 자리였다. 혜총 스님은 레나와 어머니 사하르, 이라크 환자 조정업무를 맡은 의사 아르완, 봉사자 노희순씨도 함께 초청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 레나의 어머니에게는 염주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레나는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서 주최한 '이라크어린이 환자돕기 사업' 자원봉사기관으로 참여하며 한국 불교계와 인연을 맺게 된 어린이로 11월 12일 서울대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경과가 좋아 거의 완치된 상태다.

레나와 혜총 스님은 이 자리에서 서로 작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다. 레나가 먼저 감사의 뜻으로 즉석에서 자신이 하고 있던 이라크 국기가 달린 목걸이를 스님께 걸어드리자, 혜총 스님은 자비나눔 연꽃 배지를 레나에게 전달했다.

김강진 기자

경기도 지자체-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간담회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12월 4일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경기도지역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기지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8곳과 7개 지자체, 문화관광부, 경기도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브리핑, 홍보동영상 시청, 템플스테이 지자체 협력사례 브리핑, 운영사찰의 지자체에 대한 요청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간담회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14일과 21일, 양산 통도사와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1, 2차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해당지자체의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높다"며 "내년에는 강원 · 충남 등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北 여성·아동 인권 위험수위"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인권보고서 발표회

'현재 북한 인구는 약 2050만 명으로 65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매년 200만 톤의 부족분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가정 해체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사단법인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이 11월 26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가진 '2006~2007 북한인권보고서' 발표회 자리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지침 등을 토대로 현재 북한의 식량, 생계활동, 보건, 사상, 신체, 여성, 아동 등 7개 부분으로 나눠 구성됐다.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자원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배급 순위에 따라 식량을 우선 배급해 일반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여성 및 아동 인권이 식량난과 맞물려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식량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는 가정 해체로 직결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심지어는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소개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가정 해체에 따라 아이들의 인권도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도 함께 밝혔다.

김주일 기자



“어려운 이웃 위한 봉사는 계속돼야죠”

부산불교연합회 ‘민들레 밥집’ 인수… ‘민들레 지비원’ 개명 새도약 준비

큰 상처가 긁고 지나간 자리는 돌아보기 싫은 법이다. 상처의 흉터가 보이면 아픔이 기억나고 슬픔의 감정으로 힘이 빠진다. 봉사라는 좋은 일에 자신의 마음을 붓고 시간을 투자했지만 실망만 안겨 준 사건이 있었다.

올해 10월 경 부산 민들레 밥집에서 활동하던 두타 스님의 이중생활이 언론에 폭로됐다. 많은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실의에 빠졌으며 민들레 노인무료급식소는 존폐위기를 겪었다. 10월 16일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민들레 밥집을 급히 인수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서였다. 어르신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선 안 된다는 단호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 소망을 품은 희망의 현장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12월 5일 새롭게 출발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사직동 민들레 자비원을 찾았다.

봉사자들의 활기찬 웃음과 정성은 겨울 추위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표정을 밝게 바꾸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천천히 식사하시고 도시락도 나중에 챙겨가세요. 국 못 드시는 할머니 자~자 이거 천천히 받으세요.”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은 봉사자들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두타 스님의 일로 인해 우리가 동요하고 봉사를 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챙겨드리며 어르신들의 얼굴을 생각하고 나오는 거죠. 다른 이유는 필요 없잖아요.” 2006년 2월부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황귀자(46세·사직동)씨의 말이다. “어르신들이 몸이 약하셔서 행주, 그릇, 식기 일체를 매일 삶고 청결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저녁 도시락을 싸드리고 거동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배달을 한답니다.” 오직 소외받는 이웃만을 생각한 봉사자들의 순수한 마음이 일궈낸 결실이다.

현재 민들레 밥집은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직영 민들레 자비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도약을 준비 중이다. 지난 12월 10일 부산불교연합회는 후원자 모집 및 무료급식소 운영비를 위해 일일 찻집을 열고 발대식도 개최했다. 이날 민들레 자비원 봉사자 50여명을 격려하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참가자들에게 많은 동참을 권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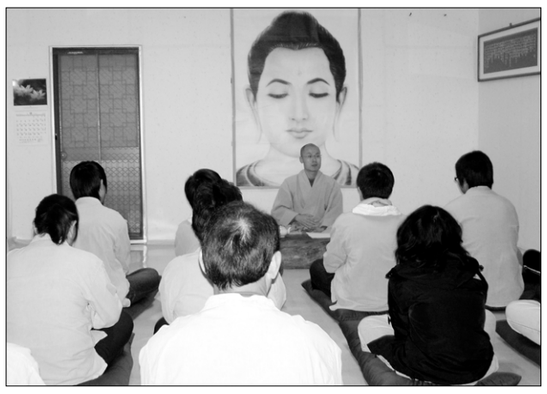
앞으로 민들레 자비원은 봉사의 손길을 늘려 방학 기간 동안 급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나쁜 여론으로 줄어든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기적인 후원자 발굴 및 봉사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후원금은 두타 스님 사건 이후 약 400만원에서 100만여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달 두 차례씩 민들레 자비원 다음 공식카페(cafe.daum.net/lovedandelion)에 지출 내역 및 후원금을 공개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정기적으로 모금 운동을 해 줄 후원자 · 봉사자, 쌀 및 부식거리를 지원해 줄 동참자를 찾고 있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민들레 자비원을 찾는 어르신도 봉사자들도 한시름 놓고 미래를 꿈꾸고 있다.



정읍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금강선원에서 사찰문화체험을 했다.

정읍 보호관찰소, 금강선원서 템플스테이 개최

청소년들 ‘참회와 성찰의 시간’

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 정읍 보호관찰소는 12월 1일 합천 참선마을 금강선원(주지 초중)에서 사찰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부모님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금강선원에서 직접 만든 뽕잎차를 마시며 스님께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가족 간의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며 벽을 없애는 계기도 마련했다.

새벽 예불 후에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108배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스님께 배운 참선을 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문화체험은 인근 해인사를 참배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산사체험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며 스님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 원각사 전통문화 체험행사 큰 호응

금강선원서 사찰 문화체험

순천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도, 민요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해 다문화 가족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4일~12월 8일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각 나라별로 다양한 이주민 가족이 한곳에 모여 한국의 따뜻한 정서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뒀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통해 사회 문화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사이다.

염숙 원장(명원다도문화원,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김창규(前 전남도립국악단 단원,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씨가 강사로 나서며,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사무국장 바수무쿨의 통역으로 진행된다.

양행선 호남지사장

청주청원불교聯 결산 총회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는 12월 3일 청주 관음사에서 2007년 결산 총회를 개최했다. 사암 주지 스님, 신행단체 회장 등 50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수입 1억498만여 원, 지출 1억285만여 원을 결산 승인했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결산 총회를 통해 한해 행사를 점검하고, 청수사 · 충북불교대학총동문회 등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외에도 불교신협 활성화를 위해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1구좌 개설운동을 결의했다. 2008년 신년교례회는 주관단체를 선정해 여법한 준비를 당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통일의 염원’ 담은 쌀 北으로

광주전남지역 시민·종교단체 쌀 200톤 북녘동포에 전달

구례 화엄사를 비롯한 광주전남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가 ‘통일 농업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 지역 통일쌀 환송식’을 5 · 18광장 앞 충장로에서 개최했다.

12월 3일 열린 이날 환송식에서는 지난 1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을 통해 모은 쌀 200여 톤을 서울과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했다.

특히 사찰 내 경작부지 2만여 평에서 생산된 쌀의 전부를 전달한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은 쌀 개방과 FTA 등으로 피폐된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줌과 동시에 북녘동포에게는 공존공영의 메시지가 되어 민족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이루어 나갈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의미 있는 운동에 화엄사가 부처님의 자비섭수 정신으로 동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축사했다.



광주 8.15 광장에서 통일 쌀 환송식을 열렸다.

이에 앞서 김정길 상임공동대표(통일 쌀 운동본부)는 개회사를 통해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이 농촌을 살리고 통일을 이루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일 쌀 가꾸기 사업’은 국민의 성금을 모아 통일 쌀 경작단지를 조성하고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쌀을 북녘동포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농촌과 북녘동포도 돕는 통일사업이다.

양행선 호남지사장

괴산 무심사 미륵대불 점안식 봉행

충북교구 종도들, 불사 위한 성금

괴산 무심사(주지 지근)는 12월 2일 미륵대불 점안 및 지장전 · 용궁전 · 요사채 낙성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중앙종회 부의장 원봉, 충북종무원장 원해 스님, 임각수 괴산군수,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서울시의원), 김상석 국제복지연맹총재, 반기복 사회복지법인 시니어랜드 관리이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무심사는 동자승 6명이 수행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고 노인복지법인 불사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천후 포교도량으로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찰이다.

이날 충북 최고의 가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사를 계속하고 있는 무심사에 태고종 충북교구 종도들의 성금이 전달됐다.



무심사 미륵대불 점안 및 지장전 낙성대법회에 참석한 종정 혜초 스님(왼쪽에서 네 번째)등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종정 혜초 스님은 “불상의 영험은 중생의 정성으로 이루어진다”며 “소원성취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심사 신도들의 기도정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43)833-1461 혜철 충청지사장

옥천 스님·불자 100여명 불우이웃 돕기 탁발정진

충북 옥천군내 스님과 불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탁발정진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는 12월 10일 오후 3시부터 연합회 소속 스님 16명과 티베트스님 6명, 신도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읍내에서 탁발 정진했다. 옥천군청에서 군정발전 기원문을 낭독한 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함께하도록 군민 모두가 동참하자는 호소문도 발표했다.

옥천경찰서와 옥천역, 옥천재래시장, 농협옥천군지부 등에서 발우를 들고, 탁발로 모은 성금과 각 신도회의 자비보시 성금 등을 합쳐 군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탁발정진에는 옥천 대성사와 문화교류를 맺은 티베트스님 6명이 동참해 티베트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등 볼거리를 제공해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혜철 스님은 “연합회 소속 스님과 신도들이 최근 연료비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작은 정성을 전달키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부산불교인재개발원 新강좌 개최

청년지도자 양성과정 등 마련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부설 부산불교인재개발원이 인재불사를 위한 새로운 강좌들을 연다.

먼저 ‘제1기 Lotus(蓮花)불교대학’은 국제 불교교류 및 포교방법으로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설 인재를 위한 교육의 장이다. 교육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년 과정이며 매주 목, 금 오후 7시에 수업한다. 과목은 불교교리, 국제 불교, 비교종교, 포교론, 복지 등이다. 입학 자격은 불교신행학교 및 입문자 과정을 수료한 불자이다.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아카데미도 마련했다. ‘제1기 청년지도자 아카데미’는 2008년 3월부터 1년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수업한다. 교과과목은 불교사상과 실천, 불교와 대중문화, 불교와 미래사회, 청년 불자 리더십 등이다. 각 사찰의 청년 임원 및 청년 불자 대학생들은 입학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교계 대강백들을 직접 만나 공부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제1기 부산불교전문강당’은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을 학장으로 칠불사 회주 통광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화엄정사 회주 각성 스님 등 소문난 강백들을 강사로 초청한다. 교육기간은 내년 3월부터 2년 과정이며 매주 수 · 목 오후 6시 30분에 수업한다. 교과목은 <초발심자경문> <도서> <절요> <전등록> <대승기신론> <섭대승론>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등이다. 경전, 논전, 어록에 대해 심도 깊게 공부할 스님과 포교사, 재가 지도자들만 입학이 가능하다. 전 강좌의 접수 기간은 내년 1월까지이다. (051)853-8539

하성미 기자

대성 스님 “상주물, 뇌물 아니다”

기자회견서 범어사 입장 표명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대성 스님 고소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범어사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2월 1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성 스님은 11월 12일 해운회사 회장 권영환(일명 혜담)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고소인에게 범어사 경내에 있는 찻집을 직접 경영하게 해주고 또한 재무 스님과 협의하여 범어사내에 한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3회에 걸쳐 상당의 고가 그림과 도예품을 제공했다”며 “이후 피고소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성 스님은 “있지도 않은 찻집 운영권을 어떻게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겠냐”며 “범어사에 들어온 상주물들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닌데 뇌물처럼 오인되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대성 스님은 “상주물을 받은 것을 언론에서는 뇌물을 받은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정정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성미 기자

공군사관생도 수계법회 봉행

1학년 생도 등 59명 참여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주지 동광)는 계사 도공 스님(법주사 주지), 무상 스님(법주사 부주지)을 모시고 12월 5일 성무호국사 법당에서 제59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1학년 생도 42명, 조종사 12명, 사병 및 불자 5명이 계를 받고 불자의 삶을 다짐했다. 미래 공군을 이끌 불자 장교 양성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법주사와 더불어 금불회, 성불회, 보문회, 충북예비역불자회, 예불회, 석불회 등 청주청원지역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자리를 함께해 축하했다.

성무호국사 주지 동광 스님은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좋은 날 부처님 미소를 닮고자 하는 생도들의 수계식을 봉행했다”며 “정식 불자로 첫발을 내딛는 불자 생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행복한 가정 만들기’ 도와드려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화목하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원할 것이다. 이제는 이런 가정의 행복도 국가가 챙기는 시대가 왔다.

“정말 복지영역에 가정도 포함되나요?”

물론이다. 이혼, 불화 등의 가정 파괴로 범죄 · 자살이 증가해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현실적으로 언제나 화목한 가정은 존재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개체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다 보니 구성원 간의 이견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전처럼 부모 · 남편의 권위를 앞세워 아이나 아내에게 위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즉, 구성원간 평등을 중시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개개인의 행복지수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인 것.

이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11월 23일 개소한 중랑구를 비롯해 종로구,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들=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가족상담사업, 생애주기별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 등이 있다. 중앙센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 ▲가족문제 예방과 감소 및 위기 치료 ▲가족 잠재력과 자립능력 개발 ▲세대별 욕구충족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가족상담사업은 부부, 자녀양육, 고부갈등, 재혼 등 가족관계 전반에서 고통받는 요인에 대해 상담을 펼치는 사업이다. 전문 상담가를 통해 가족 간 불화의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생애주기별사업은 결혼 전부터 시작된다. 결혼준비교육은 예비 부부가 배우자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결혼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 위기에 닥친 부부, 부모-자녀간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가족간 대화증진교육, 현대 가족에서 기대되는 아버지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아버지 교실 등도 운영되고 있다.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으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로 마련돼 있다. 가족이 힘을 합쳐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가족봉사단 활동,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가족사랑 캠페인 등이 여기 포함된다.

가족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 장애인가정 등이 특히 주목해야 할 사업이다. 양육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통해 이들 가정 구성원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한 장치기 때문. 아직 시범운영 중인 곳이 많으므로 우선 중앙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 한부모 · 조손 · 기러기 · 실직자가정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체계도 마련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보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자조모임’ 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 장애아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조모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정보, 감정적 유대감 등을 얻고 후속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중앙에서 장소와 예산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이용이 가능한가요?”다. 그렇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취지 자체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영역이 저소득층에서 일반인까지 대폭 확장됐다고 보면 된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무료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담은 지역에 따라 소정의 상담료를 받는 곳도 있다. 상담료는 자조모임이나 가족봉사단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모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한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 많은 부산, 천안 등 5개 지역에서는 ‘당당한 나, 행복한 우리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한부모 가정 지지에 힘쓰는 식이다.

각자의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 서울 22개소를 포함, 전국 66개소(중앙 포함)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센터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www.familynet.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화(02-3141-9494)로도 가능하다.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은 “건강가정을 위해서는 갈등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해결이 힘든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 의지를 갖도록 지지,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센터는 보편적인 가족들이 대상이므로 부담없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 곳?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부·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 <사진제공=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불교계 수탁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02)2678-2193
서울 종로구:(02)764-3524
서울 중랑구:(02)435-4142

“암 투병 남편 수발 중 뇌종양 판정…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야죠”

생명나눔 선정 12월의 환우 김응심씨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은 남편을 간병하느라 지치고 힘들어서 생긴 두통이라고 생각했다. 두통약을 하루에 몇 알씩 먹었다.

그러나 일주일 넘게 두통이 지속되고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조심스레 의사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말을 들었다.

떨리는 가슴으로 정밀검사를 받자 “뇌에 악성종양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두 번의 수술로 악성종양을 제거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방사선 치료를 30번 넘게 받아야한다는데, 이제 5번.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지만 남편과 아들을 보며 오늘도 힘을 낸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12월의 환우로 김응심(50)씨를 선정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2007년 초여름부터 병원생활을 하고 있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집도 처분했다. 그동안 저축액도 수술비로 모두 소진된 상태. 김씨 큰아들의 아르바이트비가 가족수입의 전부다. 김씨가 희망을 가지고 남은 진료를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도움 하나가 절실한 순간이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김강진 기자



⑦ 일산노인복지관 김학석 부관장

일산에는 ‘호수공원’이라는 명물이 있다. 일산 주민들의 놀이터도, 문화 공간도 되는 공간이다. 그 호수공원에서 또 다른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이다. 일산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좋고 친절하기로 소문났다”고 정평이 난 그곳. 복지 18년차 김학석 부관장(43 · 사진)은 오늘도 그곳에서 어르신들에게 미소로 먼저 인사하며 반긴다.

“‘텅빈 충만’한 삶 누리고파”



김 부관장은 어르신들에게 앉아서 인사하는 법이 없다. 그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자 노인복지 마음가짐의 근본이다.

“말도 상냥해야겠지만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중요한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다. 자연히 점심 시간도 어르신들과 보내는 일이 잦다. 어르신들에게만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니다. 관장스님, 부하 직원까지 두루 그를 좋아한다.

“회사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저희 복지관은 직원들 사이가 참 좋아요. 저도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요. 저는 그것이 관리자로서의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하고요.”

체대 재학중 사회복지사로 진로 변경
‘연꽃마을’과 인연 덕에 불교 입문

물론, 그도 엄격할 때는 엄격하다. 꼼꼼하고 반듯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복지 CEO 자질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해온 결과다.

2000년 일산노인복지관이 개관하면서부터 일해 온 그는 사실 처음부터 불교신자는 아니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과 인연을 맺으면서 불교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와 첫 인연을 맺게 해 준 계기는 불교 안에 있었다.

“고3 때 법정 스님의 <텅 빈 충만>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 때부터 나누는 삶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는 원래 체육학도였다. 체육대학에 진학한 스무 살 어느 날, 문득 회의가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회복지 공부를 위해 체육대를 1학기만 다니고 그만 뒀지요.”

체육대에 다닐 때는 고민에 휩싸였던 그가 복지를 선택한 후에는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다니 역시 사람은 자기 갈길이 다 따로 있는 모양이다.

범인(凡人)이 실생활 속에서 ‘무소유’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법하다. 김 부관장은 “조금 덜 가지고 나누면 충분히 행복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에 가족들의 지지도 전폭적이다. 그의 아내도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일하니 더욱 그러할 터.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학교에서 학부모 강연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그것이 고맙고요.”

그는 요즘 원고를 하나씩 쓰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에피소드가 주 내용이다. 사회복지사로 정년을 마칠 때까지 그는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싶단다.

“초년생 복지사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노인복지의 경우, ‘노인’을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으면 낭패를 봅니다. 현장의 생생함이 담긴 책을 써서 조금이라도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자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8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학림

한국 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시대 · 사상별로 살펴 본 불교…목적은 '하나' 방법은 '다양'

■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여행자가 목적지와 여정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구도나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초기불교 · 유식불교 · 밀교 · 천태불교 · 조사선의 관점에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와 여정을 탐색한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가꾸는 밝은 사람들' (소장 박찬욱)이 12월 1일 개최한 제4회 학술연찬회는 '불교와 상담' 을 위해 실험적 · 합리적 · 실용적 차원에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를 논한 자리였다.



밝은 사람들이 주최한 학술연찬회에 함께한 참석자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미산 스님, 임승택 교수, 김성철 교수, 경정 정사, 이기운 교수, 월암 스님.

□ 열반과 해탈은 불교의 이상과 실천을 대변하는 것 – 초기불교

임승택 교수(경북대)는 '초기불교의 깨달음과 실천' 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불교의 궁극 목표를 깨달음과 열반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내용을 살폈다. "최근의 초기불교 동향이 다원주의적 관점과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한 임 교수는 "깨달음에 관한 어느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사성제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성제는 불교의 가장 원초적인 실천론이다. <전법륜경>에 따르면 고성제는 모든 것이 고통임을 말하며, 집성제는 그것이 갈망에 의한 것임을, 멸성제는 갈망에 대한 남김 없는 버림을 말한다. 도성제는 거룩한 여덟가지의 길이다.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삶, 바른 노력, 바른 마음지킴, 바른 삼매의 팔정도를 뜻한다.

임 교수는 "사성제의 세 번째 항목인 고멸성제는 열반을 가리킨다"면서 "고성제와 고집성제의 체계는 무상 · 고 · 무아에 대한 통찰 수행을 위주로 하는 일반 제자들의 실천영역에 속하는 이지적 능력을, 고멸성제와 고멸도성제의 체계는 열반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의도하는 선정수행 위주의 신비주의적 흐름에 상응되는 심리적 안정을 뜻한다"고 역설했다.

열반은 '행복한 상태로서의 열반' 과 '부정적 개념으로서의 열반' 의 두가지로 나누었다. 그는 '행복한 상태로서의 열반' 을 "선정 체험을 중시했던 신비적 경향의 수행자들에게 친화적인 열반의 모델"로 봤다. 이것이 붓다 자신의 체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에 '부정적 개념으로서의 열반' 은 욕망 · 분노 등의 번뇌가 소멸된 상태로 한정된 이지적 능력에 배대했다. 임 교수는 열반을 행복한 상태로 규정할 경우 궁극적 경지를 일시적이고 주관적 체험의 영역에 한정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들었다. 그는 열반의 성취에는 아무런 초경험적 인식도 필요치 않다는 칼루파하나 교수(하와이대)의 견해를 빌어 열반의 부정적 개념에 손을 들었다.

임 교수는 열반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이 갖는 의의를 "제자들을 위해 붓다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가장 불교적인 것이며 초기불교 전체의 이상과 실천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 <섭대승론>은 통합적 불교 수행론 – 유식불교

김성철 교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는 '유가행파의 수행도' 를 통해 <섭대승론>의 가행무분별지를 중심으로 유식의 수행에 대해 설명했다. 가행무분별지는 <섭대승론>의 3종 지혜론 중의 하나다. 3종 지혜론은 견도 즉 초지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해탈적 통찰로 견도에서 끊어야할 번뇌를 끊는 근본무분별지와 근본무분별지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행도의 성격을 갖는 가행무분별지, 근본무분별지를 획득한 후 새롭게 얻는 청정한 세간지를 칭하는 무분별후득지를 뜻한다.

김 교수는 "가행무분별지는 본질적으로는 분별을 동반한 지(智)이나, 근본무분별지의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문훈습과 여리작의(의언)가 포함된 무분별로 명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문훈습(聞薰習)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진실에 눈뜰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 을 뜻하고, 여리작의(如理作意)는 '현명한 고찰' 로 이해된다.

앞서 임승택 교수가 열반을 설명했던 긍정, 부정의 열반 개념에 이어 김 교수는 "<섭대승론>이 의언(意言)을 매개로 '부정적-지적' 계통의 수행법과 '긍정적-신비적' 계통의 수행 모두를 통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삼밀수행은 즉신성불의 성취를 위한 것 – 밀교

경정 정사(진각종 교육원장)는 '밀교의 수행차제와 증과' 발표에서 최고 진실을 일체지지로 표명하는 밀교의 수행차제와 그 증과를 정리했다. 경정 정사는 "보리심이 밀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며 보리심의 생명적 파악이 금강살타의 개념"이며, "금강살타의 전체적인 인식에서 비로자나불의 교설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비로자나불의 정연한 활동상이 만다라이며, 만다라를 수행 관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삼밀수행"이라고 발표해 밀교의 교리와 수행차제가 보리심-금강살타-비로자나불-만다라-삼밀수행임을 보였다.

삼밀수행은 중생이 신구의(身口意)로써 부처의 신구의를 상징하는 진언 · 인계 · 형상을 각각 염송과 결인, 관상의 방편으로 부처와 합일하는 수행법이다. 경정 정사는 밀교 수행의 증과를 "중생이 현생의 몸으로 성불하는 즉신성불을 성취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 법화는 돈점(頓漸)을 포섭하는 가르침 – 천태불교

천태학에서는 불교의 궁극적 목표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기운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법화 천태학에 있어서 인생고의 해탈과 불도의 완성' 을 통해 천태학의 해탈과 불도를 위한 수행법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오셔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 보여 깨달음에 들게 했다"는 '일대사인연설' 을 시작으로 "개권현실(開權顯實)의 취지에서 중생에게 사제와 십이인연법, 육바라밀법을 주어 생사고를 제거하여 불도를 이루게 했다"는 논지를 펼쳤다. 개권현실의 권(權)과 실(實)은 방편과 진실을 뜻하며 흔히 달(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방편)에 비유된다. 개권현실은 즉 방편이 열림과 동시에 궁극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말이다.

<법화경>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수행법은 "개권현실의 교의에 의해 삼승법으로 중생들의 인생고를 벗어나게 하고 일승법으로 구경의 불도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었다. 또 "천태의 수행은 점차지관 · 부정지관 · 원도지관의 삼종지관을 실천하는 점(漸)과 돈(頓)을 아우른 원교 실상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 일념을 수행하면 자신이 부처 – 조사선

월암 스님(벽송사 주지)은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 발표에서 조사선을 "일념을 수행하고 일념을 깨닫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물고기가 용이 되어도 몸에 있는 비늘은 변하지 않고, 범부가 성인이 되어도 인간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는 옛 조사스님의 말씀을 인용한 스님은 "이 말은 곧 번뇌가 보리이며,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고, 중생이 바로 부처이며,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자리이타의 보현행원이 변함 없음을 강조한 말"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스님은 선수행자들에게 "수오일여(修悟一如: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의 실천을 통해 선의 생활화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밝은 사람들의 이번 학술연찬회는 지난 봄 고 · 집성제에 이어 멸성제와 도성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초기불교 · 유식불교 · 밀교 · 천태불교 · 조사선은 그 궁극적 목표를 밝힘에 있어 표현과 모습은 다를지언정 부처가 되기를 궁구하는 목표는 한결 같았다. 어느 가르침이, 또 어떤 수행법이 우위라고 할 것도 없었다. 참석자들은 2500여년 불교의 흐름 속에서 일법만화(一法萬化)하고 만법귀일(萬法歸一)한 부처님의 현묘한 가르침을 보았다.

조동섭 기자

태현과 법해의 '신통 겨루기' …일연 스님의 '판정' 은?

남무희씨 한국역사연구회 세미나서 '일연의 불교유식관' 발표

<삼국유사>에는 신라 경덕왕 무렵 가뭄을 해갈하고자 태현 스님과 법해 스님이 각기 비를 청했던 사실이 나온다. 먼저 태현 스님은 가뭄 때문에 재를 올리는데 맑은 물을 올리지 못하자 법문을 하면서 향로를 받들고 있었더니 우물물이 높이 솟았다고 한다. 그 이듬해 왕은 법해 스님을 모셔 <화엄경> 강의를 청하면서 태현 스님이 우물물을 솟게 한 사실을 언급했다. 법해 스님은 "작은 일인데 그리 칭찬하느냐"며 <화엄경> 강독을 했고 그 순간 동쪽의 못이 넘쳐났다. 그 물은 내전 50여칸을 떠내려 보냈다. 또 멀리 감은사에서는 바닷물이 넘쳐 불전의 계단 앞까지 찼었다.

이 이야기를 소재로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의 유식불교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남무희(국민대 강사)씨는 '<삼국유사> 의해편 현유가화엄조에 보이는 일연의 유식불교관' 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삼국유사> 의해편 현유가해화엄조를 인용해 일연 스님의 유식불교관을 정리했다.

남씨는 일연 스님의 유식불교관에 대한 관점을 <삼국유사> 의해편에 기록된 분량의 차이에서 시작했다. 남씨는 일연 스님은 "다른 승전에 전하거나 따로 전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료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해편을 구성했다"는 종래의 학설에 주목하면서 <삼국유사>에 수록된 사실은 물론 다른 자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태현 스님과 함께 유식불교인 신라 법상종을 대표하는 진표 스님은 '진표전간' 등을 통해 상당량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태현 스님에 대해 기술한 '현유가해화엄' 조는 상대적으로 소략돼 있다"고 주장했다. 태현 스님에 관한 기록이 소략된 것은 "화엄을 유가의 우위에 놓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유가와 화엄의 대립과는 별도로 "미륵과 아미타를 모시는 태현계 법상종의 법맥이 궁예에게 전해져 궁예의 몰락과 함께 쇠퇴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편찬 당시의 불교관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 남씨의 주장이다.

조동섭 기자

공익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부설 전문강원

중앙불교대학원 학인(승려, 행자) 모집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로 나이 학력불문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琪 무사암 주지)
◆ 특강교수 : 법봉, 무송, 마정, 법인, 구화, 법천, 지고, 덕진 대명스님 등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서울 접수처 : 02)496-3951 마정 부산 접수처 : 051)335-2210 법봉
경북 접수처 : 011-548-3664 법인 호남 접수처 : 011-619-1322 법천
경남 접수처 : 055-583-8170 무송 강원 접수처 : 033-342-6940 지고



공익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부설 전문강원 중앙불교대학원

“동·서양 악기 어우러지듯 이웃의 행복 연주했으면”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회장 **오시환**]

클래식 연주단체 니르바나 후원회 결성 ‘주역’
뛰어난 기획력으로 음악회 성공적으로 개최
불교계 리더 대상 ‘문화커뮤니티’ 결성 계획



잘나가는 광고기획자에서 요리사로 변신해 성공한 오시환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회장. 그는 더 튼실한 감동을 주는 음악 연주 단체로 니르바나가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선봉장에 나서 팔을 걷어 부치고 뛰겠다고 발원한다.

창기 도반의

마흔여덟에 식칼을 든 남자, 광고기획자 출신의 늦깎이 요리사, 해산물 요리 전문점 ‘해장금’ 사장…. 오시환(54)씨 앞에 붙는 다양한 수식어들이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이제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니르바나) 후원회장으로 통한다.

니르바나 공연이 있는 날이면 제일 먼저 그를 공연장 밖에서 만날 수 있다. 오 회장은 공연장 문 앞에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콧수염과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팸플릿을 들고 관객들을 맞이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좌석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이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등 온갖 궂은 일도 마다 않는다. 자신의 생업인 음식점 경영도 벅찬 그가 어떤 인연으로 니르바나와 만났을까?

2005년 5월, 불교계 유일한 클래식 연주단체인 니르바나는 창단 7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할 큰 위기를 맞는다. 자금 사정이 문제였다. 연주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강형진 단장이 근근히 이끌던 니르바나의 재정은 이미 바닥 난 상태였다.

마지막 연주회라고 생각하며 호암아트홀서 봉축음악회를 준비하던 강형진 니르바나 단장은 표가 예상대로 팔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때 지인 소개로 인연이 된 이가 바로 오시환 회장이다.

“연주회를 며칠 앞두고 강 단장이 ‘해장금’으로 찾아와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라구요. 그때 저는 ‘유니텔 부처님나라 불교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매월 1회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안산 둥지청소년의 집 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해 놓은 상태라 그들을 대접할 음식을 한창 만들고 있었습니다. 짬을 내서 구석에 앉아 있던 강 단장의 표정을 힐끔 살펴보니 완전히 풀이 죽은 상태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오 회장은 즉석에서 100만원을 꺼내 표를 샀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인연 있는 스님들과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600여 만원 정도 더 표를 구입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강 단장은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에 몇 번 아이들과 공연장에 가봤지만 별 감흥을 못 받은 터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내가 강 단장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음악회 표를 구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음악회가 끝난 뒤 강 단장이 다시 ‘해장금’으로 오 회장을 찾아왔다. 그리고 깜짝 제안을 했다. 니르바나 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물론 오 회장에게 주축이 될 것을 부탁했다. 오 회장은 생업이 있던 터라 기획국장을 맡는 것으로 서로 한 발씩 물러섰다. 광고기획자였던 오 회장이 가장 자신 있어 한 분야가 바로 기획 일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5월말 드디어 후원회 결성음악회를 ‘해장금’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꺼져가던 니르바나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7월 불교미술박물관 테마 연주회를 거쳐 11월 소아암 돕기 연주회까지 오 회장의 뛰어난 기획 능력은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비범함을 안 후원회 임원들은 급기야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2월 제2대 회장으로 그를 추대했다.

“책임이 무거웠지만 저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국악과 서양악기가 잘 조화된 니르바나만의 독특한 컬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클래식 자선음악회 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없어질 것 같았던 니르바나는 지난 2년간 몸을 돌보지 않고 발로 뛴 오 회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는 후원회원이 400명이나 될 정도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 11월 소아암 돕기 음악회에는 삼성전자, 동국제강, 금호아시아나 등 국내 유수 기업 10개 업체가 4000여 만원의 후원을 해주기도 했다. 불교 음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음악회하고 남은 기금을 다시 12월 5일 혈액암협회와 생명나눔실천회에 기부했습니다. 돈으로 소아암 환자를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음악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회장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천론자이다.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잘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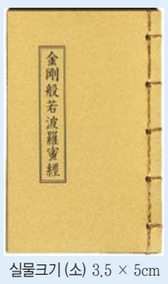
“어려울 때 어렵다고 느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바닥에 있더라도 냉정하게 해결점만 찾으면 반전이 됩니다. 니르바나의 좋은 취지를 많은 이들에게 발로 뛰며 알리는 것이 해결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광고를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면 좋은 인연(소비자)들이 반드시 많이 찾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니르바나 음악 수준 많이 높아진 거 못 느끼세요?”

5년 전만 해도 대기업의 잘나가던 광고인이었던 오시환 회장. 불혹을 훌쩍 넘긴 나이에 미국행을 결심, 플로리다의 초밥집과 뉴욕의 퓨전 레스토랑에서 쿡 헬퍼로 일하면서 3년간 곁눈질로 요리를 배웠다. 귀국 후 ‘해장금’을 열고 화려한 광고장이에서 성공한 퓨전레스토랑 사장으로 변신한 오 회장은 니르바나를 통해 또 한 번 삶의 시계를 바꾸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강형진 단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니르바나를 바꾸려 한다. ▲붓다와 그 제자들을 주제로 한 뮤지컬 제작 준비 ▲요가 명상 등을 통한 연주단원들 불교포교 ▲니르바나 어린이 챔버 오케스트라 활성화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테마 연주회의 주제 및 저변 확대 ▲음악 템플스테이 활성화 ▲불교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커뮤니티 결성 등이다.

언제든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오시환 회장의 2008년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 식 상량식 불사 소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은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일주문



불교신문 사장 취임 및 후원법회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2월 4일 올림픽공원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신문 사장 취임 및 후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념 스님은 12월 16일 오전 10시 종로 라이온스 클럽빌딩 7층 재단교육실에서 주말 자원봉사기본교육을 실시한다. (02)723-5101



국민추천 정부포상자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행정자치부가 올해 처음 제정한 제1회 '국민추천 정부포상자'에 선정돼 12월 4일 열린 시상식에서 표창 받았다.



극락보전 낙성 및 점안법회
창녕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12월 16일 오후 2시 극락보전 낙성 및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일선 스님(파주 평화통일사 주지)이 초청 법문한다. (055)532-0408



12월 특강 '놀이치료' 진행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은 12월 12일 오후 4시 박해숙 심리치료사를 초빙, 놀이치료를 주제로 월례특강을 진행한다. (02)737-8803



직할교구 신도임원연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12월 15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직할교구 신도임원연수교육을 실시한다. (02)735-2428

인사

■ **조계종** ● **총무원** △총무부 총무차장 이석심 △총무부 사찰교무팀장 박종학 △총무부 연수원 TFT팀장 김병주 △기획실 기획팀 행정관 고상현 △기획실 홍보팀장 박정규 △기획실 감사국 감사위원 김영주 △기획실 법무실 변호사 정석원 △재무부 기념관운영팀 행정관 함동철 △문화부 문화팀장 심주완 △문화부 문화팀 행정관 윤승환 △호법부 호법팀장 공승관 ● **교육원** △교육부 교육팀장 전인동 ● **포교원** △포교부 포교차장 김영일 △포교부 포교팀장 권대식 △포교부 포교팀 행정관 인성호 △포교부 어린이청소년팀장 황철기 △포교부 신도팀장 전창훈 ● **파견직** △통도사 종무실장 황충기 승급 △2급 승급 이석심(문화사업단) △3급 승급 김영주(기획실) 권상혁(정보관리팀) △4급 승급 김영환(신도팀) 이동선(총무팀) 이선화(사찰교무팀) △5급 승급 장혜경(기획홍보팀) 양원준(교육팀)
■ **대구불교방송** △신임 총괄국장 박호창

"세계인들과 부처님 가르침 나눌 것"

외국인스님으로 첫 포교대상 받은 무진 스님



"포교대상 원력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30여 년 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도움을 준 많은 재가불자들이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보통사람'도 원력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원력을 세우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 서 온 무진 스님(스위스 법계사 · 사진)이 외국인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선정하는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한 무진 스님은 12월 5일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입국했다.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아 출가를 결심했다. 1976년 스리랑카 스리난다라마야사에서 아난다 마이크리아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고 이곳에서 원명 스님을 만나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1983년 한국을 찾은 스님은 1984년 석남사에서 인홍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후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위해 1987년 강화도에 연등국제불교회관을 건립했다.

"회관 건립 초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법당청소부터 재정관리, 운영까지 모두 혼자 힘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수제비나 라면을 끓여 먹어야 하는 힘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첫 불교영어강좌에 60여 명이나 등록하는 등 불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97년까지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불교영어강좌와 참선, 다도 등을 강의했고, 서울국제부인회 등에서 한국불교 알리기에 나섰다. 88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는 국제포교사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제포교사양성 교재를 제작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어 제1기 국제포교사를 배출했다. 1991~1996년에는 러시아를 방문해 현지인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힘쓰던 스님은 2005년 무대를 스위스로 옮겼다. 스위스에 한국 절 법계사를 건립하고 지금껏 한국인 교포와 현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법계사는 매우 작은 절입니다. 하지만 법계사를 찾는 교포들과 스위스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열정이 매우 뜨겁습니다."

올해는 비로자나국제선원의 자우 스님과 함께 제네바와 라사라성에서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해 한국불교와 한국문화를 스위스에 알리기도 했다. 이 밖에 2004년부터는 싱가포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상담도 펼치고 있다. 전 세계를 누비며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이지만, 정작 스님은 포교를 뜻하는 'propagation'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어 'propagation'에는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만 세계인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share)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한 어디든 찾아가 불법(佛法)을 나눌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시카다상 2년 연속 한국 시인 수상

4회 수상자 신경림 시인



신경림(72 · 사진) 시인이 동아시아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웨덴의 권위 있는 문학상 '시카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은 신경림 시인이 스웨덴 시카다상 심사위원단이 선정하는 제4회 '시카다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12월 4일 밝혔다. 지난해 고은 시인이 같은 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한국 시인의 수상이다.

시카다상은 197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스웨덴 출신 하리 마르틴손(1904~1978) 탄생 100주년에 맞춰 2004년 제정된 상으로, 상의 이름은 마르틴손이 1953년 출간한 시집 제목에서 따왔다. 신경림 시인의 작품은 아직 스웨덴어로 출판되지 않아 심사위원단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된 시인의 작품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시인에게는 상금 2만크로네(약 290만원)와 함께 스웨덴의 도자기 예술가 구닐라 순드스트룀의 작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17일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김동건 대표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61 · 사진)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새 위원장에 김동건 대표를 임명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사범대 부설고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11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참여불교 재가연대 상임대표와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신고재산 등록 및 등록 재산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사명당기념사업회 신임회장 선임

박권흠 前 국회의원



사단법인 호국성사 사명당기념사업회는 11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박권흠 前 국회의원(75 · 한국차인연합회장 · 사진)을 선임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박 회장은 "사명대사의 업적을 선양하고 사업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언론인으로서 국제신문 정치부 부장과 대구일보 사장을 역임한 박권흠 회장은 신민당 김영삼 총재 비서실장을 비롯해 제10, 11, 12대 국회의원, 서울올림픽 조직위 집행위원 등의 요직을 거쳤다.

현재 한국서화가협회 회장, 한국자동차경주협회 명예회장,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여수령 기자

기자상 시상식 및 불기협의 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남배현)는 12월 3일 서울 만복림에서 '불기협 기자상 시상식 및 불기협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본사 공동취재단이 기획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주간불교신문 유응오 • 신중일 기자가 대상을, 법보신문 사김현태 기자가 보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터넷 여행동호회 운영자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2월 1~2일 인터넷 여행동호회 운영자들 20여 명을 대상으로 김천 직지사에서 템플스테이 팸투어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는 지장 스님(초의차명상원장)의 지도로 차명상과 자비명상, 음식명상, 소리명상을 비롯해 발우공양과 참선 등으로 진행됐다.

군종교구, 출판간담회 및 후원 약정서 전달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12월 5일 국방부 원광사 회의실에서 군법사 4명이 저술한 <4인 4색 길을 말하다> 출판간담회 및 출판 수익금 군포교 후원 약정서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책 공동저자인 김갑영, 이정우, 함현준, 김대현 법사 등 4명은 조길조 군종교구 종책의장 법사에게 약정서를 전달했다.

웅진그룹 빈그릇운동 서약기금 전달



웅진그룹(회장 윤석금)은 12월 5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에코붓다에 빈그릇 운동 서약기금을 전달했다. 웅진그룹은 이날 빈그릇운동 동참 서약서 3570장과 기금 357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가운데 법륜 스님, 그 왼쪽은 이진 웅진그룹 부회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염불암
● 성명 : 안재옥
● 법명 : 법현
● 주소 :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3번지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 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2일

(사)한국불교 법화종 종무원장 법하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종무소 전화 : 033)343-0103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디지털마이크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각종 마이크 시스템(에코가능)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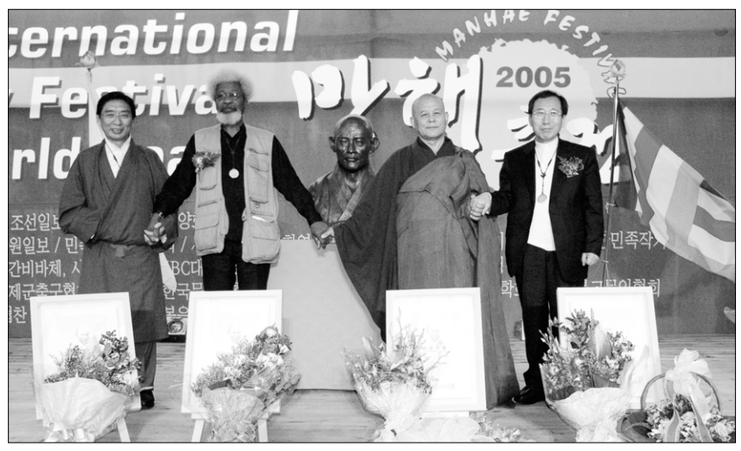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詩心이 곧 불심이요, 깨달음이라'

e 해외불교칼럼



2005년 만해마을에서 열렸던 '금강산 세계평화시인대회'. 왼쪽부터 조베 펠로체른 티베트 법당 동아시아 대표부 대표 소잉카 시인, 지관 스님, 함세웅 신부.

불교와 더불어 피어난 시심은 오늘날까지 주옥같은 시맥으로 이어져온다.

불시(佛詩)는 물 흐름이자 구름 가는 길일터. 따라서 자아도취의 몽환이나 글재간 다툼일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구도행각이요 고즈넉한 만행이리라. 치열한 두께의 유화보다는 담담한 수묵화를 닮은 불교적 시정은 어느덧 서구도반들의 잔잔한 동행을 유혹해왔다.

이는 불법이 그만치 그들 일상생활 깊숙이 베어든 걸 입증한다. 미국의 경우, 비트불교로 상징되는 '샌프란시스코 르네상스'의 선구자 잭 케루악, '절규'의 저항시인 앨런 긴즈버그, 아나키스트이자 환경운동가로 퓰리처상 시 부문 수상자인 개리 스나이더, 다르마상그하 선원장을 지낸 필립 휘일런 스님 등 저명시인에 이어 가수 겸 여류시인인 패티 스미스 등 숱한 남녀의 불심과 시심들이 차이하나 등 여러 불교문단을 통해 속속 등장한다.

불법이 달빛처럼 온 여울에 내려앉는다는 우리 자랑스러운 찬불서사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정서가 거기서는 '콜로라도강의 달 밝은 밤(Moonlight on the Colorado)'으로 이어지는 걸까?

그럼 불교적인 단문에서 불시로 넌지시 돌아 흐르는 폴 돌린스키의 시냇물을 따라 미국형 만행을 떠나보자. 우리는 욕망에 매달리고 거기 갇혀 괴로워한다. 괴로움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생겨난다.

우리는 불법에서 얻어진 올곧은 마음가짐으로 이 괴로움을 덜어낼 수 있다. 어느 찰나 우리의 몸과 맘은 어디에 있나? 이에 대한 맑고 밝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의 뿌리인 매달림을 털어내고, 그 찌꺼기마저 헹궈낸다.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서 나의 쉬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내 안에 불나방처럼 펄떡대는 욕망의 유희를 알아차리되 나의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고이 가둘 때 깨우침은 스스로 이뤄진다.

〈출처:우리시대 우리들을 위한 시 모음:불교 주제의 시문학 선집〉

편역:성휴 스님

시(詩)란
가르고 나누는 칼
욕망이 숨은 곳을 도려내어
고운의 가슴을 내보이며
티 없는 마음을 드러내어
불심에 절로 이르게 하나니
시심이 곧 깨달음이라…

기다림을 배운다면
켜지고 꺼지는 욕망을 지켜보며
그 사그라짐이 아쉽지 아니하다면…
가없이 트인 온 누리
아가처럼 아장아장 다가와
그대를 반기리라
찰나는 또 다른 찰나로 새롭나니…

폴 돌린스키는 버펄로대학에서 철학박사 취득, 뉴욕 등 4개 대학의 동서철학과 전직교수이자 시인, 철학자, 심리치료사로 현재 노숙자, 에이즈 감염자, 약물중독자 구제활동 중.

베트남 스님·재가자 소외계층에 온정

전후복구 후유증과 개방정책으로 인해 현재도 상당한 경제난을 겪는 베트남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지난 5년간 미화로 2500만 달러 이상의 자선기금을 조성, 사회소외층 및 오지주민들과 불심을 나누고 있다.

11월 28일 베트남불교승가협회는 동 기금으로 주택 약 2500채, 교량 250개, 식수용 우물 1500개를 만들고 노약자와 장애인에 휠체어 제공, 극빈자의 생계를 보조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기금으로 전달됐음을 회계보고 했다.

출처: VNA

英 BBC, 심야 법문 프로그램 방송

영국국영방송BBC는 11월 2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라디오 2국에서 심야프로그램 '잠시 멈춰 생각'을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새벽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재니스롱 쇼는 불자가 아닌 철야교대근로자, 불면증환자 등을 위한 법문 등으로 편성된 사회순화특선기획물이다. 한편 북부런던불교센터원장이자 작가인 비쉬바파니 법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4국의 '오늘의 명상' 법문은 12월 4일과 11일 오전 7시 50분에 방송됐다.

또한 지난 11월 8일 런던불교센터에서 두 비구니스님의 수계에 이어 24일 맨체스터불교센터에서 두 비구스님이 수계하는 겹경사가 있었다. 모두 그샤프리바 스님 문하의 마이크 슬래터리는 팔리어로 '막힘이 없는 이'를 뜻하는 니쉬파라, 그리고 소나 스님 문하의 스티브 존스는 '중생수호자'를 뜻하는 나라파라는 법명을 받았다.

출처: BBC, MBC종합

스페인 아미타바티암자서 울력수행

스페인 발렌시아 인근 산악지대의 아미타바티 암자의 수라트나와 비쟈스리 법사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울력수행을 한다. 올리브수확, 토굴 짓기, 밭일 등 하루 약 5시간의 중노동과 참선을 병행하는 이 수련회는 유료회원제로 유럽전역의 비 불자도 참여가능하며 '일일부작일일불식'의 계율이 엄격하다.

출처: TBMSG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❹

'분노'를 자기발전 에너지로 승화



어린시절부터 인종차별 겪으며 자신을 '외유내강형'으로 단련

거대한 보리수로 자란 타이거 우즈는 떡잎 때부터 인생 모범생이다. 그는 세리토 초등학교, 오렌지뷰 중학, 웨스턴 고교까지 거의 전 과목 A학점의 우등생이었으나 대학골프대전에서 10전승을 기록한 스탠포드대학 2년 때 국제골프투어들로 인해 학업을 멈춰야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인내심은 가히 초인적이다. 그가 유치원에 들어간 첫날, 큰 애들이 그를 나무에 묶어놓고 "원숭이, 깜둥이" 하며 툭툭 쳤다. 그러나 그는 끝내 분노의 눈물도, 공포의 오줌도 질질 짜지 않았다. 당시 유치원장의 회고다.

"그는 그 일을 잊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겉에 내비치지 않았어요." 앞서 언급했듯, 그의 아버지는 유능한 보병중령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강인한 자기절제와 인내심은 족히 입증된다. 군사훈련이나 군내규율 때문이 아니다. 그런 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가증스런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인종차별 즉, 이른바 색깔장벽(Color Barrier) 같은 장난질이 군내 진급 등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몇 년 후에야 아들에게 그 얘기를 꺼낼 만치 신중했다. "분노는 소중하다. 분노를 증오로 태워 없애지 말고 자기발전의 동기로 키워라. 나도 야구선수 때 그랬지만 유색인 운동선수들치고 추한 꼴을 안 당한 경우가 거의 없다. 한 번은 우리 팀이 경기를 할 도시에 도착했는데 버스에서 내리질 못하게 살해위협을 했어. 우리는 울분을 터뜨리지도 못하고 그저 껴안고 산거야. 바로 그 분노가 강력한 에너지로 바뀐 거지."

꼬마호랑이 타이거 우즈는 점차 고요한 시한폭탄으로 바뀌고, 흔히 포커페이스라 일컫는 무표정처리 등 감정은닉도 체질화되어 갔다.

평소에는 실바람에도 이리저리 떠밀리던 버들잎이 어느 순간 면도날처럼 휙 그어버리는 외유내강이란 이래서 무서운 거다. 그의 선생님의 말이다.

"그가 골프 신동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That's Incredible!)' 같은 프로에 출연하면 친구들은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 말도 안하더군요." 그가 초등학교 때 두 번 담임을 맡았던 캐롤 선생님의 회고다. "그는 참 영특하고 토론에도 열심인 과묵한 지도자 형이었죠." 중학 때 담임선생님은 좀 더 성숙한 그의 모습을 떠올린다.

"맨 처음 출석부에서 타이거란 이름을 보고선 꽤나 설치는 애려니 걱정했는데 막상 대해보니 전혀 아니었죠. 수업시간 내내 꼼지락댈 나이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더군요. 특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즉 자아인식이 분명했죠. 아시아 역사, 종교에 관해 수업할 때면 그는 자신의 불교적 성장배경에 대해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그의 고운 품성과 처신을 지켜보자니 제가 상상했던 붓다와 무척 닮았더군요."

꼬마 붓다를 이내 알아보신 그 선생님 또한 붓다가 아니실지? 〈끝〉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왕초보

It will pass soon —곧 지나가요

A student went to his meditation master and grumbled, "Meditation is horrible! I feel so distracted, my legs ache and I'm constantly falling asleep. It's just horrible and…." "It will pass soon." the master cut in downright. A week later, the student came back and bragged rashly to him, "Yea, meditation is fantastic! I feel so aware, so peaceful, so alive! It's just fantastic and…!' "It will pass soon." the master snapped again with no glance at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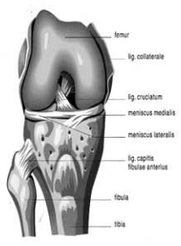
참선수련생이 선사한테 투덜댔다. "참선이란 게 어휴 끔찍하네요! 마음은 산란하죠, 다리는 아프죠, 내리 졸리기만 하죠, 아, 진짜 못 해먹겠…." 선사가 댕가당 그의 말꼬리를 잘랐다. "곧 지나가요." 그리곤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선사를 찾은 수련생이 오두방정을 떨었다. "캬, 참선이란 게 죽여주네요! 이게 마음이 확 트이고 느긋하고 생기가 팍팍 돌다니, 진짜 죽여주…." 선사는 그에게 눈길도 한번 안주고 또 싹둑 잘랐다. "곧 지나가요." 번안:성휴 스님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22-중-1901호 〈광고〉

당뇨병 한방(韓方)으로 치료한다.

당뇨병을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는 중정한의원 왕중권 원장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당뇨병 아시죠?
이것은 한의학에서 소갈증이라 한다. 주로 입이 마르며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소변을 수도 없이 자주 보는 병이다. 한의학에서 약 2300년 전에 당뇨병의 임상 특징인 삼다일소(三多一小)증상으로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소변보고 체중이 감소되는 증상이 기록되어있다. 또 소갈 병 환자는 오래되면 귀도 잘못 듣고 눈도 잘 안보이게 된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이 당뇨병의 합병증들이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의 원인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절제한 식생활 그리고 정신적 과로 유전등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치료 방법에 있어서 상소(上消), 중소(中消),하소(下消) 세 가지 유형을 나누면서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급성으로 오는 당뇨병은 한의학으로 치료가 잘 된다. 시간이 오래 경과된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치료보다 당뇨로 오는 합병증 치료에 비중을 두며 장기적으로 한의학 치료와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임상에서 이미 많은 효과를 보았다. 당뇨병은 하나의 만성질환 이므로 짧은 시일 내에 어떤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되고 음식에 있어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음식물을 섭취해야 된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며 정기적으로 혈당과 요당검사를 받아야 된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처방과 평형침법

중정한의원에서 처방한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을 복용하면서 평형침법 치료를 받고 혈당강하제 혹은 인슐린을 줄여 나간다. 공복시 혈당 100~200 환자도 일반적으로 4~8주의 치료로 효과를 확인할수 있다.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증상에 맞는 병행치료가 가능하다.

'왕 원장의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의 당뇨치료기전'

당뇨병은 치료하기 어려운 만성 질환이다. 그래서 죽지 않는 암이라고도 한다. 당뇨병 자체는 무서운 병이 아니지만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제일 심각한 것은 고지방 혈증으로 오는 합병증들이다. 중풍 뇌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맥경화, 폐쇄성 혈관 염, 심근경색, 간경화, 백내장 등 이러한 합병증 들이 원인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은 간장과 신장,비장 삼초기능의 균형과 인체 내의 기혈과 음양의 평형을 조절해주므로써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은 인슐린 의존 형과 인슐린 비의존형을 병행하여 치료한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복용을 하여도 기존 혈당 강하제나 인슐린 투여 중단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치료로 당뇨가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 복용으로 고지혈증도 치료되면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평형침법과 왕 원장의 차요법으로 병행하여 치료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 구연(具緣)

죄업의 본성이 본래없는 이치를 안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

若人犯重禁已 恐障禪定 雖不依諸經修諸行法 但生重懺愧 於三寶前 發露先罪 斷相續心 端身常坐 觀罪性空 念十方佛

여기에서는 대승이참의 이익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승사참법의 편에서 이참까지 갖추고 있었는데 가령 열 번째 참회법에서 죄의 성품이 본래 일어남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승무상이참법의 편에서 역시 사참법까지도 갖추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선정삼매에서 나왔을 때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예배하고 계율과 경전 등을 독송하는 것이 사참에 해당된다. 가령 사중금계를 범하고 나서 선정에 장애가 될까 염려하고 계율이 청정하지 못하여 삼매가 현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고 하자. 이럴 경우 모든 경전에 의지해서 참회법을 닦지 말고 단지 무겁게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어 불법승 삼보전에 자기가 지은 죄를 모두 드러내어 전에 지었던 무거운 죄업을 지극정성으로 참회하고, 아울러 죄업이 상속하는 마음까지 단절한 뒤에 몸과 마음을 거두어 단정한 몸으로 고요히 앉아서 죄의 성품을 은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죄업은 본성이 없어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다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을 염불하여 죄업을 참회하면서 그 생각이 항상 일정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모든 부처님의 큰 공덕을 염불하기도 하고 혹은 홀으로 아미타불 성호만을 염불만 하여도 된다.

若出禪時 卽須至心燒香禮拜 懺悔誦戒 及誦大乘經典 障道重罪 自當漸漸消滅 因此尸羅清淨 禪定開發

가령 고요한 선정에서 나왔을 땐 즉시 지극한 마음으로 향을 사르고 예배하고 참회해야만 하는데 <범망경>이나 보살계를 독송하기도 하고 <법화경><능엄경> 등 일체 대승경전을 독송하면서 도를 장애하는 지중한 죄업의 참뜻을 인식하고 참회를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참회한다면 죄업이 점진적으로 소멸하고 악업까지 단절하여 계율이 다시 이를 따라서 청정해지면 여기에 이르러서 선정과 지혜가 다시 계발된다. 이것도 죄업을 참회로 소멸하는 하나의 간단한 방법이다.

故妙勝定經云 若人犯重罪已 心生怖畏 欲求除滅 若除禪定 餘無能滅 是人應當在空閑處 攝心常坐及誦大乘經一切重罪悉皆消滅 諸禪三昧自然現前

여기에서는 경전에서 인용하고 증명하였다. <묘승정경(妙僧定經)>은 오로지 선정의 이치만을 설명하고 있다. '묘승'이라는 것은 선정이 가장 뛰어나고 미묘하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오묘하고 뛰어난 선정삼매라는 의미에서 '묘승정'이라고 말한다.

이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무거운 죄업을 범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두려움과 공포심을 내어 그 죄업을 소멸하고 싶어 할 경우 선정을 제외하면 그 죄업을 소멸할 다른 방도가 없다. 이 사람은 반드시 고요하고 한가한 처소에서 마음을 거두고 항상 단정히 앉아 좌선을 하거나 대승방등경전(大乘方等經典)을 수지 독송해야만 일체 무거운 죄업이 모두 소멸하고 모든 선정삼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범어로 '삼매(三昧)'는 정정(正定) 또는 정수(正受) 또는 조직정(調直定)이라고 번역한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이 종일토록 어지러운 망상으로 육진경계를 반연하는 것은 내 마음이 조화롭고 곧지 못하기 때문인데, 가령 선정을 수행한다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도로 귀결하여 조화롭고 곧은 상태로 되기 때문이다. 이를 비유하면 뱀이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다가도 곧은 대나무 통으로 들어가면 반듯하기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반듯해지는 이치와도 같다.

경전을 듣거나 외우거나 염불을 하면서 지관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모든 수행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는 일이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계율을 지니는 문제는 천태종에서 수행하는 스물다섯가지 방편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과목에 해당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는 것만이 지관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방편이라는 점이다.

第二衣食具足者 衣法有三種 一者如雪山大士 隨得一衣蔽形卽足 以不遊人間 堪忍力成故

위에서는 지계의 방편문제를 총론적으로 이야기했다. 지계의 문제가 끝나면 다시 의식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지관을 수습하려는 자라면 첫째 계율을 청정하게 지녀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의식이 만족스러워야 한다. 의복과 음식은 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양식이다. 가령 의식이 부족하다면 몸이 메마르고 불안정한데 어떻게 수행을 하여 도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몸이 안정돼야만 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또 "설법을 하기 이전에 음식이 우선이다"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지관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음식과 의복이 보조적인 방편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의식은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화려한 것을 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음식과 의복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우면 탐욕만 증가하여 그것이 반대로 도를 닦는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의복과 음식 이 두 가지 법을 수용하는 문제도 각자 상 · 중 · 하 삼품의 종류로 나뉜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사람의 근기가 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의복부터 삼품으로 분류해서 설명해보기로 한다.

첫째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행할 때 중생을 제도하려는 목적 때문에 육년간을 고행했으며 또 과거 전생에 보살도를 실천할 때 일찍이 보살의 신분으로 설산에 거처하셨다. 때문에 석가모니부처님을 '설산대사(雪山大士)'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 말하는 설산은 그 산세가 극도로 높아 차가운 기운이 매우 심하고 일년 내내 얼음과 눈이 녹아내리지 않고 만년설로 항상 하늘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그 산을 설산이라고 부른다.

설산대사께서 전생에 고행을 하실 때 의복 한 벌만을 가지고 몸의 형체를 가리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다고 한다. 한 벌의 의복은 사슴가죽으로 만든 옷을 말하기도 하며 혹은 풀을 엮어서 의복을 대신하기도 했는데 그 목적은 따뜻함을 구하지 않고 티끌세상을 멀리 여의고 인간세계에 다시는 유람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비록 매섭게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한 벌의 의복만 착복했으며 피부에 동상이 걸린다 해도 그것을 인내하고 옷을 더 입지 않았는데 이는 오로지 외부환경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수행력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옷을 입는다면 이를 두고 최상근기의 의복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만심②

3) 과만(過慢)
재능과 지혜가 자신과 동등한 상대방에 있어서는 자신이 상대방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보다 한 계단 허망하게 승진해 올라간 교만심을 '지나친 아만'이라고 합니다.

4) 만과만(慢過慢)
상대방이 나를 능가하는데도 반대로 자신이 상대방을 능가한다고 생각해 '과만'보다 더욱 뽐내는 것을 '과만'에서 더욱 아만을 부린다고 해서 '만과만'이라고 합니다.

5) 증상만(增上慢)
'증상만'은 아직 수행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도 이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즉 약간의 분야만을 알았을 경우에도 매우 많이 아는 것처럼 뽐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6) 비만(俾慢)
상대방이 많은 분야에서 나를 능가하는데도 자신이 그보다 약간 부족하다 하여 상대방의 수준을 자신에게 맞추어 격하시킨다거나, 상대방보다 자신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자신이 그보다 극도로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자신을 낮추는 듯하나 실제로는 마음 속 깊숙이 아만을 부리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7) 사만(邪慢)
자신이 상대방에게 그 어떠한 은혜로운 덕도 베풀지 않았으면서 자신이 그에게 커다란 덕을 베풀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악업의 행위를 실제인 양 믿고 뽐내는 마음을 '삿된 아만'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만심이 많은 사람들은 덕이 드높은 훌륭한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그의 올바른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모든 선근종자(善根種子)가 끊겨 그 어떤 악행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때문에 처음엔 거만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반성이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이 행해져 끝내는 다른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거만한 마음을 조복 받아야만 나날이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성 정화교육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이며 조선시대 승병들의 동해안 본부였던 함월산의 전통사찰 골굴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단련을 위해 제 32회 겨울 수련회를 개최 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를 통한 심성 정화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외국인 사범과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로서 주지스님이 직접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을 지도합니다.

※ 언 제 : 2007년 12월~2008년 2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3주, 한달 이상) 매주 일요일 입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1개월씩 4회 이상 수련 시 1단 승단 심사 자격 부여)
※ 대 상 : 초등, 중등 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련회비 : 1일 3만원 · 1주일 21만원 · 1한달 7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골굴사)
* 접수 및 문의: Tel (054) 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 수련내용:
1. 불교의 아나파나사티 명상 · 선요가 · 선기공 · 선무술 · 불교한문 · 전통문화(판소리,승마,다도,전통춤)
2.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수련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 (이명미 교수님. 무용학)
3. 주지스님의 초발심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인성교육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회화를 원어민이 지도합니다.
5. 화랑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느끼는 승마체험.
* 준비물 : 세면도구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개인 컵 장갑 · 모자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일 과 표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시	기상	10시	오전 선무도 수련	13시	독서와 사색	18시	저녁 공양
5:30	새벽 예불 · 좌선 및 행선	11시	108배 참회기도 · 자아를 향한 서원	14시	전통문화 강습(판소리,다도,승마 등)	19시	저녁 예불
7시	아침 공양(주 1회 발우공양)			15시	오후 선무도 수련 · 등산	19:30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8:30	불교 강의 · 영어회화	12시	점심 공양	16:30	울력(도량 청소 및 정리)	21시	점호 및 취침

◈매주 1회 성지순례 : 장항사지 · 감은사지 · 문무대왕릉 등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입종 및 행자모집

한국근본불교 조계종에서 승가의 꿈을 키우고 펼칠 분을 모십니다.

○ 입종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사진3매)
▶ 주민등록증 등본 1통 ▶ 사찰 전경

○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50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말사에 수행 할 수 있음.

문의처 총무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4-7
전 화 : (031)217-2170, 2633 / 017-871-8647(기획실장)
홈페이지 www.keunbon.org

공 고

제 07-01호 2007. 11. 30

제목 : 직인 및 계인 변경 공고

아래와 같이 직인 및 계인 변경 공고합니다.

현 사용직인은 2007년 11월30일자로 사용정지 합니다.
이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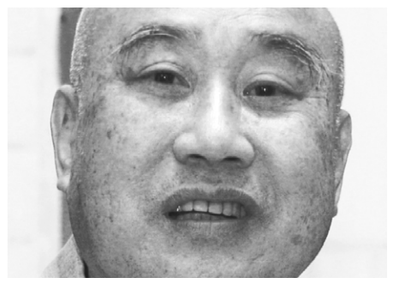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직 인	계 인
규격 : 30mm×30mm	규격 : 34mm×14mm

선지식을 찾아서

신라 때 진표(眞表) 대사가 속리산에 이르자, 밭 갈던 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을 본 농부들은 감동하여 속세를 버리고 진표 대사를 따라 입산수도하였는데 여기에서 '속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번잡해질 때면 한번쯤 떠올려 보는 것이 속리산이기도 하다. 밤새 내린 눈으로 속리산 전체가 흰빛이었다. 하얀 눈밭에 발자국을 찍으면서 총지선원을 찾았다.





"우주도 부처님도 마음이 만드는 것"



천룡 스님

천룡 스님의 거처는 온통 책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스님은 어떤 책을 보더라도 부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보기에 어떤 책을 읽어도 부처님 마음을 읽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 마음의 바탕은 본래 공한 것인데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이 절대인양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스님은 안타까워하였다. 날개가 크다고 하여 힘 있는 새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몸체가 상응해야 한다. 몸체가 빈약하면 바람에 날려 나뭇가지나 바위에 부딪혀 죽을 수도 있다. 돈, 권력, 명예는 삶의 날개는 되겠지만 그것이 몸통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을 직시하고 깨닫는 자만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을 압축한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팔정도요,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에 보면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온이란 몸과 마음인데 이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한 것이야.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통을 초월할 수가 있지. <반야심경>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야. 부처님도 하느님도 마음이 만들고 우주도 마음이 만드는 것. 그래서 마음의 눈만 뜨면 창조주야."

반야심경 핵심은 몸과 마음이 '空' 함을 깨닫는 것

"너와 나 분별하는 세속심 버리고 쉼 없이 정진해야"

스님은 3개월 동안 만행을 한 적이 있다. 만행을 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반드시 걸식을 할 것이고, 노상에서 잘 것이며,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닐 것.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면서 만행을 하였다. 배가 고파 기진맥진하면 누군가가 나타나 먹을 것을 주고 해서 스님은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다. 인드라망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또 스님은 기도수행과 참선수행을 다 해보았고 그 신비를 체험하였다. 한 때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맹렬히 하였다.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해가 뜨면 산에서 내려왔다. 그 때 몸에 중량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으며, 정말 산을 날아서 다녔을 정도로 몸이 가벼웠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길을 다니니까 아이들이 미친 사람인줄 알고 돌을 던지고 놀리기도 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아픈 줄도 몰랐다.

"맹렬하게 기도한 지 1주일쯤 되니까 꿈에 허연 노인이 나타나 뭐라고 현몽을 해 주더군. 그런데 참선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구하는 마음 없이 염불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것이지만, 참선과 기도의 심성 작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행을 하면 세상이 여실하게 보이지. 나라고 하는 자아가 몰록 비어서 무아의 안목으로 보면 나무는 나무, 산은 산, 물은 물로 보이게 됩니다. 팔정도에서 정견(正見)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먼저 자기 마음의 눈을 떠야 해요. 마음의 눈을 뜨면 신비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신비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비란 우주하고 대화하는 것이야. 내 자체가 우주가 되어 버리지, 우주와 내가 하나 되면 개미하고도 대화할 수 있지. 우주는 그대로 광명이야."

천룡 스님은 서울 나들이를 한 지가 수십 년이 넘었다고 한다. 종교의 역할 중 하나인 사회에 대한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불교계가 부끄러워서 서울 나들이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사회는 온통 '네 탓이요'하는 소리로 넘쳐나는데, 방 한 칸을 우주삼아 검박하게 생활하시는 천룡 스님은 스스로가 '내 탓이요'라고 참회하신다. 천룡 스님께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말없이 묵묵히 세상을 밝히시는 천룡 스님이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든든하기만 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는 천룡 스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물었다. <금강경>은 공을 논한 경인데 왜 보시에 대한 구절이 많은지 질문하였다.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인데, 대승(大乘)이란 뜻을 큰 수레에 많은 사람을 태워 구제한다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글자에 얽매인 해석이야. 대승이란 마하연 즉 공사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나를 비워야 우주가 들어오고 내가 우주가 될 수 있잖아요. 무아가 되면 인연따라서 창조주가 될 수 있지. 인연 따라서 모든 것에 응할 수 있는 본자리가 바로 무아의 자리입니다. 보시를 할 때는 삼륜청정이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분별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기적 차원에서 보면 남이 없어요. 남에게 보시할 때 주는 나가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 없지."

천룡 스님은 부연설명으로 동산 스님의 일화 한 토막을 들려주셨다. 어떤 제자가 동산 스님께 물었다.

"여름에 더위가 오면 어디로 피해야 하며, 추운 겨울이 오면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합니까?"

그러자 동산 스님은 "추위가 오면 추위를 죽이고, 더위가 오면 더위를 죽여라"고 답하였다.

천룡 스님은 이 선문답에 대해 "자아를 죽이고 추위와 하나가 되고, 더위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지. 보시할 때도 마땅히 자아를 죽이고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아야 해요. 나를 비워야 보시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천룡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자니 시간이 살같이 흘러가 버렸다. 불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단다.

"분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속심이 별 것 아니야. 너 나, 높다 낮다, 예쁘다 추하다, 이것 저것 등 분별심으로 보고 듣는 것이 세속심이지. 불교는 천당도 지금 여기서 보고 지옥도 여기서 보고 어록도 여기에서 보아야 해요. 작용하는 것 모두가 불교이며, 불교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 세속에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고 쉼 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께 매이는 것은 형식 불교에 불과해. 그렇게 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없지."

천룡 스님은 날마다 뒷산을 오른다. 산은 어제 올랐을 때는 어제의 신비가 있었고, 오늘 올랐을 때는 오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가도 새롭기만 하단다. 우리들도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지만 날마다 새롭게 맞이해야 한다. 오늘은 어제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우리 곁에 온 신선한 시간임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새롭고도 경이로울 것 같다.

겨울의 해는 짧아 그새 법주사 마당에 산그늘이 내려앉았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계곡 물소리가 경쾌하기만 하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천룡 스님 (법주사 총지선원 한주)

천룡 스님은 196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화사, 금당, 비슬산, 도성암에서 선(禪)을 경험하였다. 향곡, 경봉, 서옹, 월산 선사를 도와서 대중을 지도하였다. 그 후 30여 년 동안 은거하였으며, 법주사에서 오랜 세월의 은거생활을 마감하고 걸망을 풀었다. 지금은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한주로 있으며, 참선과 독서와 글쓰기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선시집 <이것이 마음이다> <간화선의 고향> <나는 누구인가> 등이 있다.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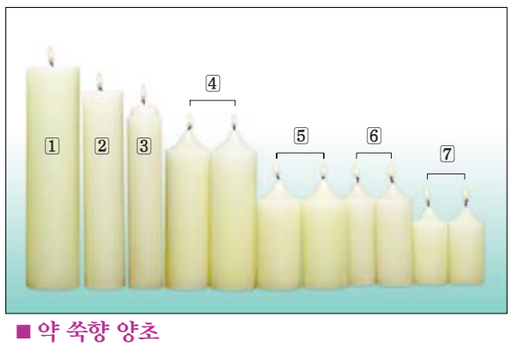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데스크 초대석

초기불전연구원장 대림 스님

"범어 원전 우리말 번역 시급한 과제"

'앙굿따라 니까야' 전 6권 2년만에 번역 완료
"부처님 마주하고 가르침 듣는 듯한 기쁨 느껴"

우리가 그동안 익혀 온 불교경전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의 불교경전이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도어 다시 말해 범어로 법을 설하셨다. 지금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의 육성을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기록한 범어 경전의 번역과 읽기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을 이끄는 중심에 초기불전연구원이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앙굿따라 니까야> 전 6권을 번역해 낸 초기불전연구원장 대림 스님을 만났다.



–<앙굿따라 니까야>는 어떤 경전인가요?

<앙굿따라 니까야>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가르침들을 숫자별로 모은 것입니다. 즉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주제의 숫자가 하나인 것부터 열하나인 것까지 숫자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모두 열한 개의 보관함을 만든 뒤 그 함에다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숫자별로 나누어 담은 것이 바로 <앙굿따라 니까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증지부(增支部)라고 직역하였는데 앙가(anga, 支)+웃따라(uttara, 增) 니까야(nikaya, 部)로 이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증득하신 뒤에 45년간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뒤 일차결집에서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단 다섯 부분(니까야, 部)으로 나누어서 결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디가 니까야(長部)>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이가 긴 것을 모은 것이고, <맛지마 니까야(中部)>는 그 길이가 중간정도인 것을 모은 것이며, <상윳따 니까야(相應部)>는 주제가 분명한 가르침들을 주제별로 모은 것이고, <앙굿따라 니까야(增支部)>는 숫자별로 모은 것이며, <쿳다까 니까야(小部)>는 이러한 분류 기준에 들지 않는 나머지 경들을 모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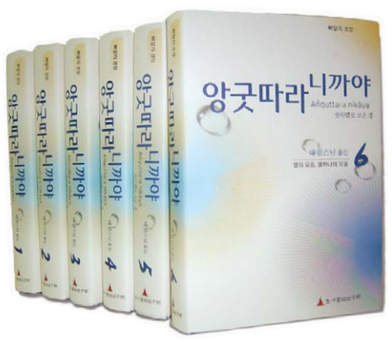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해제와 주해를 다셨는데, 번역 방향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초기경은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듣고 받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직계 제자들로부터 비롯된 전통적인 안목을 빌어야 정확하고 심도 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직계 제자들을 비롯한 상좌부의 전통적 견해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주석서 문헌(Atthakatha)의 설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주해에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유념한 번역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3000개가 넘는 주해를 달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불전을 이해하는 부동의 준거가 되는 <청정도론>과 <아비담맛타 상가하(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이미 번역·출간하였으므로 주해에서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해는 <앙굿따라 니까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번역 동기와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 인도를 갈 때의 목적은 진정한 고행을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행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다 초기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빠알리 삼장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불전을 한글로 옮기는 것을 저의 고행으로 삼고 이를 통해서 부처님의 크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리라고 역경불사의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기경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정도론>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하여 박사과정에서는 청정도론 복주서인 <마하띠까>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04년 <청정도론>을 완역·출간한 뒤에 <앙굿따라 니까야>를 번역하기 시작하여 2006년 8월 처음으로 제1권과 제2권을 출간했고, 2007년 4월 제3권과 제4권을 출간했으며, 이제 다시 제5권과 제6권을 마무리 지어 <앙굿따라 니까야>를 완역·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번역하는 내내 부처님의 뜻과 다르지 않게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든 나날의 연속이긴 했지만 부처님을 마주 대하여 가르침을 듣는 듯한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번역하면서 혹시 저의 부족한 번역 때문에 부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독자 여러분들께서 매서운 질정을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언제 설립됐고 그간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불교 2600년의 전개에도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거부하고선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듯이, 뿌리를 모르는 불교는 역사를 아는 이 시대의 외면을 받게 되겠지요. 빠알리 삼장은 불교만대의 뿌리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이러한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발원하여 2002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지금 열과 성을 다해 빠알리 삼장의 완역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염원은 부처님 원음이 우리의 말과 글로 이 땅의 자손만대에 전승되어, 한국 불교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설립되던 해인 2002년 초기불교를 이해하는 나침반이 되는 <아비담맛타 상가하(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상·하 두 권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쇄가 거의 매진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을 2004년 전3권으로 번역·출간하였고 2006년 초 <디가 니까야>를 전3권으로 번역해 내었는데, 이 둘도 모두 재판을 찍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 외 초기불교 수행법을 소개하는 단행본 소책자들을 몇 권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년에 <상윳따 니까야>를, 후년에 <맛지마 니까야>를 완역·출간하기 위해서 번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빠알리 삼장 역경불사 3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9년까지 빠알리 삼장을 모두 완역하고 중요한 주석서들도 번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의 존재 이유는 초기불전을 완역하는 것입니다.

–범어 원전의 이해와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부처님은 인도분이셨고 그래서 인도어 즉 범어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범어와는 문장이나 문법구조가 전혀 이질적인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의미 전달에 정확성을 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경전이 본격적으로 번역되던 천사오백 년 전의 한자와 지금의 한자, 그것도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범어 원전을 읽고 이것을 우리의 언어 문자로 정확하게 직역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론이 시대정신으로 되어 있는 이 시대의 한국 불교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 불교가 이루지 못했던 자주 불교를 마침내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알리 삼장을 번역하는 외에 다른 일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빠알리 삼장을 완역하고 나서는 한역 4아함을 빠알리 4부 니까야와 대조해가면서 정확하게 옮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만 불광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한 서래대학(Uinversity of West)에서 요즘 범어불전들 즉 대소승을 망라한 북방불교의 산스끄리뜨 원전들을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공개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 지도법사인 각묵 스님이 이를 다운받아서 자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 자료가 정리되면 범어 불전들을 한역대장경과도 비교할 수 있고, 빠알리 삼장과도 비교할 수 있어서 이들을 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한글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단체에서라도 이러한 범어 불전들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면 더없이 기쁜 일이 되겠지만, 만약 하지 않는다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장차 한글 번역을 감당해볼 생각입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2007년
금강승 불무도 동계 템플스테이

- 모집인원 : 30명 소수정원제
- 대상 및 입소자격 : 초등학생, 중학생
  - 각 사찰 주지스님 추천자 우선접수 입소
  - 각 학교장 및 담임선생님 추천자 우선접수 입소
  - 일반 접수일 경우 1차면담 후 입소 통보
-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14교구 범어사 말사 양산 천성산 금강사 (세계 금강승 불무도 총본원)
- 일 정 : 2008년 1월 4일 부터 1월 24일 까지(21일간)
- 참가비 : 42만원
- 준 비 물 : 개인세면도구, 편안한 운동복, 운동화, 속옷, 양말, 장갑(벙어리장갑 안됨), 필기도구 – 휴대폰, MP3, 현금, 간식 등은 입소 시 맡아 보관합니다.
- 집결장소 :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지하철 노포역) 內 롯데리아 바깥 벤치 ☞ 사찰차량 이용

– 자세한 프로그램 및 내용은 템플스테이 메뉴 참조

☞ 접수문의 : 사찰 055)386-2262, 017-569-8607 (단체수련 및 장기수련)

▮ 홈페이지 주소 : www.bulmudo.org 또는 한글주소 [www.불무도.kr]
▮ 국민은행 939701-01-176087 / 예금주 : 홍미숙 (세계금강승불무도)

금강승불무도
金剛乘佛武道 | www.bulmudo.org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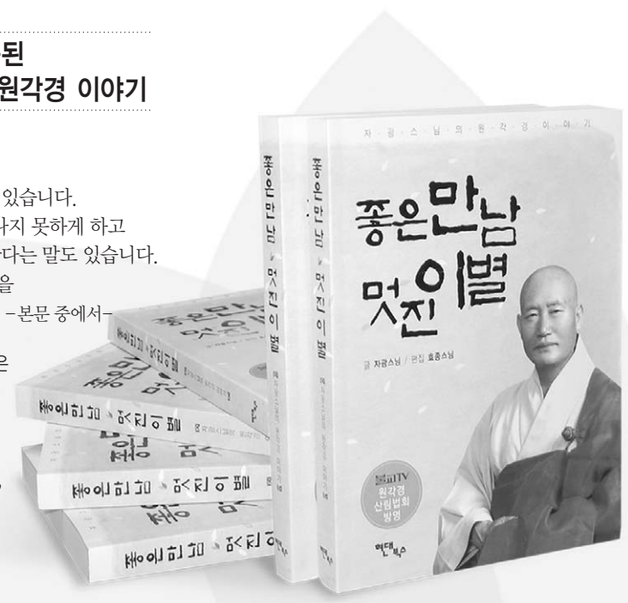
글 자광스님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희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달산 김룡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현대불교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맑은 물소리로 마음 말끔히 씻고…







용문사 아랫마을인 용소마을(위)과 용문사 부도밭.

겨울비가 스산하게 내리던 날 남해로 떠났다. 남해에는 잘 알려진 보리암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절집이 있다. 호랑이가 누운 산 지형에 자리 잡은 용문사이다. 호구산의 계곡물은 스님들 불경소리를 암기하고 사하촌 용소마을로 흘러든다. 용소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한 물을 받아먹었음인지 향학열이 남다르다. 바닷가 마을치고 석학들이 많이 배출된 마을이란다.

용문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르는 길은 물소리, 바람소리, 초겨울 쑥부쟁이 냄새로 가득하여 속세의 번뇌를 내려놓기에 좋다.

용문사는 아름드리 소나무들과 측백나무들이 감싸고 있어서 더 고요하게 느껴지는 절집이다. 고요한 절집에 바닷바람이 요란하게 분다. 속세의 때를 묻히고 온 내가 스며들었기 때문일까. 나뭇가지가 바람에 울어댄다. 새벽을 깨우는 스님의 목탁소리를 듣고 어스름한 절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보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하늘은 별천지다. 주지 성전 스님의 책 <행복한 미소> 중 '산사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글귀가 생각났다.

"그 집 속에 들면 나는 이 지상의 사람이 아니라 별나라 사람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곳에는 번뇌도 없고, 다툼도 없고, 성냄도 없이 오직 고요와 평화, 사랑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 한 번 바라보고 별처럼 자리한 산사의 불빛 한 번 바라보며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걸으며 다 못 본 별은 산사의 툇마루에 앉아 헤아려볼 생각입니다."

남해 바다를 바라보며 불국정토를 꿈꾸는 용문사는 우리나라 3대 지장도량 가운데 하나다. 802년 신라 애장왕 때 창건되어 임진왜란에는 스님들이 승병으로 참여하여 왜군과 맞서 싸우기도 했다. 전란으로 가람이 불에 타 없어졌지만 1661년 현종 2년에 학진 스님이 인근 보광사 건물을 옮겨와 중창하였다고 전해진다. 보광사는 원효대사가 세운 사찰이었으나 이곳으로 옮길 때에는 폐사 직전의 상태였다고 한다.

용문사라는 이름은 절집 아랫마을에 용이 승천했다는 용연이 있었는데, 그 위에 터를 잡았다고 하여 얻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호국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숙종 때 나라를 지키는 절이라는 칭호를 얻어 수국사로 불리기도 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절집이라 남해에서 가장 많은 유물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용문사 석불은 높이 약 81㎝로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38호로 지정되었고, 촌은집책판은 조선 인조 때 학자인 유희경의 시집 <촌은>을 간행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72호로 지정되어있다. 임진왜란 이후 절을 중창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발굴하여 보존하고 있다. 그밖에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사용하던 대포 삼혈포와 숙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연옥등, 촛대, 번, 수국사 금패 등이 있었으나 연옥등과 촛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훔쳐갔다고 한다.

용문사는 민초들과 함께 살고자 했던 사찰이었던 듯하다. 사천왕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발밑에서 신음을 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양반과 관리이다.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민초들의 마음을 읽어 주는 사찰이라서 일까. 절집이 융성할 때 사용하던 구시통이 통나무배만 하다.

사하촌 용소리에 들러 강유순 할머니를 만났다.

"옛날에는 살기 어려우니까 마음으로 믿었지요. 부처님 전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기면 다니고 그랬지요. 촌사람들 손이 가벼워서 절집이 어떻게 살림을 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성전 스님이 잘 이끌어 가십디다."

논농사 밭농사를 지어 자식들 공부시킨 것은 다 부처님 덕이라며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이웃에 살고 있는 박순여씨가 인생 비탈길을 오르던 때 부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댁시절 남편은 배타고 바다로 나가고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어려우니까 절집을 많이 의지했지요. 큰 시숙님이 장님이라 맏이 노릇을 대신하며 남편도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지요. 지금도 절집 아랫마을에 산 인연이 나를 지킬 수 있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돕는 부처님이 곳곳에 있었지요. 돈이 없어서 아들 학비를 못 대주고 있을 때 우리 가정에 희망을 준 스님을 만났습니다. 중현 스님이 큰아들 학비를 2년 동안 도와주었어요. 그 스님은 용소리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지요.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용소마을은 187호 420명이 사는 마을이다. 일 년 열두 달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단다. 겨울에는 시금치 농사를 짓고, 봄에는 마늘종 농사를 짓고, 여름에는 마늘 추수, 가을에는 벼를 추수한다. 일거리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는단다. 용소리는 인심이 넉넉하였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마을사람들을 불러 아침을 나누어 먹는 풍습이 지금도 있다. 강영욱 이장님은 마을에 인정이 넘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동네 인심이 후한 것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용문사라는 넉넉한 절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문사는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였지요. 가을철이 되면 사찰림에서 낙엽을 긁어 땔감을 만들 수 있도록 3일 동안 산문을 개방했지요. 그 시절 그것은 사찰의 큰 보시였습니다."

그는 마을지킴이 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마을은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 앞 솔밭을 공원화하고 용문사에서 납산까지 등산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철따라 피는 꽃을 심어 등산객들을 유치하여 마을과 절집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용문사의 가장 아름다운 풍광은 산신각 뒤로 올라 산자락에서 내려다보는 바다이다. 제 몸의 뿌리로 키워내는 바다빛은 늘 다르다. 호구산 자락에 기대어 오순도순 어깨를 맞대고 무진세계에 빠져 있는 가람들도 그림 같은 앵강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덩어리로 살아가는 바다처럼 함께 살아가는 정토세계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용문사 길은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남해=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37 호구산 용문사

호랑이가 누운 산 지형에 자리잡은 터 남해에서 가장 많은 유물 가지고 있어





양반과 관리를 밟고 있는 사천왕상(위)과 대중들의 밥을 퍼 두는 함지통인 구유(구시통).

佛心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 ㉥ 출시!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여놓은 발로 끙끙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폭륜상(千幅輪相)과 만트라 ㉥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특별할인가격 79,000원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만트라 ㉥는 옴마니 반메훔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 ㉥옴마니 반메훔 성불화는!

- 발아치 보강 기능
- 체중 분산기능
- 충격 흡수기능
-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가볍고 푹신한 착용감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업계최초! 일우베스트

웰빙 근적외선 히터 후불제 판매!! 지로할부

망설이지 마세요
뛰어난 품질, 완벽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는 후불제 판매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근적외선 히터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부담없이 4, 5회 나눠서 결제

선택하세요
국내산 근적외선 램프장착, 2중 안전장치, 난방비용 절감에 건강까지 챙기세요.

난방비용 90%절감,
한달전기료 35,046원- 하루 10시간기준
후끈 후끈 초강력 난방!



6無
- 눈부심
- 무독
- 무취
- 무연
- 무소음
- 난방사각지대

【스탠드형】
- 용량(W) : 220V/60Hz 1,800w
- 회전기능 : 좌우 90도 회전
- 상하 각도 조절 기능
- 타이머 기능 : 약 7시간 30분시간
- 높낮이 조절기능 : 20㎝
- 최첨단 안전장치
- 리모콘 조정
- 전도 안전장치 채용

▲스탠드형 : 248,000원
지로할부가 : 56,000원×5회

【벽걸이형】
- 용량(W) : 220V/60Hz1,800w
- 회전기능 : 좌우 90도 회전
- 상하 각도 조절 기능
- 타이머 기능 : 7시간 30분
- 3단조절 기능 : 꺼짐/강/약
- 리모콘 조정 방식

▲벽걸이형 : 198,000원
지로할부가 : 46,000원×5회

【좌석용】
- 용량(W) : 220V/60Hz 1,000w
- 무 게 : 약3.0kg
- 기계식 3단조절 기능 : 꺼짐/강/약
- 회전기능 : 좌우 90도 회전
- 상하 각도 조절 기능
- 타이머 기능 : 최대 3시간
- 높낮이 조절기능 : 16㎝

▲좌석형 : 178,000원
지로할부가 : 50,000원×4회

치솟는 기름값!! 난방비 걱정 끝! 난방비를 확~ 줄여줍니다.

- 최고 90%이상 비용절감
- 난방비의 손실이 없다. (0.1초 순간 가열방식)
- 건강 웰빙 난방 (무연, 무취, 무소음, 무독)
- 국내제작 2년간 품질보장

최고 90%이상 난방비 절감 (유류대비 : 1일 10시간기준×30일 약 10~15평형기준)

구분	월사용량	단위가격	월난방비	비교지수
등유	480ℓ	약 1,150원	약 552,000원	100%
가스	220㎏	약 654원(환절기)	약 143,830원	75%
근적외선히터	540㎾(일반철전기)	약 64.9원	약 35,046원	약10%이하

▶지로할부

스텐드	248,000원 ➡ 56,000원 ×5회	280,000원
벽걸이	198,000원 ➡ 46,000원 ×5회	230,000원
가정용	178,000원 ➡ 50,000원 ×4회	200,000원

※할부는 신용에 문제가 없으신 분에게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런곳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 사찰 • 지하사업장 • 애견센타 • 관공서 • 자동차정비소 • 학원 • 병 · 의원 • 체육관 • 골프연습장 • 가정 • 요식업체 • 산후조리원 • 유치원 • 사무실 • 지하상가 • 피부관리실 • 노래방 • 음식점 • 포장마차 • 이 · 미용실 • PC방 • 옷가게 • 연구소 실험실 • 교회 • 공장 • 오락실

제조원 일우베스트 ILWOO BEST Co., Ltd.
주문 상담 080-307-3070
농 협 935-12-355423 박 정 미

옻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즐겁고 유익한 법회 우리가 책임져요”

2007 어린이포교지도자전진대회를 다녀와서

조계종 포교원이 12월 1~2일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2007 어린이포교지도자전진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묵 스님, 포교부장 동범 스님, 신도국장 재안 스님을 비롯해 전국 어린이청소년 법회 지도법사스님들과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은 어떤 법회를 진행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의 고민, 한 어린이법회 지도자의 말을 통해 들어보자.











어린이포교지도자전진대회를 통해 법회 지도자들은 서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돈우는 시간을 보냈다. 이 날 행사에는 레크리에이션, 사례발표와 함께 지도자의 마음을 다지는 발원문 낭독 시간도 있었다.

“우리가 서 있는 길 위에서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같이 세운 서원입니다. 우리의 화두기도 하지요.

어린이포교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번 ‘어린이포교지도자전진대회’를 통해 만났습니다. 우리 의지를 다지고 어린이포교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또래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법회 선생님입니다. 아직 법회를 맡은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어린이법회 지도자가 어떤 분들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사찰 어린이법회에 나가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에요. 평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 이런 글을 쓰게 됐답니다.

사실 우리는 참 고민이 많아요. 어린이법회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몇 달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더 좋은 법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상 반성하지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찰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살피는 것도 저희들의 일입니다.

역시 사람은 혼자 보다 여럿이 낫더군요. 전진대회에 가니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게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서 푸념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많이 풀잖아요. 스님들도 같은 마음이셨어요. 서울진관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보운 스님께서 “우리 만나길 너무 잘했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행사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레크리에이션 시간이죠. ‘고음불가’라는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이수근씨가 초청돼, 이 시간엔 참 많이 웃었어요. 우리 스스로 조별 발표도 준비했고요. 역시, 선생님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노래, 춤 할 것 없이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참 많네요. 또 변승윤, 신명선씨 덕분에 스킨십을 이용한 법회 레크리에이션 방법도 많이 배웠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후 펼쳐졌던 우리들의 토론도 즐거웠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토론을 하면서 ‘역시 어린이들에게 가까이 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찰에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대요. 요즘 어린이청소년들이 자기 마음을 터 놓을 곳이 없다 들어서 저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직접 심리상담을 통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찾질 못했네요.

저는 또 둘째 날 있었던 사례발표 시간에도 많이 배웠어요. 밀양 용궁사는 어린이법회를 시작하기 전, ‘연꽃문화제’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찰의 존재를 알렸답니다. 이후 요가, 영어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어린이법회 활동을 하고요. 사찰 주변 환경을 이용한 생태학습도 어린이법회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조별 토의에서도 사찰을 찾는 어린이들과 함께 텃밭을 꾸미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미 그렇게 하는 사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한마음선원의 경우 전폭적인 어린이법회 지지와 합창·다도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눈에 띄더군요. 어린이법회 회원이 200명이어서 간식거리 준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것은 ‘어머니회’가 책임지신다네요. 또 매주 ‘자기 노트’를 만들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지도 선생님들과 면담을 통해 털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어요. 용궁사와 한마음선원의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저희 절은 완전 시골에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오가기에는 좀 불편해요. 버스 정류장과도 멀거든요. 그래서 법회 버스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 중 한 명이라도 사찰에 더 올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중에는 어린이법회에 가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를 몰라 못가는 사람도 있겠죠? 포교원에서 여러분들과 우리를 위해 사이트를 하나 개설했다고 합니다. ‘키즈붓다(www.kidsbuddha.net)’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어린이법회 사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플래시 게임, 애니메이션 등도 수시로 올려놓는다고 해요. ‘차수’, ‘사홍서원’ 같은 불교 용어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우리는 그 사이트를 통해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손쉽게 알고 공유할 수 있겠지요.

어린이법회는 이제 틀이 잡혀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커서 청소년이 되면 사찰을 찾지 않는 것이 저의 새로운 고민입니다. 사찰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공부를 해야 하고, 학원에도 열심히 다녀야 하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 어른 스님들께서는 그러시더군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볼게요.

힘든 일이 많아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법회 선생님이 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는

12월 13~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2008 대학입학정보 박람회’가 개최된다.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선생님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국57개 대학 입시 요강 및 전형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다. 박람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02)6712-0142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콘서트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이 12월 27~28일 펼쳐진다.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은 이 공연은 유명 동화를 새롭게 각색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외국어 가사를 쉽게 만들어 부른다. 만5세부터 입장 가능. 입장권은 1만5000원부터. 1577-7766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레인보우 가족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12월 12일 오후 2~6시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자원봉사자 축제, 가족장기자랑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어린이와 부모님이 같이 즐길 수 있다. (031)532-2062~6

양평군 강상체육공원에서는

12월 23일 하루 동안 민속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날리기 대회’를 실시한다. 돼지해를 보내며 썰매, 제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와 각양각색의 창작 연이 하늘에서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행사다. 가족의 소원을 담아 날리는 가오리줄연의 대향연도 즐길거리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rtkite.co.kr)에서 확인.

평택 팽성도서관에서는

인형극 ‘바람이 준 선물’을 무료 공연한다. 12월 15일 오후 2·4시 2회 공연으로 진행된다. 세계명작동화를 각색한 이 공연은 가난한 소년 마틴이 바람이 준 마법 선물을 가지게 되는 과정과 그 후의 모험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표는 1인 2매 한정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031)659-4942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 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 침 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구송파사거리)
가락시장 가락APT 엄마손 백화점 성남→가락시장사거리 구송파사거리 →잠실 송파역 1번출구 일신여상 잠실여고 전시장 백제고분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올림픽선수촌 APT 둔촌사거리 둔촌주공 화훼단지 동북고교 거여동→ 서하남입구사거리 →보훈병원 양반촌 전시장 타이어 서하남 I.C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겨울밤은 참 길지요. 문득 한 해를 넘기기 전에 소원했던 누군가에게 편지라도 쓰는 밤이 되면 어떨까요? 이메일이나 전화보다 왠지 손수 쓴 편지를 받고 싶어지는 겨울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마음이라도 서로 따스하게 나누는 정의 징검다리인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름다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화합하는 마음이 저절로 삶의 온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고비'에 꽂힌 오래된 편지를 꺼내서 읽다보니 '건밤'을 지내고 있네요. 자다 말고 일어나 '애먼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으니 옛정이 더욱 솟아나네요.

건밤 : 잠을 자지 않고 뜬눈으로 새우는 밤.(월궁 선녀를 생각하고 달 아래서 건밤을 새운 모양이오.) <홍명희, 임꺽정>

고비 : 편지 따위를 꽂아 두는 물건. 종이 따위로 주머니나 상자처럼 만들거나 종이를 '+'나 'x'자 모양으로 오려서 벽에 붙여 만든다.

애먼 소리 : 억울하게 듣는 말이나 꾸중.(괜히 죽은 송장한테 주사를 놨다가 정말 죽었다고 애먼 소리를 듣게요?)<채만식, 탁류>

막돌 : 아무렇게나 생겨 쓸모 없는 돌.

공글리다 : 땅바닥 따위를 단단하게 다지다. 일을 확실하게 매듭짓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70년대 도시 빈민 적나라하게 폭로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조세희 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970년대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때, 서울의 어느 재개발 지역(낙원구 행복동)을 배경으로 하는 조세희의 대표작.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는 도시 빈민 삶 속에서의 고통과 좌절을 사회 고발적, 은유적, 우화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1976년 <문학과 지성>에 발표된 이 작품은 같은 제목의 연작 12편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중편 소설로 당시 커다란 문학적 반향을 일으키며 1970년대 한국 소설이 거둔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고 있지요.

수도 파이프 수리공으로 생계를 잇는 '난장이' 아버지와 인쇄소 제본 공장에 나가는 어머니, 우등생이었으나 가정 형편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인쇄소에 나가는 영수와 영호, 그리고 막내 영희. 이렇게 다섯 식구로 이루어진 '난장이' 가족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의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실낱같은 기대감 속에서 천국을 꿈꾸지만 통장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 계고장을 받는다. 철거는 간단하게 끝나 버리고 그들의 손에 아파트 '딱지'만 주어진다. 그러나 입주권이 있어도 입주비가 없는 행복동 주민들은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을 더 받고 거간꾼들에게 입주권을 팔아서 변두리나 시외로 세를 얻어 나간다. 하지만 영수네는 명희네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입주권 값이 조금이라도 더 오를 때까지 버티고 있는 중이다.

투기업자들의 농간으로 입주권 값이 뛰어오르고, 결국 영수네도 승용차를 타고 온 사나이에게 입주권을 판다. 그러나 명희 어머니에게 전세를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그 날 '난장이' 아버지와 막내 영희는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다. 영수와 영호는 아버지를 수소문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세 식구만 이사를 떠난다.

한편, 영희는 자기네 입주권을 사간 부동산 투기업자인 젊은이를 따라간다. 그러나 투기업자에게 마취 당하여 순결을 빼앗긴 영희는 투기업자가 자기에게 했듯이 그의 얼굴에 마취를 하고 가방

가난한 삶의 고통과 좌절 나타내
1970년대 작품 중 큰 반향 일으켜

속에 있는 입주권과 돈을 가지고 행복동 동사무소로 향한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떠난 뒤다. 영희는 이웃에 살던 신애 아주머니에게서 아버지는 벽돌 공장 굴뚝에서 자살했다는 것과 가족들은 성남으로 이사갔다는 말을 듣는다. 꿈속에서 가족들을 만난 영희는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 버려"라고 소리친다.

전혀 낙원이 아니고 행복도 없는 '낙원구 행복동'의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장이' 일가의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소시민들의 아픔을 그려 자본주의의 모순과, 재개발 사업의 실상, 그리고 권력기관의 횡포 등을 파헤침으로써 1970년대 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도시 빈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지요. '난장이'와 '달나라' '팬지꽃' 등의 상징적 장치, 사회적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데 환상과 현실의 교묘한 배합, 상징적 구조물의 중첩, 시점의 잦은 이동, 연작 형태의 다양한 시각 확보 등 문학적 기법의 새로움을 찾아보며 읽어보세요. 작가의 실험 정신도 엿볼 수 있어요. 사회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서 있어 항상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은 '난장이'로 상징화되어 있으며, '난장이'는 신체적 왜소함을 넘어서서 사회적 신분의 왜소화를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못 가진 자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죠. '난장이'가 꿈꾸는 행복한 사회 역시 서로간의 사랑과 도덕성이 지켜지는 사회죠.

이 작품에서 지섭이라는 청년은 '난장이' 아버지의 행동을 결정지어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는 아버지에게 이 땅은 죽은 땅이라며, 달나라로 가야한다고 말하죠. 이 말에 아버지는 괴로울 때마다 달나라로 작은 쇠공을 쏘아 올리죠. 하지만 그 공이 지구로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난장이'는 가능한 한 달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굴뚝 높은 곳에 올라 날다가 떨어져 죽는데 '난장이'의 비상은 곧 추락으로, 세상은 비상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비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달나라는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인 것이죠.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완벽해지고 싶어요.

제 친구 중에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예쁘고, 도무지 못하는게 뭔지 모를 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 저도 공부도 더 잘하고 싶고 친구들하고도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저는 왜 그 애처럼 완벽해질 수 없는거죠? (ID:어떡해~)

마음도 쉬어야 넓고 부드러워집니다.

아주 잘나보이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대게 주눅들게 마련입니다. 글쓴 친구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제각각 쓸모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얼른 보기에 완벽할 뿐이지요.

글쓴 친구는 아직 뭐든 해보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넓게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금은 그 친구가 훨씬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친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요지는 쉬엄쉬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잘하겠다'는 정성입니다. '더 잘하겠다'는 욕심입니다. '사랑한다'는 아름답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허전합니다. '감사합니다'는 편안함 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는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지평선 같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일도 사랑도 감사도 늘 평평하고 잔잔하여 멀리서 보는 지평선 같기를 바랍니다. 아득한 계곡이나 높은 산 같은 마음이 아니라 들판같이 넉넉하고 순박한 마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른 마음입니다. 앞만 보고 오를 때는 발끝만 보이지만 멈추어 서서보면 내 앞에 지평선이 펼쳐집니다. 마음도 쉬어야 넓고 부드러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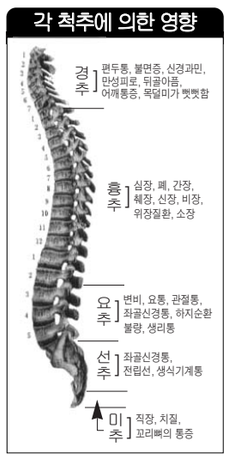
(금산사 어린이불교학교 범일님)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 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 전 속 성 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7년 12월 11일 부터 (4주간)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2시~5시)
- 부산연수원 :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불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불자님께 드리는 글

일월산 관법사에서는 병마에 고통 받는 불자님들을 위하여 고심 끝에 청정고을 경북 영양천의 오지에서 생산된 자연산 돼지감자와 약나무만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와 경험으로 정성껏 다려서 병마에 고통 받는 불자님들께서 고민 없이 복용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 돼지 감자의 효능
▷ 당뇨(천연 이눌린이 다량함유)에 탁월한 효능 및 강장식품
▷ 각종 성인병 예방 및 고혈압, 위장, 대장운동 촉진으로 변비에도 효능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됨)

● 헛개나무의 효능
▷ 간경화, 지방간, 간장, 대장염 질환예방 및 치료
▷ 음주 후 간, 장, 알콜성 만성피로 해독 효능

● 복용방법
▷ 식 전 후 1봉씩 1일 2회 복용함
▷ 데워서 드시면 좋으나 차게 드셔도 무방함
▷ 1개월 복용 4만원 (택배비 본인 부담임)

입 금 : 계좌번호 (우체국 701151-01-001297) 예금주 관법사
주문전화 : 054)682-5808

관법사 총무 성덕 합장

大韓護國佛教 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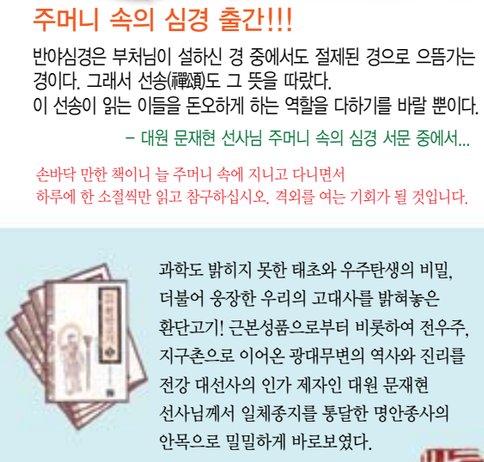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주머니 속의 심경 출간!!!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 중에서도 절제된 경으로 으뜸가는 경이다. 그래서 선승(禪僧)도 그 뜻을 따랐다.
이 선승이 읽는 이들을 돈오하게 하는 역할을 다하기를 바랄 뿐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주머니 속의 심경 서문 중에서...

손바닥 만한 책이니 늘 주머니 속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소절씩만 읽고 참구하십시오. 격외를 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봉 스님(2)

만공, 막중한 일을 어찌 서신으로 전할 수 있겠는가

경봉,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만공, 수좌가 깨달은 경지를 잘 각찰하시오

1927년 11월 20일 새벽, 방안의 촛불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은 경봉 스님은 용성, 한암 스님은 물론 만공 스님에게도 오도송과 보임(保任)의 길을 묻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만공 스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끝내 묵묵부답이었다.

어느 날 경봉 스님은 서울 선학원으로 만공 스님을 찾아가 따져 물었다. 그러자 만공 스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막중한 일을 어찌 서신으로 전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경봉 수좌가 깨달은 경지를 잘 각찰(覺察; 깨달아 살핌)하시오."

이에 경봉 스님은 만공의 팔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팔목의 급소를 아프게 눌렀다. 만공 스님은 "아야!" 하고 소리를 냈지만, 잠시 후 미소를 지었다.

당대 고승들과 지속적 서신 교환

깨달음 얻은 이후에도 탁마 계속

1912년 해담(海曇) 스님으로부터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은 뒤,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에 입학한 경봉 스님은 해인사 퇴설당, 금강산 마하연과 석왕사 등 이름난 선원을 찾아다니면서 정진하였다. 그러던 중 김천 직지사에서 만난 만봉(萬峰) 스님과의 법담에 힘입어 '자기를 운전하는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주인'을 찾을 것을 결심하고, 통도사 극락암으로 자리를 옮겨 3개월 동안 장좌불와(長坐不臥)하면서 정진을 계속하였다. 이와 함께 화엄산림법회에서 법주(法主)겸 설주(說主)를 맡아 철야로 불사하고 정진하던 중, 4일 만에 천지간에 오롯한 일원상(一圓相)이 나타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물(一物)에 얽힌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화두를 들어 정진하다가 1927년 11월 20일 새벽, 오도송을 읊었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我是訪吾物物頭)/ 눈 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目前卽見主人樓)/ 껄껄껄, 이제야 만나 의혹 없어지니(呵呵逢着無疑惑)/ 우담바라 꽃 빛이 온 누리에 흐르네(優鉢花光法界流)."

경봉 스님은 당대의 여러 고승들에게 오도송을 보여주고 점검을 겸한 깨달음 이후의 공부에 대한 가르침을 기대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대부분 답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서신을 통한 탁마(琢磨)를 이어갔다. 그런데, 유독 만공 스님만은 답장이 없었기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답장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만공 스님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라 직접 만나서 대답하려 했다고 시치미를 뗀다. 여기서 '막중한 일'이란 일대사(一大事) 즉, 화두를 타파하여 깨달음을 얻는 일을 뜻한다. 하지만, 깨달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을 하고, '닦음이 없이 닦는(無修之修)' 오후(悟後)공부에 대해 다시 첨언한다는 것이 이미 평지풍파(平地風波)와 같은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만공 스님은 '지금 당장 말해 달라'는 경봉 스님의 닦달에 마지못해 "깨달은 경지를 잘 각찰(覺察)하시오"라는 답을 하고 만다.

이에 경봉 스님은 만공 스님의 팔목을 누르는 지혜작용으로 자신의 견처(見處)를 다시 한 번 점검받으며, 한 마디 일러줄 것을 청한다. 하지만 만공 스님은 여전히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미소로 긍정하며 말을 아낀다. 말 밖에 따로 전해지는 깨달음에 대해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깨달음 이후의 보임공부 역시 말없는 언행일치의 실천행인 불행수행(佛行修行)만이 기다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사마타·위빠사나 함께 닦아야 온전한 수행"

간화선의 리더들⑩ 마음닦기선원 무산본각 거사



12월 2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목포행 무궁화 열차를 타고 도착한 목포역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목포시 상동 시내의 작은 빌딩 2층에 자리 잡은 마음닦기 선원에 도착하니 무산본각(無山本覺) 이용현(55) 거사와 제자인 양산, 승산 거사가 반갑게 맞아준다. 따뜻한 보이차를 마시며 무산 거사의 수행담을 들어보았다.

"오늘날 북방 대승불교권에서는 '사마타(samatha, 止)'를 중심으로 한 수행법을 채용하고 있는 반면, 남방불교권에서는 '위빠사나(vipassana, 觀)' 위주의 수행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수행체계가 부분적인 것으로 나눠지면서, 완벽한 수행 시스템이 그 본래의 기능과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전통적인 붓다의 지관쌍운(止觀雙運) 수행법을 온전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무산 거사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반드시 함께 닦아야 수행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견해는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한 바탕에서 이뤄진 결론이었다. 자칫, 화두삼매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은 간화선과 선정의 힘이 약한 '마른 위빠사나'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위빠사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와 관, 적(寂)과 조(照),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는 수행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1951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무산 거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주)선경 테헤란 지사장과 주(駐)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1980년부터 전업 수행자가 되었다. 숭산 스님의 참선법어집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을 번역하며 간화선 공부에 매진한 그는 1989년 어느 날 새벽, '야반삼경목계성(夜半三更木鷄聲:한밤 삼경의 나무 닭 소리)'이라는 말에 문득 공안을 타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곧 참된 경계가 아님을 깨닫고 재발심해 호흡 공부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 후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정통적인 붓다의 지관쌍운 수행법의 복원과 체계화를 시도했다. 마음닦기 선원에서 수행자를 지도하며 펴낸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마음닦기>, <공짜입니다> 등은 자신의 수행경험과 수행법 지도를 바탕으로 펴낸 책들이다.

무산 거사가 26년간의 구도여정 동안 정리한 지관쌍운 수행법은 <불설대안반수의경>의 체계와 <청정도론>의 37조도법(助道法)에 근거한 것으로 수(數)·수(隨)·지(止)·관(觀)·환(還)·정(淨) 등 6단계로 나뉜다. 즉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모으고 그 숨의 수를 헤아려 마음을 집중하는 수식관(數息觀)인 '수(數)' ▲들숨과 날숨을 고요히 지켜보며 알아차리는 상수관(相隨觀)인 '수(隨)' ▲마음이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한 곳에 응집되어 삼매에 이르는 '지(止)'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체 대상세계의 실상(實相)을 보는 '관(觀)'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함께 운용(定慧竝修)하여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일체 대상세계의 일반적인 특성을 체득하는 경계인 '환(還)' ▲자기의 인식과정에서 행(行, sankhara)의 작용의 단멸을 이루어 여실지견(如實知見)을 얻는 인식의 청정에 이르러 열반을 성취하는 '정(淨)'이 그것이다.

26년 구도과정에서 몸소 체득한 '지관쌍운법' 제시

간화선·위빠사나 장점 모아 6단계 수행법으로 정리

그렇다면 이러한 6단계 수행을 통해 증득한 깨달음이란 어떤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삼매(三昧) 체험을 넘어 삼매와 위빠사나를 함께 닦아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의 인식과정에서 행(行)의 작용이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도(道)의 명지(明知)'를 성취한 경계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에 이르면 일체 대상을 개념화하여 취착하게 하는 '빠빤짜(papancha, 개념화)의 작용'이 진정되어 온전한 여실지견을 성취한 열반에 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짓는 자(빠빤짜의 작용)'에 의해 과보가 생기며 윤회한다고 하셨고, 집짓는 자를 알아차려 윤회를 끊으셨습니다."

무산 거사는 '도의 명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색·수·상·행·식의 인식과정에서 가치와 의도를 부여하여 개념화하는 행의 작용인 '빠빤짜의 작용'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선(禪)에서 강조하는 분별심, 조작심, 망상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싸마타의 힘(선정력)'과 예리한 '위빠사나의 힘(주시력)'이 함께 구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의 작용이 진정되면 우리의 인식 주관이 개념화하여 표상한 빤냐띠(Pannatti, 관념)가 해체됩니다. 즉 오온의 빠라마따(Paramattha, 성품)를 보게 됨으로서 자재현전하는 대상세계의 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법은 온갖 분별·망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여실하게 보라는 선(禪)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밖으로는 일체의 대상세계를 반연하지 않고, 안으로는 의식의 자기지향성조차 없는 순수의식으로 그저 보고, 듣고, 알고, 사고할 뿐으로 여여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의 체험도 선(禪)이 말하는 평상심의 삶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가 화두에 집중하는 것을 사마타에, 성성적적하게 관조함을 위빠사나에 각각 대비한 것처럼, 간화선과 위빠사나에 본래부터 지(止)와 관(觀)의 원리가 오롯이 녹아있음에도 수행자들이 한쪽에만 집착한 나머지 수행법의 분열과 대립이 일어났을 뿐이다. 그는 "오늘날에 맞는 수행법의 체계화가 시급하다"며 "조만간 <무산 무문관>을 출간해, 무문관 48칙의 공안을 근본불교의 용어로 해석하고 공부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61)281-3035

목포=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daum.net



무산 거사의 지도를 받으며 '지관쌍운법'을 체득하고 있는 불자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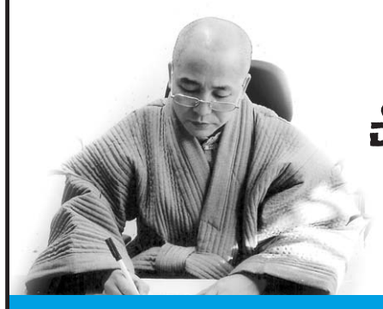
수행게시판

●**철야 염불정진**=만일염불결사회는 12월 15일 오후 8시부터 성남 정토사에서 철야 염불정진 법회를 연다. 20~22일, 3일간은 동지 3일 기도정진도 한다. (031)723-9797

●**금강경 독송 및 바라밀정진**=서울 불광사는 동안거 결제기간동안 매일 오전 10~12시 불광교육원 법당에서 <금강경> 독송과 바라밀 염송을 수행한다. (02)417-2551

●**위빠사나 주말수행**=천안 호두마을은 12월 14~19일, 21~23일, 12월 28일~1월 2일 사사나 스님의 지도로 위빠사나 주말수행을 실시한다. (041)567-2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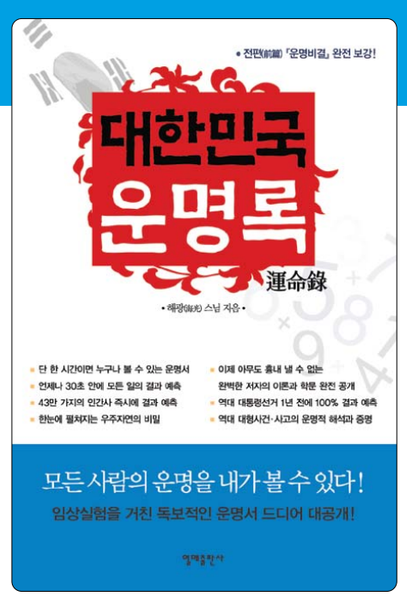
●**참선 및 삼천배 정진**=정안사 묘심선원은 12월 15일 오후 9시부터 참선 철야정진을 갖는다. 21일 오후 1시 아비라 기도,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3000배 정진도 실시한다. (02)523-8005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 격 : 현재 사암이나 포교원을 운영 중인 스님, 법사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스님이 되고자 하는 50세 이하의 불자

특 전 : 포교원, 사암의 운영에 전폭적 지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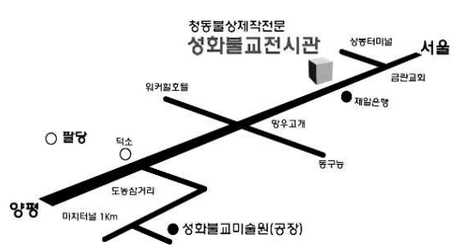
청동불상 제작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아빠도 피우시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㊷ 담배보다 진한 자녀사랑

두 딸의 흡연에 놀라 금연 결심

힘든 과정 극복하니 딸들 고마워

저희는 조금밖에 피우지 않아요

P씨의 딸들은 둘 다 대학생이다. 어느 날 퇴근하여 집에 들어온 P씨는 깜짝 놀랐다. 딸 둘이 거실 밖 베란다에 앉아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P씨를 보더니 거실로 들어오며 “아빠, 다녀오셨어요?”하고 인사하였다. P씨는 놀라서 “아니, 너희들 방금 담배 피웠니?”하고 물었다. 둘은 아무렇지도 않게 “네”하고 대답하였다. “뭐야? 아니, 젊은 애들이, 그것도 여자가 무슨 담배야?” “왜요, 아빠도 피우시잖아요! 아빠는 집 안 아무데서나 피우시지만 저희는 베란다에 나가서 피우는걸요.” 당당한 딸들의 대답에 P씨는 어이가 없었다.

방에 들어와 아내를 나무랐다. “당신 도대체 애들이 담배 피는 걸 놔두고 어떻게 된 거야!” 아내는 “글쎄, 처음에 뭐라 했더니 아빠도 하시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사실 당신이 보통 골초인가요. 솔직히 온 집안이 담배냄새에 절어 있는데.” “아니 내가 담배 피운다고 자기들도 핀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내는 자기 힘으로는 딸들을 못 당한다며 P씨에게 말려보라고 했다. 아침에 딸들에게 “너희들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 아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밖에 피우지 않아요”하면서 아빠는 평생 담배를 피워왔는데 자기들은 잠시 해보는 정도를 가지고 왜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다.

담배 끊기 맹세

마침내 P씨는 “좋다! 그럼 내가 담배를 끊는다면 너희도 그만 둘 거냐?”하고 말해버렸다. 딸들은 놀라면서 잠시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글쎄요, 만일 아빠가 안 피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더니 “하지만 설마 그러실 리가요. 아빤 담배 없인 못사시면서” 하였다. 사실 그랬다. P씨는 18세 때부터 담배를 피워 40년이 되어간다. 하루 두 갑, 완전 중독이었다. 아무리 건강에 해롭다 해도 단 한 번도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오직 딸들 때문이다. 그날 P씨는 단단히 맹세를 하였다. “앞으로 아빠는 완전히 담배를 끊을 것이다! 한번이라도 어기면 그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하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마”하였다. 딸들도 절대로 안 피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빠가 다시 피우시면 자기들도 피우겠다는 것이다. 아내는 놀라서 “당신 정말 할 수 있어요?” 한다. 평생 애연가인 P씨,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

그 날부터 그는 담배를 끊었다. 며칠이 지나자 “아빠, 혹시 낮에 몰래 피우시는 건 아니시죠?” 한다. “무슨 소리야! 아빠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깨끗해.” 정말이었다. 힘들다가도 딸들 얼굴만 생각하면 질색하게 되었다. 내가 피면, 얘들도 핀다, 안 돼! 앞으로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아야할 텐데, 임신 중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데, 절대 안 될 말이었다.

사랑하는 마음의 힘

금연 몇 개월이 넘었다. 아내는 집안에서 담배 냄새가 가셨다고 좋아한다. 제사가 있어 친척들이 모인 적이 있었다. 담배를 끊었다고 하니 아무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만큼 소문난 골초였었다. 형은 웃으며 “이제 환갑 바라보는 나이에 벌써 죽을 때가 되어 가는가? 나 원 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더니 네가 담배 안 핀다는 것만은 못 믿겠다”고 할 정도였다. 딸들은 힘차게 “저희가 증인이에요!”하며 미소 지었다. P씨는 ‘아유, 저 애물단지들, 쟤들 때문에 내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금단 현상이고 뭐고 전 몰라요. 어떡합니까. 내 새끼들하고 한 약속인데요.” 사실 전에는 폐암 유발 등 담배가 해악인 줄 알면서도 도저히 끊질 못했었다면서 오히려 딸들에게 고맙다고 한다. 그가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과연 해낼 수 있었을까. 딸들에 대해 지극하게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힘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다. “남을 위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된다”라는 법어가 떠오른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자광사 동지법회와 음악회=**대전 자광사는 12월 22일 동지 법회를 봉행한다. 저녁 7시부터 작은음악회도 마련한다. 자광사 신도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기악, 노래, 국악, 합창, 난타 등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나눔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042)822-9220

●**선운사 새해맞이 행사=**고창 선운사가 2008년 새해맞이 행사를 마련했다. 해넘이 타종식 해맞이 법회가 그것. 12월 31일~1월 1일 선운산 낙조대에서 해넘이를 보고 범종의 울림을 들으며 새해를 맞이하는 장엄한 시간이다. (063)561-1422

●**동지 철야 용맹정진 기도=**서울 능인선원이 12월 22일 동지 철야기도에 들어간다. 동지는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서 양의 기운이 우주에 시생하는 절기. 동지 전날인 21일 밤 11시부터 철야용맹정진을 한다. 22일 오전 10시에는 동지기도 법회를 봉행한다. 동지기도 법회 후 새해달력도 나눠줄 예정이다. 동참금은 2만원이다. (02)577-5800

●**유마회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찻집=**부천 석왕사 유마회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12월 16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석왕사 후원 식당에서 개최한다. 유마회는 매월 다섯 가정을 후원하고 있으며 한마음양로원, 장애우단체 로뎀나무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032)663-7771

●**대흥사 겨울수련회=**해남 대흥사가 두 차례의 겨울수련회를 마련해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차 참선수련회는 1월 14~20일 수련회 경험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경전읽기 수련회로 진행되는 2차는 1월 26~30일 열린다. 1차는 1월 10일까지, 2차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한문학당은 1월 3~10일 열린다. 1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061)534-5502

●**미황사 12월 특별수행=**‘참사람의 향기’ 해남 미황사가 한국 전통의 화두 참선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7박 8일간의 ‘참사람의 향기’ 12월 수행에 들어간다. 12월 15~22일 열리는 12월 특별수행 ‘참사람의 향기’는 참선,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법문(수행체계), 다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061)533-3521

●**지안 스님 〈육조단경〉 강의=**합천 해인사는 12월 22일 오후 3시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을 초청해 〈육조단경〉 강설대법회를 개최한다. 〈육조단경〉 강설은 제9회 팔만대장경강설대법회의 일환이다. (055)934-3000



행동주의와 불교-7

행동주의 인간본성 무한 능력강조

행동주의 상담기법 ‘자기 지시’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동주의도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내면적 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을 펼친 반두라(Bandura)는 인간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기 지도(self-direction), 자기 강화, 인지적 통제 등의 개념을 내놓았다. 자기 지도란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 강화란 인간이 사회화되어 감에 따라 외적인 보상과 벌에 덜 의존하고 자기 규제의 고유한 방법 즉 자신의 내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보상과 벌을 준다는 것이며, 인지적 통제란 인간에게 대부분의 외적 영향은 매개적인 인지과정을 통해서 행동에 효과를 미치므로 인지과정이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부적 영향보다 인간의 내적인 역량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비로소 행동주의는 인간 본성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는 불교에 한 발치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나온 행동주의 상담기법이 ‘자기 지시(self-instruction)’다. 불안이나 기타 부적응 행동에 대해 불안을 줄이거나 적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지시하거나 스스로 말하는 것(자기 진술)을 말한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 근육 이완을 하도록 하는 지시,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 생각으로 바꾸도록 하는 지시, 그리고 구체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성과 만날 때 불안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별 사람 없다.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잘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자.”

또, 공부해야 할 시간에 컴퓨터 게임이 하고 싶은 학생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다.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도 참고 공부할 수 있다.”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드는 기법이지만 매우 효과가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큰소리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여건에 따라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혼자 중얼거려도 된다.

부처님의 상담 장면에서도 오늘날의 ‘자기 지시’라 할 수 있는 기법을 볼 수 있다. 어느 때 푸라세나짓 왕이 몸이 비대해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찾아왔다. 왕은 자신의 몸이 매우 비대하여 창피스럽고 귀찮고 괴롭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마땅히 스스로 조심하여/먹을 때마다 양을 알아 절제하라/그러면 받는 고통 줄어들고/편히 소화해 목숨을 잘 보존하리라.”

그러자 왕은 옆에 있던 수닷사라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너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게송을 받들어 가졌다가 밥 때가 될 때마다 나를 위해 외워 달라.”

이후 수닷사는 왕이 식사할 때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송을 외웠고, 그 덕분에 식사량을 조절한 왕은 차츰 몸이 야위어 가늘어지고 얼굴이 단정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왕이라서 자기가 스스로 지시하는 대신 사람을 사서 말하게 한 것 외에는 현대의 자기 지시 기법과 동일하다. 그 효과 또한 확실했다는 것이 〈아함경〉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그림 : 문병성

석청은 빵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왕벌이 만들어 내는 야생꿀이다. 네팔과 티벳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강장식품이며 세포생성, 노폐물 제거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 급 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군경스포츠연맹

석청의 효능은?

석청에는 일반 토종꿀에 비해 비타민, 토코페롤, 칼슘, 게르마늄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과당, 포도당, 칼륨, 아미노산, 무기질 등 70여 가지의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물질이 골고루 들어있다. 이런 이유로 꼭 약용이라는 부분을 떠나 일반 강장식품으로도 복용할 수 있다. 또한 석청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의 생리작용이 원활해져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허열이 제거되고, 눈에 띄게 건강이 회복된다. 네팔 왕실 산하의 '히말라야 석청 연구소' 에 따르면 석청은 현대인의 불치병인 암, 만성신경통, 혈액순환 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중풍, 야맹증, 간염, 두통,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복용 사례에도 불치병인 암, 몇 년째 어깨가 결렸던 견비통, 만성신경통, 치질, 변비가 석청을 복용한 후 완치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석청은 일반 꿀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및 빈혈 예방, 피로회복, 불면증 해소, 숙취, 기침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이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빠랑게가 사는 고산족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취급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 아래의 보급 석청은 참석청입니다.

● 서울 02)3436-7845 ● 중부 031)634-3519 ● 대구/경북 054)464-4735 ● 부산/경남 051)782-9386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석청보급가액 중 일부는 네팔 불우아동들을 돕기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 3병 이상 구입시 석청 채집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

마당놀이 '쾌걸박씨'

마당놀이 전문극단 미추가 올해도 '쾌걸박씨'(배삼식 작 · 손진책 연출)로 관객들을 장충체육관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이번 작품에는 학력위조, 신정아 · 변양균 사건,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대통령 선거 등이 '풍자감'이 됐다.

'쾌걸박씨'는 고전 '박씨전'에 고대 그리스 희극 '리시스트라테'를 섞었다. 병자호란 직후가 배경인 이 마당놀이는 이시백(윤문식)이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강요하는 청나라 칙사를 쇠뼈로 두들겨 패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박색인 시백의 부인 박씨(김성녀)가 청나라로 가 여자들의 성(性)파업을 일으켜 전쟁을 막는다는 이야기다.

대기업 관련 비리도 빠지지 않는다. "수십만냥씩 해처먹는 큰 도둑놈들이야 아무 탈 없지. 건드리면 국가경제에 영향이 어쩐다나 뭐라나. 그것들은 꼭 재판받을 때만 되면 없던 병도 만들어 휠체어 타고 나타나데…."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배우들과 관객들이 무대에서 신명나게 노는 뒤풀이로 막이 내린다. '쾌걸박씨'는 12월 22일까지 공연된다. (02)368-1515

김주일 기자



허허당 스님이 본 '화엄세계' 展

12월 22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열려

"밤인가 해서 눈을 뜨니 밤이 아니요
낮인가 해서 눈을 뜨니 낮이 아니로다.
아 나는 세월 맨 끝 뒷 모퉁이에서 무(無)의 파편 하염없이 토하며
윤회의 사슬 뒤척이며 한 바퀴 생사의 꿈을 희롱 하노라."

–허허당 스님의 '새벽 분황사 중에서'

동자승의 이미지를 활용해 독특한 선화를 선보여온 허허당 스님이 12월 22일까지 서울 사간동 법련사내 불일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전시명은 '허허당이 본 화엄세계– 천년의 세월을 씻고'이다. 허허당 스님은 19세 때 출가한 후 1983년부터 선화에 몰두해왔다. 이후 한지에 먹으로 작은 동자승들을 점점이 그려넣어 화면을 채우고 그 사이 사이에 색을 칠하거나 농담을 조절해 연꽃 불탑같은 불교적 이미지를 형상화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7년전 스위스 취리히 전시회 때 선보인 '10만 동자승'은 전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다. 점을 찍어놓은 것처럼 빼곡한 동자승들을 배경으로 한가운데에 부처님의 형상을 실루엣으로 겹친 이 그림은 당시 국내외에서 "법력의 극치를 이룬 역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향훈이라는 법명으로 수행하던 그는 '도는 구하고 찾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울 때 찾아오는 것'이란 깨달음을 얻고 이름을 허허당(비고 빈 집)으로 바꿨다.

이후 선방을 뛰쳐나와 지리산 벽송사와 안국사 등에서 그림에만 몰두했다. 그의 수행은 하얀 여백의 한지와 붓 한자루로 이뤄진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수십만 동자승은 범종과 풍경을 만들고 우담바라 꽃으로 피어나기도 한다. 그에게 선화는 "존재의 흐느낌대로/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무심히 쭉쭉 그어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나온다고 스님은 생각한다. 스님의 끝없는 창작열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른다. '휴유암'이란 두세 평 남짓한 진짜 토굴(?)에서 두문불출하며 선화에만 몰두해 왔다. 그 결과물들을 이번 전시에서 쏟아내 선보인다. '전등' '할' '존재의 기쁨' '무심' '고요한 비명' '저물 무렵의 첨성대' 등 50여점이 이번 전시회에서 벽에 걸린다.

스님의 그림은 얼핏 보면 퓐화 같다. 그만큼 정교하다는 느낌이 든다. 최소한 스님의 작품에는 세필로 형상화된 수많은 동자승들이 등장한다. 작품마다 장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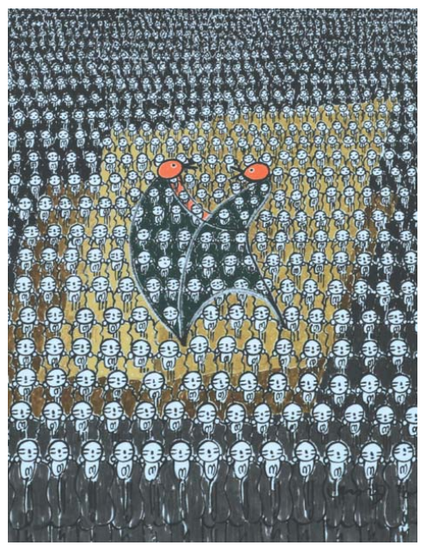
또한 동자승의 크기로 원근이 조절되는 독특한 화풍은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든다. 화판에 채워진 수 없이 많은 동자승의 숫자만큼 수행의 깊이가 확연히 느껴진다.

불일미술관장 보경 스님은 "화폭에 넘쳐나는 수(數)의 향연에 경의롭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며 "홀로 있는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하듯이 허허당 스님 그림의 진정한 매력은 더불어 채워 놓은 동자승들로 하여금 꽉 들어찬 일심동체를 이루어 장엄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수묵의 흑백 경계를 넘어 색을 조화롭게 사용한 이번 전시회는 한동안 긴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02)733-5379 김주일 기자



생명의 축제



춤추는 팽귄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㉙



사불산 윤필암

윤필암(閏筆庵)–문경 사불산에 있는 비구니암자로 청담 스님의 둘째따님인 묘엄 스님의 출가처.

부처님은 山頂에 누워 계시고
법당엔
산새가 물어나른 조각구름 뿐,

어디인가
앳된 여승 파랗게 삭발하던 날
기어이 눈물을 떨군 자리는.

고은사진 미술관, 개관 기념展

구본창 사진전

불교 예술은 현재에도 살아 숨쉰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시대적 흐름에 맞는 도구로 담아내며 보여주고 또한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장은 부족하다. 고은문화재단은 특별 전시관을 마련해 이런 현실의 답답한 숨구멍을 틔우는 역할을 해왔다. 영상예술 중 하나인 사진을 통해 불교와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기회를 만들었다.

12월 1일 개관한 고은사진미술관(관장 이재구)이 그것이다. 고은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이번에 개관한 미술관은 부산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이다. 앞으로 고은사진미술관은 국내외 유명사진작가들의 전시기획, 신인작가 발굴 및 지원, 사진 문화의 대중화와 사진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설 계획이다.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이기도 한 이재구 관장은 "부산은 국제영화제 및 불꽃 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을 열고 있다"며 "지역 불교 문화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적 행사를 아우르는 기획을 선보일 것이다"고 미술관 운영 계획을 밝혔다.



개관 기념으로 '구본창 사진전'을 기획했다. 구본창 사진은 언뜻 보면 닳고 낡아서 힘없이 갈라져 버린 오브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새 것으로의 과거와 당당한 현재 그리고 소멸될 미래가 서로 소통함으로써 사진의 본질인 시간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는 백자(vessel), 비누(soap), 바다(ocean), 그리고 오브제(object)로 구성됐다. 사진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다. (051)744-3924 하성미 기자



문화소식

△니르바나 '제8회 테마음악회 '<화엄경> 읽는 풍경'

12월 13일 오후 7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서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2월 13일 오후 7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여덟번째이야기– 테마음악회'를 연다.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출연해 '<화엄경> 읽는 풍경'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음악회는 총 3부로 나눠진다.

1부는 '세상의 모든 꽃 <화엄경>에 대하여'를 주제로 <화엄경>의 개괄적 설명이 이어진다. '꽃을 피우는 보살들의 실천행'을 제목으로 한 2부에서는 '보현보살' '문수보살'에 얽힌 이야기를 본각 스님이 재미있게 들려준다. 마지막 3부는 '화엄에 얽힌 설화 이야기'다. 선재동자의 구법순례, 의상 대사와 선묘이야기, 보현행원과 균여 대사의 향가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

각 부 사이사이에는 드라마 황진이의 주제곡인 '꽃날' 등 니르바나의 클래식 연주와 국악 공연이 마련된다. 참가비 1만원. (02)718-4599

△최두석 교수, 제2회 불교문예작품상 수상



최두석(52 · 한신대 문예창작과 교수 · 사진) 시인의 '투구꽃'이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시상하는 제2회 불교문예작품상을 수상했다.

현대불교문인협회는 "'투구꽃'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지니는 두 가지 의미를 점검하며 불이(不二)의 세계관을 형상화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불교문예작품상은 한 해 동안 <불교문예>를 통해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시상식은 12월 28일 오후 6시 인사동 아리랑 가든에서 열린다.

△법련사 불일미술관 12월 22일 송년음악회

법련사는 12월 22일 오후 2시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2007 송년음악회'를 연다. 작곡가 김회경씨가 지휘하는 오느름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함께 강효주(국립국악원 경기창), 최진숙(국립국악원 남도창), 한정일(테너) 등이 무대에 선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될 이번 음악회에서는 김회경 단장이 해설을 곁들이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02)733-5379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구입시 할부가능



● 수평형이며 연도가 3패스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 긴형태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뒤–앞,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룸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2004Korea Consumer Best Awards 한열나무보일러 스포츠서울 라이프선정 2004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2005년 히트상품&서비스 경영대상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A/s안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불량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동파로 인한 고장
– 모타 펌프 이상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어기고 개인 설비업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매계약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시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창업하실분 연락바랍니다

투투컴퓨터
www.twotwocom.co.kr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문의전화 : 02)585–1141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
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한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워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같이 있다면 같이 있는 거고, 혼자 있다면 혼자 있는 겁니다. 그 뜻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묘법이랍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연화장불(蓮華藏佛)'이러면 아주 최고의 한울을 꿰들어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인이라는 뜻도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하계에 또 더 큰 은하계도 있고 또 더 큰 은하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소속된 은하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은하계 속에 있는 우리 생명력들은 사분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질척한 데서 사는 거나 물에서 사는 거나 한 부분으로 친다면, 또 나무들 풀들을 한 부분으로 치고, 날아다니는 거 또 땅을 딛고 다니는 거, 이렇게 네 분류로 치는 이 속에서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거, 화(化)해서 낳는 네 가지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생명이 한데 합쳐진 마음 즉, 공존하는 그 주장자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름해서 사왕천(四王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지, 총 합해서 지도를 하는 자가 사왕천이라고 이름해서 붙인 겁니다. 이름해서 붙였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갈 수 있고 광력이나 전력, 자력, 여러 가지 힘이 서로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난다면 원심력을 얻는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길 했을 겁니다. 원심력을 얻는다면 그 원심력은 어떡해서 원심력이 될까? 그리고 사무사유(四無四有)라는 그 뜻은 뭐냐? 죽은 사람들의 마음, 산 사람들의 마음이 둘이 아닌 그런 뜻을 가지고 사무사유 한데 합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마음의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無)의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영령들, 그 처절한 영령의 참혹한 일들, 이름해서 부를 수 없는 일들, 또 산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혹하고 처절한 영령들, 즉 산사람한테 침입해서 악이면 악, 선이면 선 그렇게 침입을 해서 인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고, 팔자 운명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이름이 속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팔자 속 운명 속 업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사왕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얻는 것은 악이나 선이나 다 놓는 것뿐인데 여러분은 '나는 놓을 수 없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어려우냐?'고 나는 그러죠. 그게 아주 아리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렵다고들 그러지만 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스럽습니다. 지금도 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가고 오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만나고, 스스로 교차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여러분 자유자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끄달리지 말고 모든 것이 바로 내 근본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전부 여러분의 한마음이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즉 말하자면 오고 감이 없는 빛보다 더 빠른 누진통(漏盡通)으로 하여금 천체무전통신기처럼 광력이나 전력에 종합된 그 에너지는 바로 저 은하계로 통하게 됩니다. 은하계의 별들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의 뜻을, 무(無)의 세계의 한 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상봉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안테나는 근본의 전체 통신을 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같죠. 즉 말하자면 심안이 밝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고 감도 없는 육신통, 이것이 천백(千百)으로 화(化)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이 의심치를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구,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믿는 사람이 이거를 해서 안 되는데…' 꼭 후회가 들어가고 반성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데는 정말 나를 깨닫는 그 길을 택하려면 후회도 반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없는 거다 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 근본 주인공 속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직속으로 같이 상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각각 논다면 이거는 정말이지 여러분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참 행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행선(行禪)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왜 잘 써야 하느냐? 여러분이 한 번 잘못 쓰면 이 몸뚱이 속에 업식으로 뭉쳐집니다. 저지른 대로 업식이 돼서 내 몸뚱이에 뭉쳐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잘못되는 것도 업식으로 뭉쳐져 있는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걸 놔라, 맡겨놔라.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녹일 수밖엔 없다.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거든.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이 재밌게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있는데 시커먼 게 거기 죽들 앉았어도 여러분은 눈이 멀어서 못 봐. 잠시 잠깐 웃고 즐길 거라면 차라리 그게 뭡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에 그 업식으로 인해서, 업식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촐나촐나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우리가 '구정토(九淨土)'라고 말을 합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소속되어 있는 구정토다 이 말이죠. 지금 은하계가 있으면 은하계의 별들을 보호하고 있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그 태양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생(四生)입니다. 태양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자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 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안 되고 흙이 없어도 안 되는 이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흙과 물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태양과 바람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죠. 태양이 위로는 근본 별성을 보호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을 자라게끔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정토는 어떻게 해서 구정토라고 그러냐 하면 은하계에 있는 혹성들만 해도 이거는 삼심(三心)에, 삼심! 이렇게 하는 건 개별적인 것이 되지마는, '삼세심(三世心)' 하는 것은 구정토가 다 들어갑니다. 혹성이 다 포함돼죠. 혹성 외에 있는 것은 구정토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그 구정토가 소속돼 있는 건 은하계에 소속돼 있는 거죠. 그건 왜냐? 힘은 각자 강하지마는 우리 생명체들은 전부 별성에 있으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 별이 떨어지면 이승에서 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잘못된 마음들이 한데 모인다면, 지금도 한데 모여서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별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살면서 깡패나 강도나 도둑, 마적 이런 거와 똑같은 얘깁니다. 또 이걸 비교해서 한번 말하죠. 여간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공직에 있어서 사람을 너무 못살게 자꾸 일을 저지르니까 추방을 시켜서 내쫓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앙심을 먹고서는 나쁜 놈들을 전부 모으는 거야. 오년이 되든 십년이 되든 모아가지고서는 단결이 돼가지고는 사람을 해치는 거야.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마음들도 악이 있고 선이 있다면 악이 그렇게 선을 해치기도 해. 악과 선을 다 놓은 상태에는 하나의 주장자가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있는데, 그 주장자 밑에서 악과 선을 다루고 일하는 그 주모자를 해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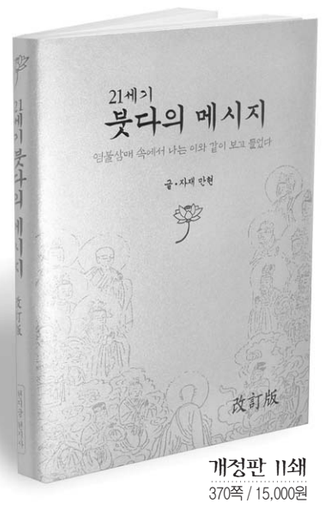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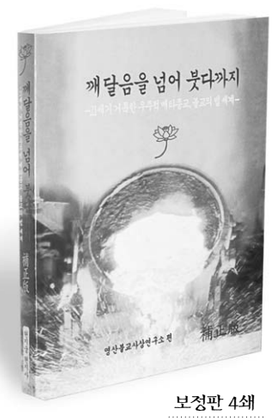
절찬리 판매중

개정판이 나와 발행 2년만에 11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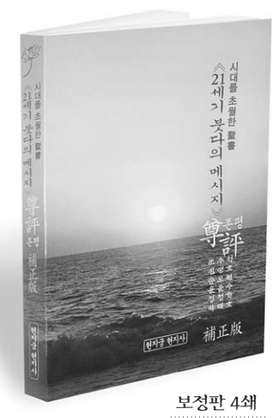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자기가 자기를 의심치 말고 물러서지 마세요!

☞19면에서 계속

치게 되면 혼란이 오거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령들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소소한 우리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가 하면, 정말 이 별성에서 싸움박질들이 난다면 이거는 무슨 조그마한 하나만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피해가 있단 말이야. 마음세계에서 싸움이 나면 어떤 때는 파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라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화산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물로 인해서 죽기도 하는 변화가 생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란을 정돈하고 잘 이끌어 나가려면 우리 한국에서도 대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경제난을 비롯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 혹성 하나에 소관된 문제입니다. 세계를 세계라고 하지만 구정토에서 요거 하나 소속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정토에 소속돼 있는 거와 똑같고 구정토는 또 은하계에 소속돼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마음은 직접 통합니다, 이 불성 자체가.

옛날 얘기 한마디 하죠. 옛날뿐만 아니라 옛날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잘 파악해서 들으세요. 한 사람이 훈련대장으로서 권위가 당당하고 무관으로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어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권력은 있으나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 경솔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부모에게도 효도가 없어, 또 형제에게도 아름다운 마음이 없고 지혜롭게 이끌어나가지를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

어느 날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스님 한 분이 절 지을 돈, 시주돈을 짊어지고는 끙끙하고 올라가는데 도둑들이 들이덤벼서는 스님을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걸 물리치고 스님도 살리고 돈도 빼앗아서 그 스님에게 다시 주었단 말이야. 그러고는 후미진 데 혼자 다니시지 말라며 잘 보좌해서 올려보내곤 말을 타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 그 스님은 무사히 절에 도착해서는 시주돈으로 절을 잘 지었지. 자기 생전에는 그거 한 가지밖엔 잘한 게 없어, 자기가 나중에 늙어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모든 게 자기한테 조건이 불리해. 그런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이 어른이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도 그냥이나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돼지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 이 소릴 잘 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원망을 안 했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 그렇고, 자기가 지은 인연이라 그렇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렸으면 산돼지로도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앙심을 먹곤 잔뜩 이를 가니까 산돼지밖에 될 수가 없거든.

한쪽은 산돼지가 됐고 한쪽은 독사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아,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오백년을 지내도 독사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 그냥 그 소굴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 다 업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촉각이나 시각으로나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심안의 눈이 있어야 보지. 그러니 이게 독사뱀이 둘이 사랑을 하는지 사람이 사랑을 하는지 몰라. 자기 모습이 흉악한지 자기한테 독이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고선 그 속에서 또 낳게 되고, 죽으면 또 뱀이 되고, 잡혀먹히고, 또 쫓기고 밟혀 죽고 찢겨 죽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식이 찢겨 죽게 되면 또 어미나 아비가 그냥 독을 품고선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자식은 죽고 이렇게 애를 말리면서 살기를 오백년을 살았다 이거야.

오백년을 살다보니까 하루는 어느 결에 새끼들을 오물조물 낳아놓고는 다복하게 음식을 먹는데 웬걸, 산돼지들이 약초 뿌리를 패먹느라고 그 땅을 막 파헤치는 동안에 뱀 소굴이 모두 벌겨졌단 말이야. 그게 원수로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를 갈면서 너 잘 만났다 이럭하고선 전부 죽였단 말이야. 전부 죽고 나서 독사 즉, 남편이 말이야, 자식 부인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서 애처롭게 떠억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기가 막혀! 영이 돼서 보니까 말야.

살 길이 없나 하고 휘적휘적 보다가 이제는 살모사 굴로 들어갔다고. 그게 또 우연히가 아니야. 자기가 한 것대로 길을 받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안에서 다 업식으로 만나서 업보로 인과로 됐으니까 자기를 끌고간다는 게 나쁜 데로만 끌고 가는 거지. 그래 거기에서 살모사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장가를 들었단 말이야. 장가를 들었는데, 살모사는 새끼를 낳으면 아비는 능구렁이가 되고, 살모사 새끼들은 어미를 잡아먹어야 구렁이로서의 모습을 바꾼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고것만 잘 들어요, 인과에 대해서.

그래서 살모사 속에 들어가서는 떠억 장가를 들어서 자식들을 낳아놓고 보니 아주 재롱도 잘 부리고 귀엽고 좋거든. 그런데 어느 날 오물쪼물한 자기 새끼들이 제 어미를 잡아먹는단 말야. 먹고 자라.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자기는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 그 어미가 이 목줄기의 독을 팍 없애면서, 요즘으로 치면 그게 마취나 한가지지. 그 독을 딱 빼버리고 쫙 드러누워 있으니까 아 그냥 새끼들이 그저 너도나도 뜯어먹고는 또 자라요. 그렇게 뜯어먹는 그 광경이라니! 뼈다귀만 남겨놓고 다 뜯어먹고는 뼈다귀는 뼈다귀대로 개미떼들이 또 와서 뜯어먹고 가져가는 그 광경! 그거를 다 보고 난 뒤에야 이제 그게 능구렁이가 된대요.

그걸 다 보고 난 남편은 너무 허무해.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슬슬 나왔어요. 나와서 어느 풀섶에 처억 기대서 강을 내려다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소리를 그 스님이 들었어요. 오백년이 지나고 벌써 십만년이 지났다는 얘기야. 십만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뱀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깐 그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이거 거짓말로 알아들어서는 안 돼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뱀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쥐새끼로 들어갔다면 쥐새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은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쥐새끼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도솔천(兜率天)에서 열반을 하시고 도를 통하시고서 저 도솔천의 연화장불(蓮華藏佛)이 돼 가지곤 터억 보니까 아, 그 뱀에 연관이 돼 있거든.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때 살려준 그 고마움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 보니깐 아하! 이거 그때의 인연이 이제서야 참회를 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니 참….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들린 거지.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얼른 들렀을 텐데 그전엔 아주 좋기만 하고 그게 사는 걸로만 알았으니까 뉘우치지 않는데 스님한테 들릴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 소릴 듣고 옥황상제한테 한 찰나에 연락을 해서 참, 그 인연을 제도하러 내려갔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이 구렁이가 앉아서 울고 있는데 말이야, 훈련대장으로 있을 때에 그 밑에서 사람을 끌어오고 죽이고 재산 뺏고 그러던 그것이 두꺼비가 돼가지고선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 뱀 앞에 와서 약을 올리는 거야. 그런데 이 뱀은 그 사연을 몰라. 두꺼비가 계속 뱀을 놀리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터덜터덜 오시거든. 오시니까 거기서 터억 소리가 나는 거라. 이 뱀이 그 소리를 들어, 인제. 두꺼비도 듣고 뱀도 들어.

"너희 둘 잘 만났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만난 것도 과거로부터의 인연이니라. 너희들은 악행을 너무 저질러서 만남도 이러한 것이니라. 저 두꺼비도 본심은 착한데 너의 말을 듣고 일을 저질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네놈이 더 잘못했어. 너는 나를 한 번 살려준 것밖에는 선행한 게 없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 두꺼비…." 그래 그런 설법을 쭈욱 했어. 그러니까 그만 뱀이 우는 거라. 울면서 두꺼비한테 하는 소리야. "만약에 내가 너를 잡아먹으면 내 몸은 그냥 버리고 나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너는 내 몸에 의해서 몸이 두꺼비로 다 화(化)하게 되니 너는 두꺼비를 또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지 말라."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했지, 뱀더러.

"네가 저지른 거니까 빨리 두꺼비를 삼켜라. 그러면 내가 인도를 할 테니 요 들판만 내려가면 암자가 있는데 거기 큰 솥 걸어놓은 데 그 아궁이에 오늘 밤에 들어가 있으면 내일 아침에는 거기다가 불을 지필 테니 절대로 뜨겁단 말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몽땅 태워 없애라. 던져라. 네 몸뚱이를 하나 던지면 두꺼비도 살고 너도 사느니라. 그래서 인도환생을 하되 그때는 인간으로 태어나 나쁘게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라. 십만년 만에 인간으로 도로 갖다놨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하기 달렸다. 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절을 짓고 내 목숨이 살고, 내 목숨이 살았기에 도를 이루었고, 도를 이루었기에 네 울음 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니 그렇게 알고 몸을 던지는 것이 네가 빠져나갈 길이니라." 그러거든.

그래서 뱀은 두꺼비를 냉큼 집어 삼키고서는 스님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서는 다른 사람 몰래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꿈벅꿈벅하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단 말이야. 두꺼비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그냥 죽어서 그게 뼈 마디마디마다, 즉 말하자면 썩는 대로 두꺼비가 돼요. 그 독이 퍼지니깐 얼마나 아픈지 비꼬곤 그냥 있어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어떤 스님이 와서 불을 지피거든. 불을 지피니 얼마나 죽겠느냔 말이야.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인도환생을 못한다는 말에 그냥 꾹 참고 그 고비를 넘겨서 인도환생을 했대요. 응? 그 뒤는 뭐 또 자기 할 탓이지만 말이야, 도로 갖다 놨으니.

그래서 우리의 이 몸속이라는 자체가, '천상 인간도 벗어나야 된다.' 하는 소리는 뭐냐 하면 사왕천(四王天)의 천상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해서 선은 짓되 악은 놔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서 선을 짓게 되면 선으로 가다가 악을 또 지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迷)해질 수가 있고 길지가 못해. 또 한 점은 선과 악은 다를 수가 없어. 또 한 점은 영령들과 인간 산 사람들과는 또 다를 수가 없어.

그러니 모두 놔라 이거예요. 모두 모두 맡겨놔라 이거야. 놓으라니까 무슨 놓을 게 있어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거기에서밖에는 해결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감사함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모두 품안으로 안을 수도 없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 없다, 거기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하고 믿고 나가라 이거지, 그것이 놓는 거라고.

그것이 놓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자꾸자꾸 놓아 들어가면 업보로 뭉쳐진 이 중생들이 다 그냥 보살로 화해 버려.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니 좋습니까. 거기에서 호법신(護法神)도 생기고, 수호신(守護神)도 생기고, 화신(化身)도 생기고, 법신(法身)도 생기고 모두가 수효가 없이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냐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귀인이 생기고 발이 넓어지고 속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떳떳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죠.

(다음 호에 이어서)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되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참 행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행선(行禪)입니다.

※위 법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선밀종 임원 · 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양종 이거나 밀종으로 이루어진 현실에 해동초조인 원효선사를 종조로 밀로 점수하여 선으로 돈수하는 선밀종을 창종 하고저 발원 하오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의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선지식, 대덕스님과 인연 닫기를 기원합니다.

-입 종 안 내-

◆종 단 명 : 대한불교선밀종
◆종교단체등록 (37451-00292)
◆비영리법인고유번호 (513-82-65714)
◆총 본 산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 1동188 -7번지 관정사
◆연 락 처 : ☎ 054)976-0405 / FAX 054)976-4405
◆입종상담 : 010-3134-8484 (원묵)

大韓佛教 禪密宗
TEL 054)976-0405 / FAX 054)976-4405
www.sunmiljong.or.kr

석불,목불,동불,소불, 전문 제작 신라불교 공예사


천수천왕목불상


신라 불교 석물의 대표작 다보탑


금강역사석조물

시공장소: 대구 동구 도동 제현사



신라인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11-811-7771 · 016-9211-3330 / 팩스 : 053)981-5558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8 번지

인도성지순례 다녀 온 이야기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
향덕 지음
운주사 펴냄|1만4500원

"정말 내가 인도를 다녀왔나? 하는 뜬금없는 의문이 들 때면 함께 간 도반 한 분이 소중히 '모셔'와 선물해 주신 부처님 다비장의 흙과 갠지스 강의 모래알을 들여다봅니다."

향덕 정사가 인도성지순례를 다녀 온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놨다. 10일이 채 못 되는 짧은 일정 동안 향덕 정사가 만난 인도의 모습이 내면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소개돼 있다.

기단만 남은 스투파, 벽돌 몇 장, 바닥만 남은 건물터만을 만났던 인도성지순례의 헛헛함을 역사와 감동으로 메운 책이 바로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다.

저자는 성지 순례의 기쁨과 소소한 문화의 차이를 유머러스한 문체로 잘 버무려 사진집 또는 역사책을 읽는 듯 했던 다른 인도기행기와는 차별화시키고 있다.

인도로 떠나고 싶다면? 가기 전에 이 책 한 권 읽고, 부처님이 왔다 가신 흔적만 남아있는 인도에서 부처님의 향기를 느껴보자.

강지연 기자

달마선의 이론적 배경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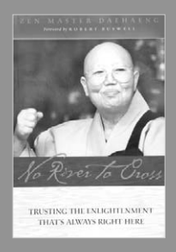
중국초기 선종 능가선법 연구
박건주 지음
운주사 펴냄|2만 5000원

중국 선의 맥은 달마에서 혜능까지 이어지고 혜능 이후 다시 많은 갈래로 나눠지며 전해졌다. '선의 황금기'를 이룬 당 송 시대를 거치며 이전 시가와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불교는 초기의 달마선법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한 불교를 줄기차게 계승해 왔다.

박건주 교수(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는 달마선법 즉, 능가선법의 회복을 주장해 왔다. <중국초기 선종 능가선법 연구>도 그의 학문적 즐기를 증폭해 온 결과물이다. 박 교수가 지난해 펴낸 <달마선>이 다소 개요서의 성격이었다면, 이 책은 학술적인 견해와 논증을 보다 깊이 천착한 연구서다.

총 12편의 논문은 '먼저 알고 닦는다' 즉 문사수(聞思修)와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근본 수증체계에 의하지 않고 개시(開示)하지 아니하는 수행풍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박 교수는 달마선법의 근간을 이루는 <능가경>의 선지를 두루 조망함으로써 학술서에 머물지 않고 수행자에게 지침이 되는 책이 되길 바라고 있다.

임연태 기자



대행 스님 법문/한마음국제문화원 번역 Wisdom Publications 펴냄|1만6680원(교보문고)

한국 비구니 최초의 영문판 법어집



한마음 선원장 대행 스님의 법어가 미국 보스턴에서 영문판으로 출간돼 미국과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이 7년에 걸쳐 번역작업을 한 원고를 보스턴의 유력출판사 Wisdom Publications가 출간한 <No River to Cross>가 현재 아마존 닷컴(amazon.com)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로 번역되는 이 영문판 법어집은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kyobobook.co.kr) 외국도서 코너에서 판매되는 <No River to Cross>는 최근 매주 주간베스트 종합 60위권에 기록되고 있다. 서구와 국내에서의 호응에 힘입어 한마음국제문화원은 내년 초에 한글판을 출간할 계획이다.

<No River to Cross>는 지난 10월 열린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에서 세계의 유명 출판사 대표와 편집자들의 주목을 받았었다. 당시 세계 출판계의 거물들은 "책의 내용이 서구사회에 아주 신선한 가르침으로 와 닿는다"며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의 보편적 진리를 일깨워 주어 호감을 갖게 된다"고 평했었다. 이 같은 평은 미국 보스턴의 스테디셀러 출판사로 알려진 Wisdom Publications사가 인터넷을 통해 판로를 열면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No River to Cross>의 원리 수행 생활 활용 편을 번역한 <No River to Cross>는 한국 비구니스님의 법어집으로 외국의 출판사가 처음으로 발간한 영문판이다. 그간 한마음국제문화원은 대행 스님의 법어집과 일화집 등을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 출간해 왔다.

<No River to Cross>를 읽은 미국의 유명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서평을 쓰기도 해 화제다.

미국 지성사회의 거물들 자발적인 '서평'

UCLA 불교학연구소장 로버트 버즈웰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이 책에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불자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청중들에게 다가서는 대행 큰스님의 역량이 잘 나타나 있다"고 소개하며 "대행 큰스님의 가르치는 방식은 의외로 간편하지만 그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심오하다. 사람들의 품성을 파악하는 통찰력과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듣는 사람의 필요에 가장 알맞은 가르침을 주시는 스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해상을 수상한 바 있는 데이비드 메켄 교수(하버드대 한국학연구원장)는 "<No River to Cross>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며 때로는 놀랄 정도로 단도직입적이다. 이 책은 불교식 수행에 대한 복잡한 용어들과 개념들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선별된 마음을 밝혀주는 일례들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문제들에 대해 매우 타당성 있는 안목을 제시해 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죠지타운 대학의 프란시스카 조 교수도 "평이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말로 사람의 폐부를 꿰뚫는 대행 선사의 역량으로 이 책은 장기 베스트셀러로서의 수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불교잡지 '샴발라 선'도 책의 구성과 정신적 가치를 극찬하며 자세히 소개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이끄는 정신적 '동력'

<No River to Cross>는 대행 스님의 삶과 사상 그리고 가르침의 핵심에 대해 궁금해 하던 미주지역과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고 있다는 게 미국 출판계의 반응이다. 한마음국제문화원에 따르면 대행 스님의 법어집을 출판하기 위해 인도와 독일 등지에서 저작권 협상 요청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과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폭을 세계적으로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농사 지으며 쓴 글을 엮어…



비온 뒤에 무성한 조롱박 넝쿨
지묵 스님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1만원

30여 년 전 송광사를 시작으로 해인사, 봉암사,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을 거쳐 수원 아란야선원에 머물고 있는 지묵 스님이 쓴 에세이다. 이 책 제목을 스님의 토굴인 아란야선원에 있는 '조롱박 넝쿨'에서 따왔듯이 책 속에는 스님의 일상 수행 생활에 대한 단상들이 가득하다.

지묵 스님은 그동안 걸망지고 떠돌아다닌 선원들 중에서 아란야선원이 가장 좋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텃밭에 나가면 상추, 케일, 고추, 들깻잎, 토마토, 호박 등 농산물들이 많아 손님들이 찾아와도 대접할 것이 많단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스님은 틈틈이 200여 편의 글들을 썼다. 그 속에는 평소 가깝게 지냈던 법정 스님 등 스님들의 얘기와 아란야 선원에서의 생활 들이 붓가는 대로 자유롭게 소개돼 있다. 꾸밈없이 소박하고 따뜻한 스님의 성격이 글 속에 잘 나타나 책장을 덮고 나면 스님의 온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

김주일 기자

'효' 편지 공모 입선작 '감동' 가득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혜철 엮음
여시아문 펴냄|9000원

"아버지, 아마도 당신 딸이 벌써 엄마가 되었으리라곤 상상도 못하셨겠죠? 아이를 낳고 처음, 그 갓난아기를 안았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6년의 형을 받아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원망도 아닌, 증오도 아닌, 그저 옆에만 계셔 주셨다면 내 이름 단 한번만이라도 따뜻하게 불러 주셨다면 저 이토록 서럽고 싫지는 않았을텐데 하구요."(효 편지 최우수상, 청주교도소 김OO)

한 순간의 잘못으로 영어의 몸이 된 채 세상과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겠지만 '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격리된 공간에서 지극히 폐쇄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불효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현장에서 오히려 효도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

청북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이 지난해부터 수감자들을 상대로 '효 편지 쓰기 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지금의 불효'를 '미래의 효'로 다지기 위해서다. 의외로 반응이 뜨겁다. 효 편지 공모에 1000편 이상이 응모되고 교정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인다.

올해 효 편지 공모에서 입선한 작품들을 묶은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은 남녀 수감자들의 편지글 30편과 수필 5편, 시 15편, 신행수기 6편을 담고 있다. 어느 사연 하나도 절절한 마음을 담지 않은 것이 없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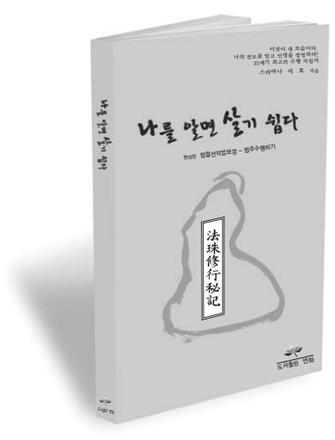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5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6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7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8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정관	운주사
9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이야기	이윤수	민족사
10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성철	장경각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여러석은 자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을 아예 모른다.
약간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어렴풋이 나마 안다.
완전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든 보배를 끄집어내 쓸 줄 안다.
이 수행서는 약간 지혜로운 자가 자기 속에 든 보배를 끄집어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추천의 말, 저자)

모든 존재는 각각 〈내면의 완전성〉을 지닌다.
내면의 완전성이란 곧 붓다이자 다르마(法)이며, 삶을 꾸미는 에너지의 처소이다.
당신 속에 든 붓다를 깨울 방법은 없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 속의 붓다는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당신을 따라다니며 활동하는 붓다를 보는 법이 여기에 있다.
법주(法珠) 통하면 스스로 그 활동을 알 수 있으며
현실적 성공을 이루는 지름길을 찾을 수도 있다.
당신의 현재 모습 속에서 전생과 미래를 모두 동시에 볼 수 있다.
법주는 그것을 가능케 하며, 그대 내면의 완전성은
100% 바른 점찰(占察)로 인도한다.
당신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수행에 의해
현재와 미래 모습은 수시로 바꿀 수 있음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각자의 모습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마음 과학에 의해
밝혀놓은 수행서이다.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www.bubju.kr

신국판 양장본 360p 수행도구 법주 포함 정가 50,000원

이것이 내 모습이다.
나의 전모를 알고 인생을 경영하라!
과거 · 현재 · 미래를 아는
21세기 최고의 수행 지침서

스라마나 석 호 지음

나를 알면 살기 쉽다



현대판 점찰선악업보경 – 법주수행비기

온라인〈농협〉 1343-02-005446 (예금주:이성한) 도서출판 연 화 Tel. 053)253-1923 Fax. 053)254-8711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22. 허공을 노니는, 함허당

옛날에는 환인과 콧구멍을 쌓더니
昔與桓因築鼻空
오늘은 산승과 허공을 치네
今伴山僧解打空
쳐가고 쳐올 때 허공의 탄식
打去打來空自噫
'휴' 할 때마다 방에 가득한 바람
一噓噓出滿堂風

위의 선시 작가는 조선 초 무학(無學) 대사의 상족인 함허당(涵虛堂) 기화(己和)다. 일반적으로 함허 득통(得通)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함허는 당호이고 기화는 법명이며 득통은 호다.

그의 제자 야부가 쓴 행장에 의하면 세종 2년(1420) 가을, 오대산에 들어가 여러 암자에 들려 참배하고 영감암에서 나옹선사 영정에 공양을 드리면서 이틀 간 머물렀다. 하루 저녁 꿈에 한 신령스런 이인이 나타나 스님에게 말하기를, 그대 이름은 기화이고 호는 득통이라 말했다. 절을 하고 이름을 받고 꿈에서 깨어보니 몸이 가벼워 마치 허공에 노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월정사에 내려와 한 방에 머물며 평생을 받쳤다 한다.

함허당은 조선 초기의 배불하는 국시에 맞서 호불(護佛)하려는 염원에서 <현정론>,<유석질의론>을 저술하였고, 또 함허가 설의한<금강경오가해>는 제방에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수자들의 지침서다. 그러나 함허당의 간절한 불법의 참뜻을 이해시키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대의 대세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한 수의 게송으로 자기의 심정과 아울러 암울한 불교의 앞길을 한탄한다.

여기 저기 불사 헌다는 소식 듣고
聞說諸方壞佛廟
어쩔 수 없이 흐르는 두 눈의 눈물
無端兩眼淚潸然
우리들 덕 없음이 부끄러울 뿐
但慙我輩都無德
감히 합장하고 정성껏 하늘에 고하네
合掌傾誠敢告天

<유감(有感)>이라는 제가 붙은 시다.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여러 측면에서 불교가 폄하되고, 절이 헐리는 상황을 맞는다. 그러나 이 울분을, 스스로 부덕의 소치로 돌려야 하는 현실을 부끄러이 여길 수밖에 없음을 노래한다.

부채-허공. 허공-산승 등은 선시의 모순어법적 표현
조선시대 불교를 배척하는 국시에 대한 한탄 노래

앞 모두의 게송은 <부채>를 주제로 한 선시다. 1행과 2행에의 대구가 절묘하다. '전에는 하느님의 콧구멍을 막더니/오늘은 산승의 손에 들려 허공을 친다.' 1행과 2행 사이에 상상되는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 현격하다. 그 만큼 우리를 현묘한 세계로 틈입시켜 많은 상상력을 주고 이미지를 파생케 한다. '하느님/부채', '부채/허공', '허공/산승', 이 가운데 반 쯤 졸며 '끄덕이는 노승의 머리/힘없이 떨어뜨리는 부채', 이쯤 되면 허공의 탄식이 아니라 노승 마음의 딸꾹질이다. 이들이 인연이 되어 방안은 어느덧 바람으로 일렁인다.

이것은 바로 선시가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시켜온 선시의 모순어법적인 표현이며 반상합도 된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다. 중중무진화엄법계(重重無盡華嚴法界)로 정립되는 선시가 그리는 무한실상(無限實相)의 세계이니, 곧 '하느님=부채', '부채=허공', '허공=산승', '끄덕이는 노승의 머리=힘없이 떨어뜨리는 부채'가 모두 반상합도 되어 한 빼어난 세계를 연출한다.

3행과 4행에서 "쳐가고 쳐올 때 허공의 탄식/'휴' 할 때마다 방에 가득한 바람"이 '어느덧 방안에 일렁이는 바람이 된다.' 놀라운 세계다. 자성이 무자성의 세계, 곧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므로 하느님이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일체의 성현이 상대의 세계를 뛰어난 무위의 절대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一切賢聖 皆而無爲法 而有差別-<금강경>제7 '無得無說分')"라고 설하신 바와 같이 일체만물이 스스로 고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이름을 갖게 된다. <금강경> 도처에 "이른바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불법입니다(所謂 佛法者 卽非佛法 是名佛法 -<금강경>제8 '依法出生分')"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㉒적갓물김치

우리가 흔히 먹는 '갓'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갓의 야생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산지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지역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학설을 종합해 보면 지중해 지역에 야생하는 식물이 중앙아시아에서 자연교잡되어 그 결과 '갓'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기름용으로 쓰이는 갓은 인도에서, 채소용은 중국에서 품종이 분화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갓의 재배역사가 2000년 이상인데 <예기>(BC 200년이전)에 개장이라는 품종이 있었고 <재민요술>(530년경)에는 촉계와 계자가 있는데 잎을 이용하는 촉계라는 품종은 소금절임과 건조채소로도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된 농업서적인 <본초화명>(901~923)과 <화명초>(931~938)에 갓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갓의 재배역사는 분명치 않지만, 중국과 일본의 재배역사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갓을 재배해 채소로 즐겨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적갓은 청갓보다 더 항산화성이 높다는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피부의 지방질이나 조직성분에 미치는 산화억제작용(피부노화 억제효능) 혜산의 산화적 공격억제작용(항 발암성) 그리고 혈액 LDL-콜레스테롤의 산화억제작용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소용 갓은 중국에서 품종 분화
적갓은 피부 산화억제작용 등 풍부

적갓에서 우러나오는 빨간 물은 바로 이 귀한 약리와 영양소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적갓을 소금물에 절여서 그 물을 씻어 버리면 영양소를 버리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은 적갓을 이용해 물김치를 담가 보겠습니다.



적갓물김치

재료: 적갓, 소금, 무, 통깨, 생강

만드는 법

① 적갓은 씻어서 소쿠리에 담고 물기를 뺀 다음 한나절 둔다. 그러면 적갓이 숨이 죽으며 시들어진다.

② 무는 길이로 나박나박 썰고 생강은 강판에 갈아서 즙을 만들어 놓는다.

③ 소금물을 만들어 생강, 무, 적갓을 넣어두면 빨간 물이 곱게 우러난다.

④ 물이 우러나며 맛이 들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게 해서 먹는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㉒

아,
박제천 | 문학아카데미, 2007 | 값 6000원





자연과 일상에서 부처를 느끼다

1965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한 박제천의 열두 번째 시집 제목은 <아,>이다. '아'는 무(無)의 산스크리트어 발음이다. '아'는 시인이 찾아낸 무자화두인 것이다. 시인은 시집 3부에 편집한 18편의 시에 '심우도'라는 부제를 붙이고 있다. 심우도는 불교에서 마음을 수양하는 방편으로 삼는 구도자와 소에 대한 짧은 비유로 된 이야기이다.

이를테면 '대추공양-심우도'에서 화자는 "온몸에 불광을 흠뻑 낸 대추알들"에게 군침을 흘리다가 발밑을 내려다본다. 화자는 다른 풀이나 생물들도 대추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뜬다. '은하-심우도'에서는 나무를 만나 껴안으며 "내 몸 또한 저 나무의 뿌리와 수액, 나이테에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달마 그림-심우도'에서는 화자가 달마 그림을 수묵으로 그리며 봄밤을 꼬박 새우며 "명사산 모래울음 소리"를 듣는다.

시인은 '관음찬-심우도' 시화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하러 불영사를 찾아갔던 일화를 들려준다. 불영사에서 일박을 한 시인은 아침 불영계곡에 나가 평생 "관음의 불도장"을 받게 된다. 그때의 희열을 "잠시, 아주 잠시/ 가슴 속에 회오리치던 눈보라가 개이고/ 청솔의 무수한 손가락들이 천 개의 손가락으로 보이고/ 그 끝마다 보이는 햇빛의 눈이/ 서늘한 가슴의 바닥까지 비쳐왔다"며 천수관음을 보았다고 한다. '선묘-심우도'는 부석사 선묘각에서 창작 소재를 가져온 것이다. 다음 시에서는 곳곳의 자연과 생활에서 부처와 보살을 느끼고 보는 시인의 불교관이 구체화된다.

코가 깨진 미륵보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문둥이보살, 얼굴마저 지워진 코고작은 돌부처, 나 몰라라 잠을 자는 기왓장보살이 모두 모이는 곳

부뚜막귀신, 대들보귀신, 뇌리뿌리귀신, 동서남북 오방신, 여기서는 모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곳

햇빛 좋은 입춘날, 눈이 부신 햇빛 거울로, 제 마음 속, 무덤 속 어둠을 불살라, 보살도 부처도 잿더미가 되고 마는 날

돌쩌귀 열고 나오는, 얼음장을 깨고 나오는, 겨우내 내린 눈을 가슴으로 껴안아 녹인 물로 가득가득 속을 채운 냉이며 달래, 움파며 승검초, 죽순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네.

-'입춘날, 운주산 빈 터에 배를 띄우고 싶다' 전문

이 시는 창작자가 직접 서술한 시화를 통해 입춘날 오래전에 다녀온 운주사를 기억하면서 쓴 시이다. 화자는 만물이 다 부처라고 한다. 돌로 만든 무생의 사물이든, 귀신 등 관념 덩어리든, 식물이든 가리지 않고 곳곳이 물물이 부처고 보살이라는 시인의 불교관을 화자를 통해 투영하고 있다.

시 '벌레의 집'에서 화자는 "벌레가 내 요즘 화두다"라고 한다. 화자는 자신이 살아서 남의 살을 많이 먹었으므로 죽어서는 흙속에 묻혀서 벌레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하였으나 매장이 아닌 화장을 하려고 하니 미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목욕할 날만 기다려야 하는데/ 나를 기다릴 벌레들 생각만 하면/ 온몸이 따끔따끔하다/ 길가다 벌레와 마주치면 얼굴도 화끈 달아오른다"고 한다.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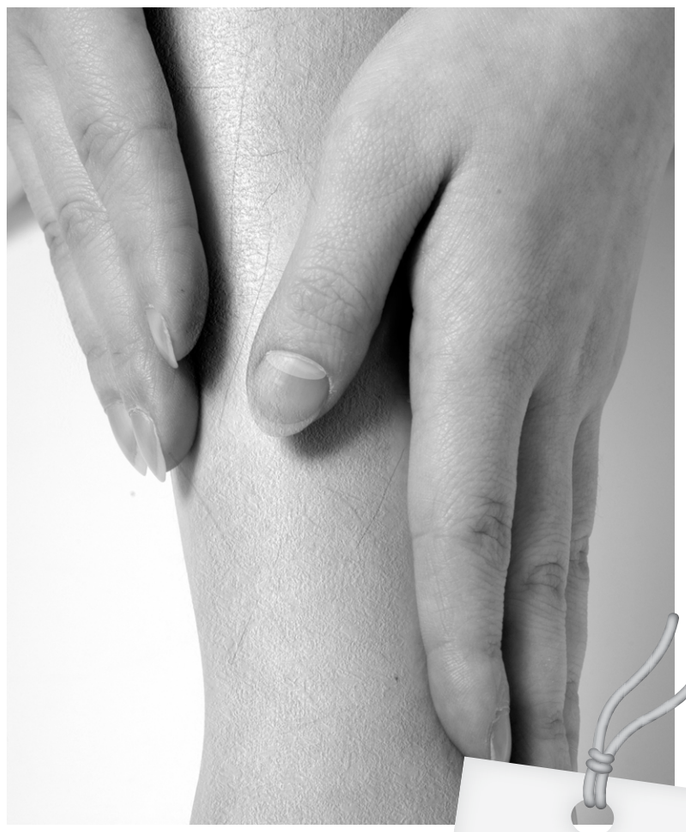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거칠고 메마른 피부에 물을 주세요

겨울철 건강관리 - ❷피부관리

건조한 겨울이면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이 무척이나 신경 쓰인다. 또 찬바람을 쐬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다. 지난주에 이어 겨울철 건강관리의 두 번째로 겨울철 피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본다.



푸석푸석하고 갈라지는 피부

겨울철 피부의 적은 추운 기온과 건조한 습도다. 피부의 수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피부가 당기고 조이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건조한 피부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심해질 경우 가려움증도 생긴다.

일반적으로 각질은 건성피부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피부가 전부 건성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겨울 목욕 후 팔다리의 피부가 당기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각질은 피부의 바깥층인 각질층이 건조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기름(피지)이 적게 분비되는 팔이나 다리, 얼굴의 턱 주변이나 목 주변에서 주로 나타난다.

보통의 각질은 대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만으로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지성 피부의 각질은 주의가 필요하다.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지성피부인 사람은 세수 후에 양미간과 콧등을 잇는 티존(T-Zone) 부위에 각질이 일어나기 쉽다. 이것은 피부의 각질층이 피지의 영향을 받아서 녹아나는 현상이다. 건성의 각질보다 크고 끈적끈적한 지성피부의 각질은 보습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많이 생긴다. 지성피부의 각질은 토너와 아스트리젠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여기에 각질제거 효과가 있는 여드름용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화장은 되도록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크림이나 로션 타입의 보습제 보다는 젤 타입의 화장품만을 사용하여 유분을 보충해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건성피부에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는 세안시 비누 사용을 피하고 보습성분이 포함된 크린징 로션이나 크린징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분과 수분이 많이 함유된 로션이나 크림타입의 화장품은 건성피부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또 눈가의 피부건조 방지를 위해 아이크림 등의 사용도 중요하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보습팩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피부 건조를 해소하려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8~12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몸속의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하고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줘 건강한 피부를 가꿀 수 있다. 비타민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도 피부건조에 도움이 된다. 특히 비타민A는 표피층에 수분 보충을 하는 기능이 있어 건조한 피부의 보습을 돕는다. 치즈, 시금치, 김, 미역, 다시마 등이 대표적인 비타민A 식품이다.

각질이 심한 피부는 비타민E를 섭취하면 효과적이다. 비타민E는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자연 보습 기능과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또한 피부의 표피 세포를 재생하는 기능도 있다. 비타민E가 함유된 대표식품은 녹황색 채소, 간유, 장어, 호두, 아몬드 등이 있다. 그 밖에 메밀도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 메밀국수나 메밀묵으로 먹어도 좋고 메밀가루를 물에 개어 팩을 해도 좋다.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는 얼굴

안면홍조증은 겨울철 추운 밖에 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다. 이것은 모세혈관이 급격한 온도변화로 확장되거나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심할 경우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갑기도 하다. 피부가 희고 진피 두께가 얇은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며 피부 혈관 반응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예민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안면홍조를 심장이 상해서 심화가 생기고 그 화기가 위로 뻗어 얼굴에 나타난 것이라 진단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심장의 화기를 내리는 차고 냉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찬 성질의 음식으로는 대나무잎차, 오이, 무, 메밀국수 등이 있다. 반면에 인삼차, 쌍화차, 생강차, 대추차 등은 더운 성질이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뜨겁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안면홍조를 악화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자율신경 조절을 위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토마토, 당근, 귤 등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이다.

스키장에선 자외선 차단제 필수

자외선은 한여름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겨울철 많이 찾는 스키장이나 바닷가에서는 반사광으로 인한 자외선이 여름철 못지않다. 적당량의 자외선은 비타민D 합성에 관여해 인체의 뼈를 튼튼히 해주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다량의 자외선은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침착시켜 피부가 검어지는 기미나 주근깨, 잡티 같은 색소성 피부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공기가 건조한 겨울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에 있는 콜라겐의 변성이 일어나기 쉬워 피부노화를 촉진시킨다.

자외선에 노출돼 생기는 증상을 예방하려면 여행이나 외출시 자외선 차단제를 적절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특히 스키장 등을 찾을 때는 필수다.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 동안은 3~4시간 간격으로 여러 번 발라주는 것이 좋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가장 중요

겨울철엔 실외활동보다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따라서 규칙적인 환기로 실내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가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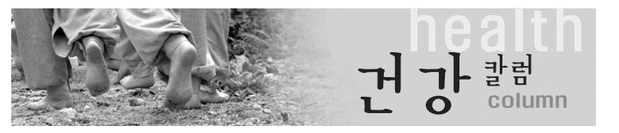
목욕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하고 2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다. 목욕을 할 때에는 때타올 등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철의 잦은 목욕이나 때를 세게 문지르는 습관은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까지 제거해 피부를 더욱 가렵게 만들기도 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세포 재생력을 증강시켜 피부관리에 도움이 된다.

조동섭 기자

겨울철 피부 관리 이렇게 하세요

1.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널어 실내 습도를 높여 준다.
2. 전신 목욕은 2~3일에 한 번 한다.
3. 샤워 뒤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4. 스키 등 실외 운동 시 꼭 자외선차단제를 바른다.
5.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다.
6. 물을 자주 마신다.



health 건강칼럼 column

12. 겨울철 질환-비염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비염환자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콧물이 다시 나오다 못해 줄줄 쏟아지는 알레르기성비염이나 비후성비염, 위축성비염 등의 질환이 활개치기 때문이다.

이런 비염의 원인 및 증상을 알아보고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배워보자.

비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급성비염, 만성비염, 알레르기성비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급성비염은 보통 코점막에 바이러스나 이차적 세균감염 등에 의해 급성적인 감염이 발생하여 생기는 경우로, 한의학에서는 상한, 감모 등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만성비염은 급성비염의 반복, 축농증, 이물질의 만성적인 자극 등으로 코 안의 살점이 심하게 두꺼워져서 코막힘, 콧물, 냄새를 못 맡거나 콧소리 등이 생기는 경우이다. 때로는 머리가 무겁고, 수면장애 등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며 한의학에서는 비루(鼻漏)의 범주로 본다. 세 번째, 알레르기성비염은 이물질의 흡입으로 인해 코점막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생긴다.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질환으로 한의학에서는 비체(鼻嚏) 등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염은 주로 코와 연관이 있는 폐의 기능 저하나 폐의 열기, 폐의 한기 등으로 인해 생기기 쉽고 이외에도 비(脾), 신(腎)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코막힘·콧물·수면장애 등 유발

녹황색 채소 섭취·충분한 휴식을

비염의 원인은 단순히 코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장기의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처리 되지 못한 피의 찌꺼기들이 남게 된다. 이런 어혈이 코의 혈관에 몰리면 코의 점막이 두꺼워지고 부풀어 올라 코가 답답해지고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비좁아져 비염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먼지, 연기, 화학 약품에 노출된 경우,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양쪽 콧구멍이 번갈아 막히는 경우가 많고, 막혔다 뚫리는 것을 반복한다. 끈끈한 콧물이 주르르 흐르고 냄새를 못 맡으며 앞이마 쪽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진다. 특히 알레르기성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증상이 나타나며 눈이나 피부의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만성두통과 피로, 답답함,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먼지가 많은 곳, 공기가 탁한 곳, 습하고 냉한 곳을 피하고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등의 물질 역시 피하도록 한다. 또한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 특히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찬 음식 등을 주의하고 식물성단백질의 섭취와 녹황색 야채의 충분한 섭취를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적절한 운동을 해주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피하는 것 또한 비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비염의 한방치료는 전체적으로 병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파악하고 나서 처방을 하는데 주로 실조된 호흡기능과 면역기능을 회복시키고 강화시키는 약물을 병행해 사용한다. 호흡기나 소화기의 기능이 약하여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없는 사람은 기를 돕고, 폐의 기능을 강화하는 약을 처방한다. 또한 식은땀을 잘 흘리지만 변비증세도 있으면서 얼굴도 붉고 입이 마르는 증상도 겸해 있으면 열을 없애고 기가 처음 발생하는 근원적인 면을 도와주는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침 치료를 병행하면 오장육부의 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해줌으로써 치료효과가 높아져 한약만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보다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고 만 행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계 철야 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철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펴실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으며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어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은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마련을 위한 교재로 하고 선생님의 도반이시자 제자이신 보림사 회주 묵산스님께서 지도 해 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07년 12월 28일(목) 오후 8시부터 2008년 1월 3일(수)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4동 약수길 17-1호)
- 회 비 : 일반 9만원
- 전수 및 문의 :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 하차 정릉 청수장행 143, 162, 1012, 1013 → 대우아파트 하차 (돈암역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보 림 회 회장 장철순 합장

"신 수 비 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개정판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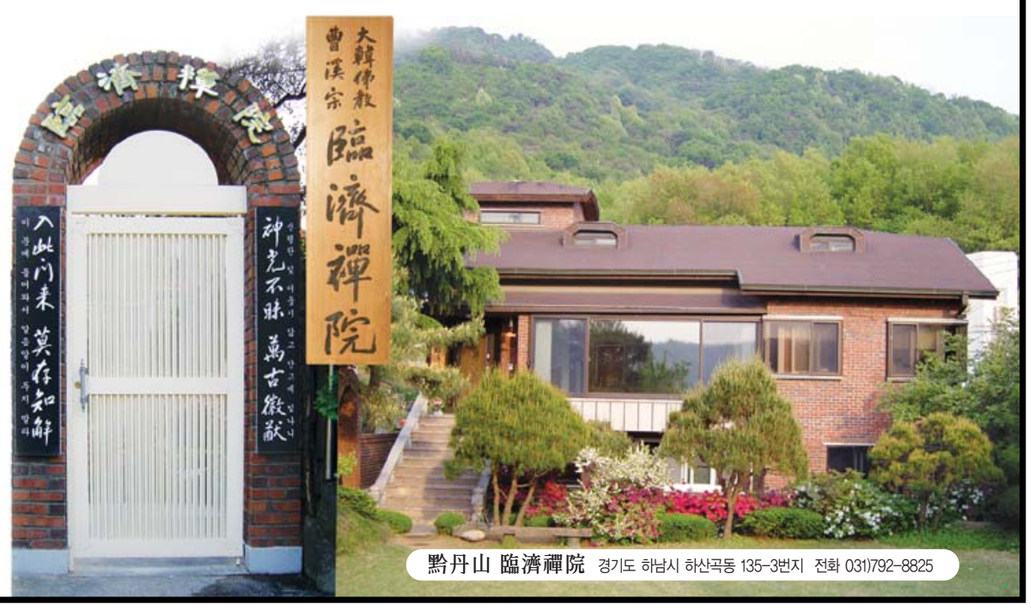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법문집의 백미"
서옹대종사의 법제자 제산종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35-3번지 전화 031)792-8825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5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팔자술강의
- 연구해설반(실전반, 개업반)으로 실전풀이 수업
- 변만리, 이석영, 박재완, 이병열, 마야비법의 고수들의 비법 및 교재 분석강의
- 매주 목요일 2시(월10만원)

도현사랑방(동묘역 1,6호선)
02)2236-7852
017-710-2420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정 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초능력 학회에서 무료 건강상담체험"
병명도 없이 원인 모르게 아픈분 (빙의) 백방으로 치료 받아도 잘 낫지 않은분 몸이 늘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운 분 등을 체험해드립니다.
장소 : 백장사(경북 고령군 쌍림면)대구 포교당
대구시 남구 대명 2동 2009-1
(백장사에 운영할 스님을 모십니다)
017-501-2315
053)471-3123

역학, 전생요법
전생퇴행, 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31)842-8023
011-772-4606
서울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보살선방
(1인1실-방1, 주방, 거실, 욕실 / 부부실-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며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 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 불광대학
053)656-6766

부산 선(禪)문화원
제 1기생 모집
선묵화, 참선공부, 체계적인 지도
범주스님 직접지도함
051)518-5900

역학개인지도 숙식제공
사주명리 관상학 구성학
풍수 음양택 성명학 최면학
빙의 전생 영가 치유 비법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출장법문 영가천도
017-322-4625
043)833-4625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 승무작법
010-2570-3847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의식, 서화, 의술 등등에 능통한 법랍30여년 재수 50대 초반의 청정 비구로써 도량은 여법하나 운영이 어려운 사찰을 불사도와드리며 안거할 수 있는 인연처를 찾습니다
비구비구니, 처사, 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 모두 가능합니다
011-854-8107

세수 60, 승납 30 년 된 비구입니다 주지직 원합니다
(보시관계 상의)
042)272-5786
011-9429-578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214-0509

절에서 가족처럼 생활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연령관계 없음)
052)268-5334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과 공양주 보조보살님, 법당보살님, 행자스님을 모십니다
(사미계 수료 후 승가대학을 보내드립니다)
011-324-510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부처님께 출가하여 스님이 되실 분 여(女) 행자님을 기다립니다
(45세 이하)
경북 조용한 비구니 사찰임
011-810-9957

포교원에서 기도하실 비구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50세 이하)
051)542-4848
011-551-1719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576-273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 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사이)
02)387-3216

기도스님 입니다 인연처를 찾습니다
010-5112-6608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
043)297-872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비구 부전스님및 행자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22-34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갓바위 앞)
053)982-0480
011-810-0092

여종무원 모집
- 자 격 : 한글, 엑셀 사용(경력무관), 30~ 40세 여자
- 근무조건 : 숙식 필수, 월 4회 휴무
- 보 시 금 : 협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새로운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051) 722-7744, 017-580-2030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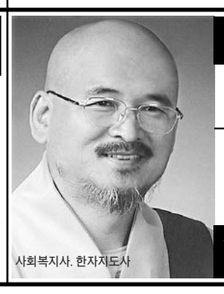
역 학 공 부
- 사 주 초 급 : 월요일 18: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금낭경, 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농장 입주자 봉사자를 모십니다
충남 청양군 대치면에 위치한 영농법인 선농원 농장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유기축산과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봉사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거사님을 모십니다. 거사님 내외분이면 더욱 좋습니다.
◆조건 :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근무동안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수 있으신 분 · 부부일 경우 식비 포함 월 200만원
2007년 12월 4일
(선농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산 1-2 041)943-8891~3
(본 사) : 대전시 서구 갈마2동 1219번지 042)531-0026~7
영농법인 선농원 대표이사 장혜명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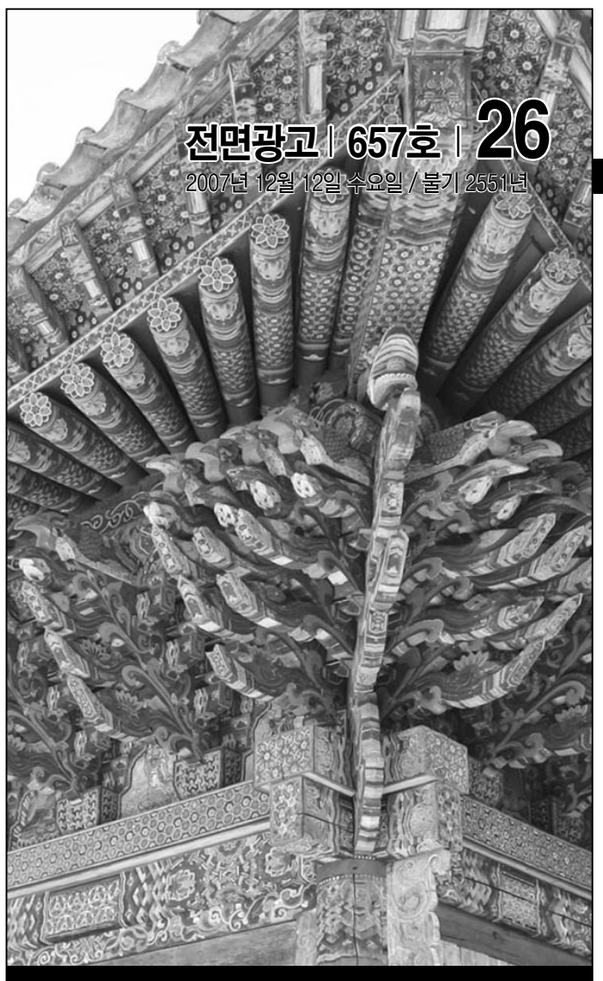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외곽도시
- 법당 : 30평
- 요사 : 80평
- 부지 : 620평
- 가액 : 43억

- 위치 : 전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금정산 자락
- 총평수 : 4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대종각
- 주차장 10대 가능
- 동남향 전망 최고(양명함)
  완벽한 산세
- 부산 시청에서 10분 거리
- 가액 : 7억원

- 위치 : 의령 정곡
- 대지 : 1000평
- 건물 목조 법당 30평
  +10평+15평(3동)
- 요사 : 30평(공양간)
-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 가액 : 2억8천만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낙동강이 보이는 사찰 터 28,000평(당 1만원) "급"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부지 : 7천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9억

*도심부근큰가람가능
(법당+대지300평)9억

- 위치 : 기장 월내
- 대지 : 1,000평
- 법당 : 45평
- 요사 : 50평
- 가액 : 18억

*교통좋은 근교 신축사찰

- 위치 : 청송 보현산
- 부지 : 1,4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7억

*기기막힌 계곡, 버스진입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사찰컨설팅(양도 양수 하실 스님 상담환영,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평수 : 1,200평
- 법당 : 전통사찰형식(내9포, 외5포), 경내석굴있음
- 요사 판넬건물 3동
- 국도2분거리, 산속 고속도로 5분거리
- 답사 후 가격결정
- 산세 좋고, 교통편리함
- 가액 : 9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220-4305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
  국민관광단지내
- 부지 : 토지 500평(대지)
- 건축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산신각, 용신각, 한옥 1채
  총 180평 동남향, 최신시설
- 가액 : 8억(임대도 가능)
  보증금 1억원, 월 150만원

011-706-7489(향봉)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12억

010-9757-5608
010-2871-5285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임법당
- 대지 : 20평, 건물 20평
- 주위 아파트 지역등산로길
- 가액 : 8천5백만원
- 몸만오시면 됨
  (꼭 필요하신 분 절충가능)

018-363-666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대연동
- 평수 : 72평
  (아파트 약4천세대 상가 5층)
  분양받았음
- 모든시설 최상급, 산사와 같은
  포교원주변 자연경관수려,
  교통편리, 주차편리
  포교에 원력있는 스님 최상의 조건
- 가액 : 농협융자 3천만원 안고
  1억 3천만원

016-9878-1282

주택가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62평(2층)
- 1층 상가 3개, 방1 월70만원
  수입있음, 2층 법당
- 8차선 도로 10M 인접
  주택가 코너집
- 가액 : 4억2천만원
  (융자 6200만원 포함)

031)257-5991
011-753-599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 평수 : 총60평, 법당 35평
- 특징 : 연등 500개,
  영가등 250개, 인등200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90만원(조절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31)911-9897

사찰 납골당 안내

- 위치 : 대구 근교 30분거리
- 대지 25,000평. 법당 50평
- 극락전50평, 요사채사무실 50평
- 납골당부도탑1,000기 허가분양중
- 가액 : 35억

대구시내.근교사찰(터)

- 위치 : 2억 5천부터 20억
  평수 금액 다양
- 사찰전문가와 친절상담

019-534-7239

포교원 안내

- 위치 : 원주시 문막읍
  버스정류장 앞
- 2층 평수 25평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300만원
- 법사님,보살님,역학하시는분 환영
- 즉시법회가능

010-5185-182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문현동
  일반 단독주택
- 법당 1, 큰방 1, 작은방 2
- 보증금 3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51)632-842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 한옥암자. 도심속 위치좋음
-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답사후 결정)

010-5169-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부림동
- 주위 부림시장, 창동상가,
  어시장, 상가 밀집지역
- 불사 관계상 급 안내함
- 법당 2층 약 40평
- 주지실, 공양주실, 방2, 창고1
- 사찰운영 시설일체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최저가) 1500만원
- 명리학을 겸한 스님, 불사성취함

055)221-3358

대형 포교원 안내(불교회관)

- 위치 : 경기도 75만 신도시
  대단지아파트 중심상가
- 5층건물 , 평수 320평
- 불교대학 운영중
- 보증금 1억, 월 20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절충

010-7700-7682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월근교 동강 앞
- 대지 200평, 전 570평
- 요사채 35평,
- 대웅진16평(목조신축건물)
- 하천부지 약 600평
- 가액 : 2억 7천만원
- ※ 꼭 사실분 연락요망

011-792-8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 2대
- 스님 서재방, 종무실, 대중공양실,
  방사 2칸, 후원 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 시설 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시설비 5천만원, 보증금 절충가능

010-2039-52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6-271-2545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중심가
- 한옥 20평(임법당), 방 3개
- 전세 2천5백만원
  월세도 가능

010-9311-67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시립미술관 지하철 2번출구앞)
- 평수 : 66평
  (법당,방,욕실,공양간,창고)
  34평(옥상,잔디,야외법회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천 500만원(절충가능)
- 특징 : 즉시법회가능

010-6353-4299(주지)
010-9288-4199(부전)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 법당 24평(2층 건물 2층)
- 삼존불, 지장, 신중단,
  영가단, 접견실
- 시설일체 최상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00만원
  (중간세 가능)

016-557-2065
051)581-8065

포교당 안내

- 위치 : 철산역 부근
- 평수 : 40평 2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 사존불 4자반, 아미타,
  관세음, 약사, 지장
- 방2, 목욕시설 완벽

02)861-25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대지 86평
- 건평 114평
  3층 건물 중 1층 공양간
  2층 스님서재, 3층 법당
  각 37평
- 가액 : 3억 5천만원
  (전세도 가능)

017-506-8730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해시 도심포교
- 대지 텃밭 포함 100평
- 단독주택, 방3,창고1,주차장有
- 보증금 2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무보시
- ※ 처음 포교를 시작하는
  스님,보살님,법사님께
  최적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02)3426-1357
010-8726-13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대지 : 232평,
  신축건물(3년) 60평
- 현 식당 운영중이며 심야전기 설치
- 시설: 식당 큰방 (15평)
  주차시설 완비
- 강, 산이 어우러져
  주변경관수려
- 가액 : 3억5천만원(절충가능)

011-803-7448

문화예술포교원

- 위치 : 서울 구로 APT 대단지
- 5층 280평(법당,선방,
  공양간 등 170평,세미나실,칠보,
  자연염색,한지공예 등 110평)
- 6층 70평(집무실, 요사채)
- 보증금 1억, 월세300만원
  (조절가능) 시설비 1억(반값이하)

011-9814-0278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시내
- 평수60평,방3개,주방별도
- 삼존불,후불탱화,지장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000만원/월2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2074-93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영해
  병곡명사20리 바다 10분거리
- 사찰부지 75평
  임법당 30평, 공양실
- 사주나 역학보시는
  스님이나 보살님 적합한 곳
- 가액 : 7천2백만원

016-677-1935
054)787-1935

사 찰 안 내

- 위치 : 노원구 상계역 부근(4호선)
- 평수 : 34평
- 2층 법당, 주지실
  3층 방3,주방,세면실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1-888-01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011-875-3513

촌집(토굴)안내

- 위치 : 경남 양산(통도사 부근)
- 대지 92평 ● 건평 25평
- 가액 : 6천5백만원
  (밭 14평 무상으로 드림)

011-884-7767

사 찰 안 내

- 위치 : 고흥군 도화면 5분거리
- 법당 35평, 11년된 건물
- 산신당11평,종각,요사채2동
- 평수 : 1,000평
- 가액 : 1억 8천만원(가격절충)

061)832-3136

포교원 안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1300만원

017-393-1127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3996-2035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43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9억(급양도)

- 위치 : 서울
- 종교용지 : 3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15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대지 176평, 밭 790평
- 건물 시골 촌집 폐가
  전기수도 차량진입 할 수있음
- 산세 좋고 경관수려
- 가액 : 1억 500만원

011-594-1526

포교당 안내

- 위치 : 온양 아산 시내 중심가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2층 건물 2층
- 내년 3월부터 서울까지 지하철 운행(교통편리)
- 법당, 상담실, 스님방, 창고, 욕탕 구비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철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즉시법회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사 찰 별 장

- 위치 : 경기도 이천 도심지
- 대지 : 180평, 법당 33평
  요사채 양식 2층건물(큰방5)
  신도접견실 1개(심야 전기보일러)
- 가액 : 3억 5천만원
- 특집 : 산과 도심이 어울리는
  전망좋고 교통 편리한
  기도 포교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016-510-3455

사 찰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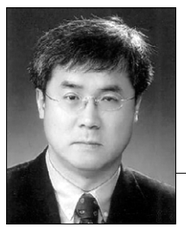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 사찰규모 완벽함

055)342-6341
011-864-6696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 기슭 유언지 內
- 부지 : 약 2,200평
- 건축물 : 대웅전. 지장전,
  요사채, 사무실
- 보증금 : 1억 5천만원 / 월 100만원

051)782-0033
055)337-0111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삼성과 '책임지는 부자들'

삼성그룹이 계열사 임원명의의 차명계좌 1000여개를 이용해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운용해왔다는 주장이 삼성그룹 전직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증권 및 전산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120여 개의 차명의심 계좌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이 달 말이나 내년 초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은 시민단체의 요구와 대선 및 내년 총선과 맞물린 정치권의 이해를 두루 수용한 형태로 국회의결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배제한 채 합의되었다. 대한민국 대표재벌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의혹을 조사하는데다 삼성과 권력층간의 부패 고리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을 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내년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특검은 경제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재계에서 기업의 과거 활동을 특검을 통해 샅샅이 들추면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는 동정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대선 한복판에서 통과된 특검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법치국가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의 20%이상을 담당하는 국민기업이다. 그러나 삼성의 재산과 경영권 세습방법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식에 대한 증여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삼성증권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재산 증식 과정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위 전환사채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e삼성의 회사지분거래 등 불법 상속 의혹사건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득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 '리치 앤드 페이머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난다. 부자나 유명인이 자신의 성공담과 함께 어마어마한 자신의 저택을 자랑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미국인들은 그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거부들의 재산축적과정에 박수를 보내고 아름답고 웅장한 저택을 감상하며 부러워한다. 한편 부시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 폐지에 대해 많은 부자들이 앞장서 반대한다고 한다. 빌게이츠의 아버지 게이츠 시니어와 워렌 버핏, CNN의 테드 터너, 폴 뉴먼 등이 결속한 '책임지는 부자'라는 단체는 상속세 및 주식배당소득세 폐지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재벌을 매도하는 분위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총수는 왜 존경 받지 못하는지 스스로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삼성에 대한 비자금 특검이 국가와 기업의 대외신뢰도에 타격을 주어 스스로 경쟁력을 잃게 되거나 경제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특검이 정치적인 이해와 논리로 해결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기회에 특검이 국민에게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주는 동시에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윤리경영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어린이 포교 지도자들의 '희망'

올 한해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다양한 일을 했다. 지난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교원이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세운데 따른 성과다. 관련 예산의 부족을 염려한 뜻 있는 스님들이 적지 않은 성금을 내기도 했다.

12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전국의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전진대회'를 열었다. 포교원이 개최한 이 행사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한 종단의 의지가 현장의 지도자들에게도 전달되어 미래 불교 희망심기에 협심하자고 발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지도자들이 각자의 정보와 노하우를 허심탄회하게 드러내 놓고 다른 지도자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담을 귀 기울여 들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했다고 한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상당히 크다. 각자의 역량을 꺼내 놓고 서로에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전 모드에 파란불을 켰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지도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니 내년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본지도 올 한 해 동안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린이청소년들의 활동 현장과 포교 마당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한 해 동안 추진하고 마는 종책 사업이 아니다. 불교가 있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새해에도 이 분야의 종책이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전개되길 기대한다.

모든 사찰 재정공개 해야 한다

서울 봉은사가 올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신도들에게 공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교계의 다른 사찰들도 재정 공개를 선언하거나 이미 공개해 온 사찰들도 그 효과와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드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찰의 재정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찰의 재정 구조는 신도들의 시주금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주금의 사용 내역이 신도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주금의 공개 보다는 무주상 보시의 공덕을 훨씬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무주상 보시와 사찰의 재정공개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습이 유지되었던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알려야 할 책임을 가진 쪽에서 알릴 의사가 없고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진 쪽에서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돌이켜 보면 불교계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하나는 지나치게 권력화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적 비리다. 이 가운데 돈과 관련한 비리는 '시줏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쓴 승단과 시주만 할 뿐 그 용처를 묻지 않는 신도들의 잘못이 더해진 결과였다.

이제 대형 사찰들의 재정 공개 의지는 전체 사찰의 의무사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알릴 의무'와 '알 권리'가 실현될 때 한국불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39. 기독교에 바란다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패거리문화 벗어나 사랑 받는 종교로 거듭나길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의 이해와 관용은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기독교의 배타성과 독선에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11월 23일 '한국언론교회'와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반기련)'이 공개토론을 벌였을 때, 기독교의 폐해에 대한 반기련 측의 비판은 거침이 없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기독경 구절을 점잖게 상기시키면서 "종교문화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타종교를 마귀니 사탄이니 공격"하는 몰상식을 따지기도 했다. "세금 한 푼 안 내며,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뒤로는 물질에 혈안이 되고, 천당에 대한 환상과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번갈아 자극하여 복을 파는 종교업자들의 거대한 착취의 구조망"이라고까지 몰아세우고, "공개적인 장소에 모인 수만의 군중이 사찰이 무너지라고 통성기도를 하는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다"고 선언했다.

반지성적이고 공격적인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올 여름 샘물교회 아프간 선교단의 피랍사태로 갑자기 국민의 감정이 증폭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동안 외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종교평화는, 불교라는 관용의 종교가 큰 세력으로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편 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민주화 · 투명성 등 사회개혁에 집중되어 왔던 덕분에 종교문제를 따질 겨를이 없어 수면 밑에서 잠겨 있었을 뿐, 이미 수십 년 동안 피로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는 말이다. 지난 10년 간 개신교인 수 감소의 의미와 함께 기독교 지도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독특한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 지구상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 50대 대형 교회 중 24개가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만 4500개의 한인교회가 있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해외파견 선교사 수가 많은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생각함직도 하다. 그러나 양적 팽창은 그 덩치를 감당할 만한 질적 성숙이 동반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계에 간곡히 바란다.

첫째, 불교를 폄하하지 말라. 불교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결코 아니다. "20세기 가장 큰 사건은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온 일"이라던 아놀드 토인비, "세계적인 종교 중 종교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뿐"이라고 갈파했던 철학자 야스퍼스, "현대과학에 부응하는 종교는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던 아인슈타인 등 20세기 최고의 석학들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종교이자 자신의 뿌리이기도 한 불교에 대해 무지한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종교사회 지도자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노골적인 종교차별을 중단하라. 수년 전 한 일간지의 인터넷 토론마당에 "한국이 세계 최고로 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로 "장사하고 출세하려면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 김영삼 정권 이후 최근 10여 년간 더 심해졌다고들 한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란 개신교인을 지칭하는데, 그들의 '종교차별'에 질렸다는 얘기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감 ·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심지어는 불이익까지 당하게 하는 '종교패거리문화'는 건강한 사회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학교나 공공장소 등 공공영역을 종교로 오염시키지 말라. 공교육체계를 종교 강요로 일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공식회의, 공공행사, 방송출연 등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행위나 종교언급을 삼가하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이 묻어 있다. 그가 공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은 공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넷째, 정치나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를 지배하려 들지 마라. 민주화된 사회란 권력이 분산되어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정치권력과 종교권위가 적절한 긴장상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안정된 사회일 것이다. 기득권마저 내려놓아야 할 기독교계가 권력과 밀착할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 자체가 되기를 시도하는 듯해 우려된다. "망치를 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고, 총을 가진 포수에게는 모든 문제가 사냥감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종교의 권력화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겠지만, 과도한 힘은 타자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독이 되어 부패하고 몰락하는 지름길이다.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타종교인들을 의식하지 않는 기독교의 독선적인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상대의 고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식해 놓은 근본주의의 탈을 벗고 전통종교와 공존할 줄 아는 유연한 종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랑과 신뢰를 받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한 기독교의 대변신을 기대한다.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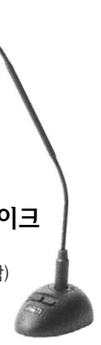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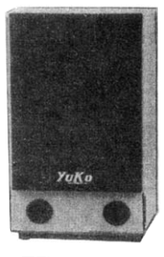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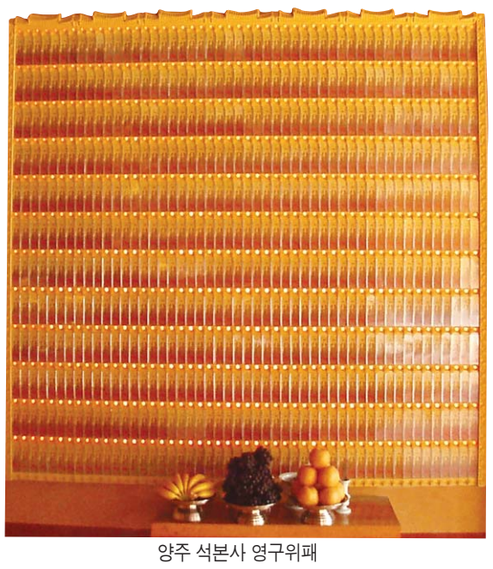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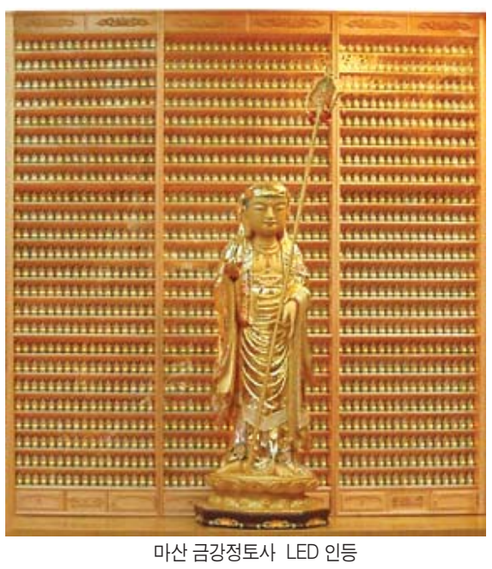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종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연등 작업 현장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자동 승강 장치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 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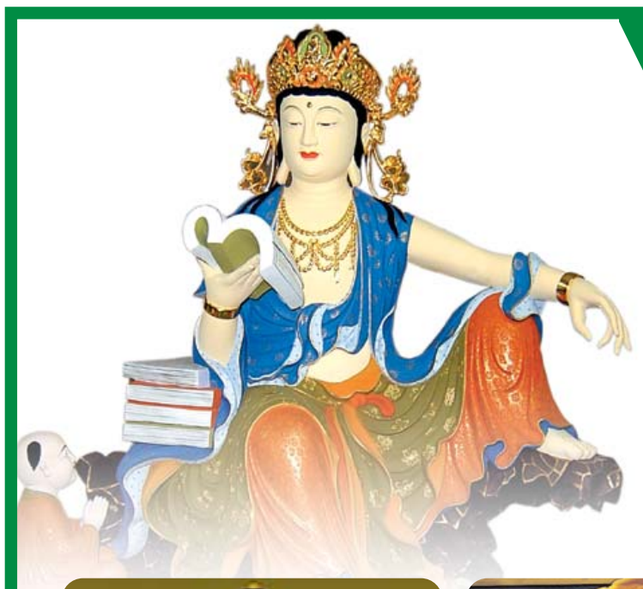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